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39-04
연구보고 17-R17-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책임연구원 김태준
공동연구원 홍영란 김홍민

RESEARCH REPORT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책임연구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 ▶ 공동연구원 :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
김홍민(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 ▶ 연구보조원 : 김광모(한국교육개발원)

국 문 초 록

최근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역량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과 더불어 미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 시민성을 형성하므로 이를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4차 년도 연구로 아시아 시민의식의 개념틀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시아 시민의식의 국제비교 및 연도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국제연구조정관회의에서 확정된 ARM(Asian Region Module)을 반복 활용하여 ICCS 2016 ARM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ICCS 2016 ARM 조사는 8개의 ARM 요인(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법체계에 대한 신뢰,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아시안 정체성,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집단으로는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16년 10월까지 전문조사업체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편 청소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개인 수준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밖/내 사회적 요인)를 설정하였다. 각 요인별 측정 문항들은 ICCS ARM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 설문 가운데 잠재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상당수 배경 요인의 주효과가 확인되고, 일부 배경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하위 요인에서도 유사하였다. 둘째, 2009년도와 2016년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간의 차이를 배경요인에 따라 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전체 시민의식은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의식의

하위 요인 중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 수행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권위에 대한 복종 및 정부·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으며,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시민적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난 수 년간 정부 체제의 변화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역량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점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제도 변화, 교내 활동 설계 및 역할 정립, 콘텐츠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 내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아시아 시민의식, 시계열적 변화, ARM, ICCS, 시민사회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4차 년도 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 특히 올해 ICCS 2016의 공개 및 보고의 맥락에서 한국의 ARM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동안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ICCS ARM 2009자료를 2016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좀 더 다각적으로 사회적 참여역량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위상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ICCS 2016 ARM 측정을 위해 2009년 ICCS 국제연구조정관회의에서 확정된 ARM을 반복 활용하였다. ARM은 4점 척도를 적용한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ICCS 2016 ARM 조사는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16년 10월까지 전문조사업체에 의하여 본 조사가 진행되었다.
- 청소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개인수준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밖/내 사회적 요인)를 설정하였다. 각 요인별 측정 문항들은 ICCS ARM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 설문 가운데 잠재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은 8개의 개념적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권위와의 복종적 태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법체계에 대한 신뢰,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아시아 정체성, ‘비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8개 요인이 통합되어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였다.

3. 주요 결과

1)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성별, 응답자의 기대학력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활동(이슈 공유활동/집단활동 참여),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요인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기타 배경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의 경우에는 일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 시민의식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실개방성이 주효과를 가지고,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의 경우, 성별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요인이 주효과를 나타냈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의 경우에는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슈 공유활동 정도가 클수록 여학생이 권위에 대한 복종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반대로 남학생은 강화되는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요인이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은 성별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정도가 큰 여학생일수록 공공관련 부정행위를 남학생보다 덜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 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의 경우,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아시안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교실개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 2009년도와 2016년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간의 차이를 배경요인에 따라 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전체 시민의식은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 하위요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전(2009년)에 비해 오늘날(2016년)의 한국 청소년들은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고, 권위에 덜 복종적이며,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낮으며, 아시아 지역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바람직한 시민 차원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도와 2016년도간에 존재하는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개인특성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밖/내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개인특성요인으로 성별과 기대학력 수준에서 성별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의 경우,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설정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은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상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써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실개방성 또한,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2009년과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를 통해 지난 수 년간 정부 체제의 변화 경험에 주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적 참여 의식이 훨씬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제도 변화, 학교 내 활동 설계, 실제 추진 가능한 교육 주체들 간의 역할 정립과 인프라 지원 등이 요구된다.
- 학교 내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교육적 노력 범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학습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내용 | 5 |
| 3. 연구방법 | 6 |
| II. 이론적 배경 | 13 |
| 1.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 15 |
| 2. 청소년 시민의식과 영향요인 | 16 |
| III. 한국 청소년 아시아 시민의식 측정 결과 | 19 |
|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 21 |
|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 28 |
|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 101 |
| IV. 결론 및 정책 제언 | 117 |
| 1. 결론 | 119 |
| 2. 정책 제언 | 122 |
| 참고문헌 | 125 |
| 부 록 | 131 |
| 부록 1. 측정 도구 | 133 |
| 부록 2. 문항별 응답 결과 | 160 |

표 목차

| | | |
|------------|--|----|
| 〈표 I-1〉 | ICCS 2009 ARM 개요 | 6 |
| 〈표 I-2〉 | ICCS 2016 ARM 개요 | 6 |
| 〈표 I-3〉 | ICCS 2016 ARM 측정 문항 | 7 |
| 〈표 I-4〉 | 학교밖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측정 문항 | 10 |
| 〈표 I-5〉 | 교실개방성 측정 문항 | 10 |
| 〈표 I-6〉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측정 문항 | 11 |
| 〈표 I-7〉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 11 |
| 〈표 II-1〉 | ICCS ARM 측정 틀 | 15 |
| 〈표 III-1〉 | ARM기술통계치 요약 | 21 |
| 〈표 III-2〉 | 요인 고유값 및 분산비율 | 23 |
| 〈표 III-3〉 | 요인계수 | 24 |
| 〈표 III-4〉 |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하위요인과 문항 | 26 |
| 〈표 III-5〉 | 관련 배경요인 | 28 |
| 〈표 III-6〉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 29 |
| 〈표 III-7〉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평균 차이 검증 | 29 |
| 〈표 III-8〉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30 |
| 〈표 III-9〉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30 |
| 〈표 III-10〉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31 |
| 〈표 III-11〉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31 |
| 〈표 III-12〉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32 |
| 〈표 III-13〉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32 |
| 〈표 III-14〉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33 |
| 〈표 III-15〉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33 |
| 〈표 III-16〉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34 |

| | | |
|------------|---|----|
| 〈표 III-17〉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34 |
| 〈표 III-18〉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35 |
| 〈표 III-19〉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35 |
| 〈표 III-20〉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36 |
| 〈표 III-21〉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36 |
| 〈표 III-22〉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37 |
| 〈표 III-23〉 |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37 |
| 〈표 III-24〉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38 |
| 〈표 III-25〉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38 |
| 〈표 III-26〉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39 |
| 〈표 III-27〉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39 |
| 〈표 III-28〉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권위주의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40 |
| 〈표 III-29〉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권위주의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40 |
| 〈표 III-30〉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41 |
| 〈표 III-31〉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41 |
| 〈표 III-32〉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42 |
| 〈표 III-33〉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42 |
| 〈표 III-34〉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43 |
| 〈표 III-35〉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43 |
| 〈표 III-36〉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44 |

| | | |
|------------|--|----|
| 〈표 III-37〉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44 |
| 〈표 III-38〉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45 |
| 〈표 III-39〉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45 |
| 〈표 III-40〉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46 |
| 〈표 III-41〉 |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46 |
| 〈표 III-42〉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47 |
| 〈표 III-43〉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47 |
| 〈표 III-44〉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48 |
| 〈표 III-45〉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48 |
| 〈표 III-46〉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49 |
| 〈표 III-47〉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49 |
| 〈표 III-48〉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50 |
| 〈표 III-49〉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50 |
| 〈표 III-50〉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51 |

| | | |
|------------|---|----|
| 〈표 III-51〉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51 |
| 〈표 III-52〉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52 |
| 〈표 III-53〉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52 |
| 〈표 III-54〉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53 |
| 〈표 III-55〉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53 |
| 〈표 III-56〉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54 |
| 〈표 III-57〉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54 |
| 〈표 III-58〉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55 |
| 〈표 III-59〉 |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55 |
| 〈표 III-60〉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56 |
| 〈표 III-61〉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56 |
| 〈표 III-62〉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57 |
| 〈표 III-63〉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57 |

| | | |
|------------|---|----|
| 〈표 III-64〉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58 |
| 〈표 III-65〉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58 |
| 〈표 III-66〉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59 |
| 〈표 III-67〉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59 |
| 〈표 III-68〉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법 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60 |
| 〈표 III-69〉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법 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60 |
| 〈표 III-70〉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61 |
| 〈표 III-71〉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61 |
| 〈표 III-72〉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62 |
| 〈표 III-73〉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62 |
| 〈표 III-74〉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63 |
| 〈표 III-75〉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63 |

| | | |
|------------|--|----|
| 〈표 III-76〉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64 |
| 〈표 III-77〉 |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64 |
| 〈표 III-78〉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 65 |
| 〈표 III-79〉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65 |
| 〈표 III-80〉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66 |
| 〈표 III-81〉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66 |
| 〈표 III-82〉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67 |
| 〈표 III-83〉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67 |
| 〈표 III-84〉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68 |
| 〈표 III-85〉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68 |
| 〈표 III-86〉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69 |
| 〈표 III-87〉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69 |
| 〈표 III-88〉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70 |

| | | |
|-------------|---|----|
| 〈표 III-89〉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70 |
| 〈표 III-90〉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71 |
| 〈표 III-91〉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71 |
| 〈표 III-92〉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72 |
| 〈표 III-93〉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72 |
| 〈표 III-94〉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73 |
| 〈표 III-95〉 |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73 |
| 〈표 III-96〉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74 |
| 〈표 III-97〉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74 |
| 〈표 III-98〉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75 |
| 〈표 III-99〉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75 |
| 〈표 III-100〉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76 |
| 〈표 III-101〉 |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76 |

| | |
|---|----|
| 〈표 III-10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77 |
| 〈표 III-10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77 |
| 〈표 III-104〉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78 |
| 〈표 III-105〉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78 |
| 〈표 III-106〉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79 |
| 〈표 III-107〉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79 |
| 〈표 III-108〉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80 |
| 〈표 III-109〉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80 |
| 〈표 III-110〉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 81 |
| 〈표 III-111〉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81 |
| 〈표 III-11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82 |
| 〈표 III-11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82 |
| 〈표 III-114〉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83 |

| | |
|---|----|
| 〈표 III-11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83 |
| 〈표 III-11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84 |
| 〈표 III-11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84 |
| 〈표 III-11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85 |
| 〈표 III-11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85 |
| 〈표 III-12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86 |
| 〈표 III-12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86 |
| 〈표 III-122〉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87 |
| 〈표 III-123〉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87 |
| 〈표 III-124〉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88 |
| 〈표 III-12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88 |
| 〈표 III-12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89 |

| | |
|--|----|
| 〈표 III-12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89 |
| 〈표 III-12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90 |
| 〈표 III-12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90 |
| 〈표 III-13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91 |
| 〈표 III-13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91 |
| 〈표 III-13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92 |
| 〈표 III-133〉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92 |
| 〈표 III-13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93 |
| 〈표 III-13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93 |
| 〈표 III-136〉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94 |
| 〈표 III-13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94 |
| 〈표 III-13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95 |

| | |
|---|-----|
| 〈표 III-13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95 |
| 〈표 III-140〉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96 |
| 〈표 III-141〉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96 |
| 〈표 III-14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97 |
| 〈표 III-143〉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97 |
| 〈표 III-14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98 |
| 〈표 III-14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98 |
| 〈표 III-146〉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99 |
| 〈표 III-14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99 |
| 〈표 III-14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100 |
| 〈표 III-14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100 |
| 〈표 III-150〉 집단별 기술통계치 요약 | 101 |
| 〈표 III-151〉 집단 간 전체 시민의식 평균차이 검증 | 102 |
| 〈표 III-152〉 집단 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103 |

| | |
|--|-----|
| 〈표 III-153〉 집단 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차이 검증 | 103 |
| 〈표 III-154〉 집단 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104 |
| 〈표 III-155〉 집단 간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차이 검증 | 104 |
| 〈표 III-156〉 집단 간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차이 검증 | 104 |
| 〈표 III-157〉 집단 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105 |
| 〈표 III-158〉 집단 간 아시안 정체성 평균차이 검증 | 105 |
| 〈표 III-159〉 집단 간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106 |
| 〈표 III-160〉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성별) | 106 |
| 〈표 III-161〉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응답자 기대학력) | 107 |
| 〈표 III-162〉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부모의 학력) | 108 |
| 〈표 III-163〉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 109 |
| 〈표 III-164〉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 109 |
| 〈표 III-165〉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110 |
| 〈표 III-166〉 측정년도와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111 |
| 〈표 III-167〉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교실개방성) | 111 |
| 〈표 III-168〉 측정년도와 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112 |

| | |
|--|-----|
| 〈표 Ⅲ-169〉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 113 |
| 〈표 Ⅲ-170〉 측정년도와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114 |
| 〈표 Ⅲ-171〉 측정년도와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114 |
| 〈표 Ⅲ-172〉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 | 115 |
| 〈표 Ⅲ-173〉 측정년도와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115 |
| 〈표 부록-1〉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160 |
| 〈표 부록-2〉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60 |
| 〈표 부록-3〉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60 |
| 〈표 부록-4〉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60 |
| 〈표 부록-5〉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161 |
| 〈표 부록-6〉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61 |
| 〈표 부록-7〉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61 |
| 〈표 부록-8〉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61 |
| 〈표 부록-9〉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62 |
| 〈표 부록-10〉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162 |

| | |
|--|-----|
| 〈표 부록-11〉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62 |
| 〈표 부록-12〉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62 |
| 〈표 부록-13〉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63 |
| 〈표 부록-14〉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 163 |
| 〈표 부록-15〉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63 |
| 〈표 부록-16〉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63 |
| 〈표 부록-17〉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64 |
| 〈표 부록-18〉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64 |
| 〈표 부록-19〉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164 |
| 〈표 부록-20〉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64 |
| 〈표 부록-21〉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65 |
| 〈표 부록-22〉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65 |
| 〈표 부록-23〉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 165 |

| | |
|--|-----|
| 〈표 부록-24〉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65 |
| 〈표 부록-25〉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66 |
| 〈표 부록-26〉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66 |
| 〈표 부록-27〉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66 |
| 〈표 부록-28〉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체 시민 의식) | 166 |
| 〈표 부록-29〉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67 |
| 〈표 부록-30〉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67 |
| 〈표 부록-31〉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67 |
| 〈표 부록-32〉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 167 |
| 〈표 부록-33〉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68 |
| 〈표 부록-34〉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68 |
| 〈표 부록-35〉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아시안 정체성) | 168 |
| 〈표 부록-36〉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68 |

| | |
|---|-----|
| 〈표 부록-37〉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169 |
| 〈표 부록-38〉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69 |
| 〈표 부록-39〉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69 |
| 〈표 부록-40〉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69 |
| 〈표 부록-41〉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170 |
| 〈표 부록-42〉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70 |
| 〈표 부록-43〉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70 |
| 〈표 부록-44〉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70 |
| 〈표 부록-45〉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71 |
| 〈표 부록-46〉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체 시민 인식) | 171 |
| 〈표 부록-47〉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71 |
| 〈표 부록-48〉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71 |

| | |
|--|-----|
| 〈표 부록-49〉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72 |
| 〈표 부록-50〉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172 |
| 〈표 부록-51〉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72 |
| 〈표 부록-52〉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72 |
| 〈표 부록-53〉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73 |
| 〈표 부록-54〉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73 |
| 〈표 부록-55〉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체 시민 의식) | 173 |
| 〈표 부록-56〉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73 |
| 〈표 부록-57〉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74 |
| 〈표 부록-58〉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74 |
| 〈표 부록-59〉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 174 |
| 〈표 부록-60〉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74 |

| | |
|--|-----|
| 〈표 부록-61〉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75 |
| 〈표 부록-62〉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아시안 정체성) | 175 |
| 〈표 부록-63〉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75 |
| 〈표 부록-64〉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175 |
| 〈표 부록-65〉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76 |
| 〈표 부록-66〉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주의 복종적 태도) | 176 |
| 〈표 부록-67〉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76 |
| 〈표 부록-68〉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176 |
| 〈표 부록-69〉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77 |
| 〈표 부록-70〉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77 |
| 〈표 부록-71〉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77 |
| 〈표 부록-72〉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77 |

| | |
|--|-----|
| 〈표 부록-73〉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178 |
| 〈표 부록-74〉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178 |
| 〈표 부록-75〉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78 |
| 〈표 부록-76〉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78 |
| 〈표 부록-77〉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179 |
| 〈표 부록-78〉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179 |
| 〈표 부록-79〉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79 |
| 〈표 부록-80〉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179 |
| 〈표 부록-81〉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80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III-1】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의식 | 29 |
| 【그림 III-2】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30 |
| 【그림 III-3】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31 |
| 【그림 III-4】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2 |
| 【그림 III-5】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 33 |
| 【그림 III-6】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4 |
| 【그림 III-7】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5 |
| 【그림 III-8】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 36 |
| 【그림 III-9】 |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7 |
| 【그림 III-10】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 38 |
| 【그림 III-11】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39 |
| 【그림 III-12】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40 |
| 【그림 III-13】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41 |
| 【그림 III-14】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 42 |
| 【그림 III-15】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43 |
| 【그림 III-16】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44 |
| 【그림 III-17】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 45 |
| 【그림 III-18】 |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46 |
| 【그림 III-19】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 47 |
| 【그림 III-20】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48 |
| 【그림 III-21】 |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49 |

| | |
|--|----|
| 【그림 Ⅲ-22】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0 |
| 【그림 Ⅲ-23】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51 |
| 【그림 Ⅲ-24】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52 |
| 【그림 Ⅲ-25】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53 |
| 【그림 Ⅲ-26】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아시안 정체성 | 54 |
| 【그림 Ⅲ-27】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55 |
| 【그림 Ⅲ-28】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체 시민 의식 | 56 |
| 【그림 Ⅲ-29】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57 |
| 【그림 Ⅲ-30】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58 |
| 【그림 Ⅲ-31】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9 |
| 【그림 Ⅲ-32】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법 체계에 대한 신뢰 | 60 |
| 【그림 Ⅲ-33】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61 |

| | |
|---|----|
| 【그림 Ⅲ-34】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62 |
| 【그림 Ⅲ-35】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 63 |
| 【그림 Ⅲ-36】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64 |
| 【그림 Ⅲ-37】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 65 |
| 【그림 Ⅲ-38】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66 |
| 【그림 Ⅲ-39】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67 |
| 【그림 Ⅲ-40】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68 |
| 【그림 Ⅲ-41】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 69 |
| 【그림 Ⅲ-42】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70 |
| 【그림 Ⅲ-43】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71 |
| 【그림 Ⅲ-44】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 72 |
| 【그림 Ⅲ-45】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73 |

| | |
|--|----|
| 【그림 III-46】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전체 시민 인식 | 74 |
| 【그림 III-47】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75 |
| 【그림 III-48】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76 |
| 【그림 III-49】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77 |
| 【그림 III-50】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78 |
| 【그림 III-51】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79 |
| 【그림 III-5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80 |
| 【그림 III-5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아시안 정체성 | 81 |
| 【그림 III-54】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82 |
| 【그림 III-5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체 시민 인식 | 83 |
| 【그림 III-5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84 |
| 【그림 III-5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85 |

| | |
|---|----|
| 【그림 III-5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86 |
| 【그림 III-5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87 |
| 【그림 III-6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88 |
| 【그림 III-6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89 |
| 【그림 III-62】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아시안 정체성 | 90 |
| 【그림 III-63】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91 |
| 【그림 III-6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체 시민 의식 | 92 |
| 【그림 III-6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93 |
| 【그림 III-66】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94 |
| 【그림 III-6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95 |
| 【그림 III-6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96 |
| 【그림 III-6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97 |

| | |
|--|-----|
| 【그림 Ⅲ-70】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98 |
| 【그림 Ⅲ-71】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 99 |
| 【그림 Ⅲ-7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00 |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에 중요성 인식과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들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정치, 사회적 사안에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지적 영역에 집중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적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청소년의 참여적 시민의식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elve & Bynner, 2008). 우리나라도 사회적 자본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시민의식 강화 등과 같은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제시되었다(조영하, 김태준, 2010). 그러나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사회적, 교육적 노력을 계획하기에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8)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김태준 외, 2016).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을 크게 5개 영역으로 보고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

량 및 사회참여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장근영 외, 2016).

앞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과 분석은 그동안 IEA(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청소년 시민의식 국제 비교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의 한국 참여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사회참여역량 영역의 과제로서 김태준 외(2014, 2015, 2016)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ICCS의 맥락에서 사회참여역량을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및 세계 시민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한국의 ICCS 조사 참여는 2009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38개국, 2016년에는 24개국이 참여하였다. ICCS의 참여는 전 세계 3개 지역(유럽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시아지역)의 국가들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ICCS 2016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해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동안 ICCS 참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ICCS 결과 중에서 한국의 아시아 지역 모듈(Asian Regional Module: 이하 ARM)의 결과를 보고 및 분석하는 것으로 분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역량에 관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4차 년도 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중 사회참여 역량 측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측정치들은 국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측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참여 역량에 대한 대부분의 문항들이 피조사자들의 주관적인 태도나 행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측정 결과가 반대로 나온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좀 더 객관적인 비교 준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올해 ICCS 2016의 공개 및 보고의 맥락에서 한국의 ARM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전에 측정되었던 ICCS ARM 2009자료를 2016자료와 시계열 비교를 진행하므로써 보다 더 다각적으로 사회적 참여역량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위상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에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ICCS 2016 ARM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ICCS 2016의 전체 국가 조사 자료는 IEA 본부에서 수합하였지만, 본 조사 항목과는 별도로 아시아 지역 모듈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이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홍콩)의 완전한 자료 통합이 2017년 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2. 연구내용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및 ICCS 2016 ARM 분석

ICCS에 포함된 ARM을 적용하여 수집한 2009년도와 2016년도 통합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민의식 하위요인의 구성모형을 탐색하였으며, 이 모형에 따라 ICCS 2016 한국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이 관련 영향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관련 영향요인으로 크게 개인요인(2개), 가정환경요인(2개), 학교밖/내 요인(5개)으로 구분하여 총 9개 요인을 설정, 분석에 적용하였다.

2) 2009년-2016년 ICCS ARM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앞서 기술한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상의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에 관련 배경요인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청소년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배경요인 수준에 따른 청소년 시민의식의 차이분석 결과, 시민의식의 종단적 차이분석 및 배경요인과의 관계성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인 수준, 가정 수준,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의 시민교육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조사방법과 절차

(1) 2009년 ARM

2009년 ICCS ARM 조사가 수행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1> ICCS 2009 ARM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참여국가 |
|-------|--|-------------------------------|
| 모집단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
| 표집틀 |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 |
| 표본수 | 국가별 3000명~5000명 사례 | |
| 표집방법 |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IEA DPC에서 담당) | |
| 조사시기 | 2009년 11월 완료 | |
| 조사내용 |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 태도 | |

(2) 2016년 ARM

2016년 ICCS ARM 조사가 수행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2 ICCS 2016 ARM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참여국가 |
|-------|--|----------------|
| 모집단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 한국 대만 홍콩 |
| 표집틀 |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 |
| 표본수 | 국가별 3000명~5000명 사례 | |
| 표집방법 |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IEA DPC에서 담당) | |
| 조사시기 | 2016년 10월 완료 | |
| 조사내용 |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 태도 | |

2) 조사도구

(1) ARM

ICCS 2016 ARM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 ICCS 국제연구조정관회의에서 확정된 ARM을 반복 활용하였다. ARM은 4점 척도를 적용한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문항은 <표 I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3 ICCS 2016 ARM 측정 문항

| 번호 | 문항 |
|----|---|
| 1 |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시민을 돌봐야 한다. |
| 2 |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 3 | 시민의 종교심 또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
| 4 |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 5 |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6 | 정부가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
| 7 |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8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
| 9 |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도 참아야 한다. |
| 10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
| 11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
| 12 |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동급생이나 직장동료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
| 13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
| 14 |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다. |
| 15 |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
| 16 |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 17 |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 18 |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
| 19 |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
| 20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21 | 정치인과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

| 번호 | 문항 |
|----|--|
| 22 |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23 |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
| 24 |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25 |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
| 26 |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
| 27 |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
| 28 |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 29 |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30 |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31 |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 32 |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 33 |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 34 | 아시아 국가들은 EU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시켜야 한다. |
| 35 |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
| 36 |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 37 |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
| 38 |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
| 39 |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
| 40 |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자랑스러워 할 것이 더 많다. |
| 41 | 아시아의 몇몇 국가가 전체 아시아 사회의 발달을 결정 지을 것이다. |
| 42 |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
| 43 |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
| 44 |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
| 45 |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
| 46 |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
| 47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48 |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 49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
| 50 |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 51 |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
| 52 |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

| 번호 | 문항 |
|----|--|
| 53 |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
| 54 |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55 |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2) 배경요인

청소년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각 요인별 측정 문항들은 ICCS ARM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 설문 가운데 잠재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가) 개인수준 요인

우선, 개인수준에서 영향요인은 ‘성별’과 ‘본인의 기대학력 수준’이다. 성별의 하위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본인의 기대학력은 응답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응답선택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로 되어 있다.

나) 가정환경 요인

가정환경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은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이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의 응답선택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중학교 졸업’,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는 부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다) 학교밖/내 사회적 요인

우선, 학교밖 사회적 요인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과 ‘사회적 집단활동’이다.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은 학교밖에서 국제/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 등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를 적용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문항은 <표 I-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4 학교밖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측정 문항

| 번호 | 문항 |
|----|---|
| 1 |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 2 |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
| 3 |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
| 4 |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 5 |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 6 |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
| 7 |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
| 8 |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 그림)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학교밖 사회적 집단활동은 해당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선택은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1년 이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한 적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정당 단체’, ‘환경운동 단체나 조직’, ‘인권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기부단체’, ‘청소년 캠페인 활동’, ‘종교단체’,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 스카우트, YMCA)’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내 사회적 요인은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실개방성은 교실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개방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가 적용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문항은 <표 I-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5 교실개방성 측정 문항

| 번호 | 문항 |
|----|--|
| 1 |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
| 2 |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 3 |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
| 4 |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 5 |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
| 6 |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공정성 및 지원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가 적용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문항은 <표 I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6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측정 문항

| 번호 | 문항 |
|----|-----------------------------------|
| 1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
| 2 |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 3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 4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준다. |
| 5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
| 6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은 학교내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므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인식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를 적용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문항은 <표 I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7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 번호 | 문항 |
|----|--|
| 1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
| 2 |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
| 3 |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4 |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5 | 학생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2. 청소년 시민의식과 영향요인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본 연구는 IEA가 주관한 2009년도와 2016년도 ICCS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9년도 ICCS 본 조사에서는 지역 간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크게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본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ARM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아시아 참여국의 대표 연구진들이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후 ARM은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ICCS 2009 국가연구정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조영하, 김태준, 2010).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RM은 측정문항을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념적 범주는 시민사회와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 시민원리(Civic Principles),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시민정체성(Civic Ident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적 준거는 가치신념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Fraillon, Schulz, & Ainley, 2012).

표 II-1 ICCS ARM 측정 틀¹⁾

| | 시민사회와 체계 | 시민원리 | 시민참여 | 시민정체성 |
|---------------|--|---|--|--|
| 가치 · 신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인식 • 권위에 대한 복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과 공공행정 •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 타인 배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정체성 • 바람직한 시민상 • 사회화합 대 체면 |
|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 공경 • 빈부의 차 •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 • 정치인의 필요 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들간 관계 • 자국의 전통문화 |

1) 2009, 2016년도 모두 동일한 측정 틀을 활용함

2. 청소년 시민의식과 영향요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적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사회를 지지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매우 중요하다. 바꿔 말해,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과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치제도적 환경 등 수많은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밖/내 사회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1) 개인수준의 영향요인

청소년의 사회참여적 시민의식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학생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른 사회정치적 참여 인식상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1; 구정화, 2010; 김태준 외, 2015;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구정화(2010)는 초등학교생들의 사회적 이슈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과 사회적 참여역량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적 절차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정치사회적 관심도는 학교급 수준에 따라 남녀간의 차이가 달라졌다. 초등학교과 대학교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투표참여 의지에 있어서는 중등학교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모경환 외(2010)은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원)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시민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성별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시민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가정환경 수준의 영향요인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에 가정환경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 차이 연구에서 모경환 외(2010)는 가정환경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하위요인 중 참여의식, 내적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박윤경, 이승연(2015) 또한, 학생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가정환경적 특성 차이가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의 차이로 전이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관련 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손경애, 이혁규, 옥일남, 박윤경(2010)는 전국 5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조사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식,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민주주의 참여 및 실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에서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민주시민의 권리 및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투표 참여의지, 시민활동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밖/내 사회적 영향요인

임정재, 강정한, 김상돈(2011)은 학교밖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자본의 여러 차원 중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참여활동은 신뢰와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단적 온라인 토론과 학교밖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므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박윤경, 이승연(2015)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실내 토론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토론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교실내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학교내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준, 장근영(2010)은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사회적 자본 조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시민성 조사결과를 재분석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참여의식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이와 관련한 교육의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참여적 시민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내용과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 III 장

한국 청소년 아시아 시민의식 측정 결과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
모형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제 III 장 한국 청소년 아시아 시민의식 측정 결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2개 하위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연구는 2016년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측정모형을 탐색하고, 관련배경요인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위연구는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을 2009년도 측정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은 ICCS조사에 포함된 ARM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ARM은 4개의 시민적 개념범주(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 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묻는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점 Likert 척도가 적용되었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기술적 통계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 Bootstrap을 통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표준오차, 그리고 자료분포의 정규성을 분석하였고, 전체 표본집단의 기술통계치는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ARM기술통계치 요약

|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외도 | 첨도 |
|---------|-------|------|-------|-------|-------|-------|
| ARM_36A | 8,228 | 1.76 | 0.723 | 0.008 | 0.72 | 0.30 |
| ARM_36B | 8,227 | 3.04 | 0.810 | 0.009 | -0.67 | 0.13 |
| ARM_36C | 8,218 | 2.86 | 0.779 | 0.009 | -0.38 | -0.14 |
| ARM_36D | 8,218 | 3.08 | 0.782 | 0.009 | -0.66 | 0.17 |
| ARM_36E | 8,212 | 3.18 | 0.815 | 0.009 | -0.80 | 0.11 |
| ARM_36F | 8,218 | 2.98 | 0.839 | 0.009 | -0.45 | -0.46 |
| ARM_36G | 8,216 | 3.15 | 0.855 | 0.009 | -0.70 | -0.34 |
| ARM_37A | 8,223 | 2.74 | 0.765 | 0.008 | -0.21 | -0.29 |
| ARM_37B | 8,218 | 2.83 | 0.774 | 0.009 | -0.25 | -0.33 |
| ARM_37C | 8,216 | 3.03 | 0.762 | 0.008 | -0.51 | 0.00 |

|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외도 | 첨도 |
|---------|-------|------|-------|-------|-------|-------|
| ARM_37D | 8,216 | 2.97 | 0.780 | 0.009 | -0.41 | -0.24 |
| ARM_37E | 8,207 | 2.16 | 0.756 | 0.008 | 0.52 | 0.21 |
| ARM_37F | 8,213 | 2.77 | 0.814 | 0.009 | -0.32 | -0.35 |
| ARM_37G | 8,217 | 2.30 | 0.833 | 0.009 | 0.30 | -0.42 |
| ARM_38A | 8,211 | 3.05 | 0.697 | 0.008 | -0.57 | 0.65 |
| ARM_38B | 8,203 | 2.92 | 0.748 | 0.008 | -0.33 | -0.17 |
| ARM_38C | 8,207 | 3.26 | 0.670 | 0.007 | -0.63 | 0.47 |
| ARM_38D | 8,203 | 3.02 | 0.731 | 0.008 | -0.43 | 0.01 |
| ARM_39A | 8,217 | 2.45 | 1.013 | 0.011 | 0.04 | -1.10 |
| ARM_39B | 8,211 | 2.82 | 0.910 | 0.010 | -0.20 | -0.90 |
| ARM_39C | 8,203 | 2.54 | 0.802 | 0.009 | -0.11 | -0.46 |
| ARM_39D | 8,212 | 2.99 | 0.784 | 0.009 | -0.55 | 0.04 |
| ARM_39E | 8,212 | 2.30 | 0.945 | 0.010 | 0.20 | -0.88 |
| ARM_40A | 8,203 | 3.45 | 0.749 | 0.008 | -1.34 | 1.43 |
| ARM_40B | 8,208 | 2.97 | 0.819 | 0.009 | -0.58 | -0.04 |
| ARM_40C | 8,205 | 3.16 | 0.712 | 0.008 | -0.61 | 0.37 |
| ARM_40D | 8,200 | 3.13 | 0.773 | 0.009 | -0.76 | 0.43 |
| ARM_40E | 8,197 | 3.23 | 0.728 | 0.008 | -0.76 | 0.46 |
| ARM_40F | 8,197 | 3.15 | 0.724 | 0.008 | -0.70 | 0.60 |
| ARM_40G | 8,202 | 3.21 | 0.724 | 0.008 | -0.75 | 0.53 |
| ARM_40H | 8,205 | 3.33 | 0.709 | 0.008 | -0.94 | 0.85 |
| ARM_41A | 8,211 | 3.37 | 0.622 | 0.007 | -0.78 | 1.11 |
| ARM_41B | 8,208 | 3.36 | 0.632 | 0.007 | -0.71 | 0.67 |
| ARM_41C | 8,207 | 3.26 | 0.651 | 0.007 | -0.61 | 0.65 |
| ARM_41D | 8,204 | 3.15 | 0.697 | 0.008 | -0.54 | 0.29 |
| ARM_41E | 8,205 | 3.13 | 0.728 | 0.008 | -0.59 | 0.21 |
| ARM_41F | 8,199 | 3.19 | 0.688 | 0.008 | -0.63 | 0.57 |
| ARM_41G | 8,206 | 3.19 | 0.692 | 0.008 | -0.61 | 0.46 |
| ARM_41H | 8,208 | 3.23 | 0.640 | 0.007 | -0.50 | 1.07 |
| ARM_41I | 8,208 | 2.63 | 0.811 | 0.009 | 0.07 | -0.60 |
| ARM_41J | 8,195 | 2.92 | 0.739 | 0.008 | -0.34 | -0.10 |
| ARM_41K | 8,201 | 2.94 | 0.699 | 0.008 | -0.35 | 0.14 |
| ARM_41L | 8,208 | 2.80 | 0.758 | 0.008 | -0.18 | -0.35 |
| ARM_42A | 8,212 | 3.24 | 0.614 | 0.007 | -0.42 | 0.51 |
| ARM_42B | 8,207 | 3.13 | 0.674 | 0.007 | -0.51 | 0.48 |
| ARM_42C | 8,200 | 2.76 | 0.773 | 0.009 | -0.02 | -0.59 |

|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외도 | 첨도 |
|---------|-------|------|-------|-------|-------|-------|
| ARM_42D | 8,203 | 3.12 | 0.651 | 0.007 | -0.39 | 0.36 |
| ARM_42E | 8,195 | 3.13 | 0.588 | 0.006 | -0.35 | 1.11 |
| ARM_42F | 8,207 | 3.21 | 0.595 | 0.007 | -0.36 | 0.77 |
| ARM_42G | 8,203 | 2.90 | 0.746 | 0.008 | -0.27 | -0.26 |
| ARM_43A | 8,212 | 3.32 | 0.747 | 0.008 | -0.99 | 0.78 |
| ARM_43B | 8,210 | 2.92 | 0.855 | 0.009 | -0.38 | -0.56 |
| ARM_43C | 8,209 | 3.19 | 0.786 | 0.009 | -0.79 | 0.27 |
| ARM_43D | 8,207 | 3.15 | 0.830 | 0.009 | -0.69 | -0.21 |
| ARM_43E | 8,211 | 3.25 | 0.794 | 0.009 | -0.89 | 0.31 |

<표 III-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Bootstrap 기법을 통해 무선추출된 1,000개의 표본집단들간의 평균 편차(표준오차)는 미미하였으며, 문항별 응답치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통계치는 2와 -2범위 안에 있어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분포의 정규성 검증과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계수를 활용한 문항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3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도구의 전체 신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요인분석은 요인 고유값(eigen value)을 1로 지정하고 요인을 탐색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요인 고유값 1 이상을 나타낸 1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요인적재값이 .4미만인 문항과 2개 이상의 요인에서 높은 요인적재값을 보인 10개 문항을 제거한 후, 총 44개 문항으로 대상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의 결과로 총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III-2 요인 고유값 및 분산비율

| 요인 | 고유값 | 분산비율 (%) | 누적분산비율 (%) |
|----|-------|----------|------------|
| 1 | 7.967 | 18.107 | 18.107 |
| 2 | 6.369 | 14.476 | 32.583 |
| 3 | 2.350 | 5.340 | 37.923 |
| 4 | 1.775 | 4.033 | 41.956 |
| 5 | 1.717 | 3.901 | 45.857 |
| 6 | 1.595 | 3.625 | 49.483 |
| 7 | 1.473 | 3.347 | 52.830 |
| 8 | 1.405 | 3.193 | 56.023 |

<표 III-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고유값 1이상인 8개 요인은 총 분산의 약 63%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요인에 걸친 각 문항의 요인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 요인계수

| 문항 | 요인계수 | | | | | | |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요인7 | 요인8 |
| ARM_36B | .717 | | | | | | | |
| ARM_36D | .765 | | | | | | | |
| ARM_36E | .760 | | | | | | | |
| ARM_36F | .627 | | | | | | | |
| ARM_36G | .680 | | | | | | | |
| ARM_37A | | .761 | | | | | | |
| ARM_37C | | .716 | | | | | | |
| ARM_37D | | .801 | | | | | | |
| ARM_37F | | .777 | | | | | | |
| ARM_38A | | | .697 | | | | | |
| ARM_38B | | | .688 | | | | | |
| ARM_38C | | | .711 | | | | | |
| ARM_38D | | | .685 | | | | | |
| ARM_39A | | | | .745 | | | | |
| ARM_39B | | | | .586 | | | | |
| ARM_39D | | | | .627 | | | | |
| ARM_39E | | | | .532 | | | | |
| ARM_40A | | | | | .462 | | | |
| ARM_40B | | | | | | .496 | | |
| ARM_40C | | | | | .469 | | | |

| 문항 | 요인계수 | | | | | | |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요인7 | 요인8 |
| ARM_40D | | | | | | .609 | | |
| ARM_40E | | | | | .436 | | | |
| ARM_40F | | | | | | .799 | | |
| ARM_40G | | | | | | .815 | | |
| ARM_40H | | | | | | .734 | | |
| ARM_41A | | | | | | | .726 | |
| ARM_41B | | | | | | | .688 | |
| ARM_41C | | | | | | | .573 | |
| ARM_41D | | | | | | | .773 | |
| ARM_41E | | | | | | | .882 | |
| ARM_41F | | | | | | | .806 | |
| ARM_41G | | | | | | | .804 | |
| ARM_41H | | | | | | | .754 | |
| ARM_42B | | | | | | | | .590 |
| ARM_42C | | | | | | | | .670 |
| ARM_42D | | | | | | | | .647 |
| ARM_42E | | | | | | | | .663 |
| ARM_42F | | | | | | | | .681 |
| ARM_42G | | | | | | | | .663 |
| ARM_43A | | | | | .733 | | | |
| ARM_43B | | | | | .684 | | | |
| ARM_43C | | | | | .770 | | | |
| ARM_43D | | | | | .774 | | | |
| ARM_43E | | | | | .790 | | | |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8개 요인은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명명하였다.

표 III-4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하위요인과 문항

| 요인 | 변수명 | 문항 | | |
|----|-----------------|---------|-----|---|
| 1 |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ARM_36B | 1-1 |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 | | ARM_36D | 1-2 |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 없다. |
| | | ARM_36E | 1-3 |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 | ARM_36F | 1-4 | 정부가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
| | | ARM_36G | 1-5 |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2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ARM_37A | 2-1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
| | | ARM_37C | 2-2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
| | | ARM_37D | 2-3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
| | | ARM_37F | 2-4 |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
| 3 | 전통 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ARM_38A | 3-1 |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
| | | ARM_38B | 3-2 |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 | | ARM_38C | 3-3 |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 | | ARM_38D | 3-4 |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
| 4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ARM_39A | 4-1 |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
| | | ARM_39B | 4-2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 | ARM_39D | 4-3 |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 | ARM_39E | 4-4 |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

| 요인 | 변수명 | 문항 |
|----|---------------------------------------|--|
| 5 | 공공 관련 부정 행위 에 대한 태도 | ARM_40A 5-1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 | ARM_40C 5-2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
| | | ARM_40E 5-3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 | | ARM_43A 5-4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난. |
| | | ARM_43B 5-5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
| | | ARM_43C 5-6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
| | | ARM_43D 5-7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 | ARM_43E 5-8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 6 | 정치 인의 도덕 성에 대한 인식 | ARM_40B 6-1 정치인들의 정치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
| | | ARM_40D 6-2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
| | | ARM_40F 6-3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 | ARM_40G 6-4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 | ARM_40H 6-5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 7 | 아시 안 정체 성 | ARM_41A 7-1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 | | ARM_41B 7-2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 | | ARM_41C 7-3 아시아 국가들은 더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시켜야 한다. |
| | | ARM_41D 7-4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
| | | ARM_41E 7-5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 | | ARM_41F 7-6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
| | | ARM_41G 7-7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
| | | ARM_41H 7-8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
| 8 | 바람 직한 시민 상에 대한 인식 | ARM_42B 8-1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
| | | ARM_42C 8-2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
| | | ARM_42D 8-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ARM_42E 8-4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 | | ARM_42F 8-5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
| | | ARM_42G 8-6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각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비민주적 역할수행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용인 수준을 의미한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는 의사결정상황에서 본인의 판단보다 부모, 선생님 등과 같은 권위자의 판단을 따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은 자국의 전통문화 정체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사법체계의 공명정대함에 대한 신뢰 수준을 의미한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는 공무원 관련 뇌물수수, 공적자원의 사취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태도와 연줄(personal connections)에 기반한 부적절한 공공관련 행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도덕성의 중요성과 그들 가족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을 의미한다. ‘아시아 정체성’은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앞서 제시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에 기초하여 관련 배경요인의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배경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표 III-5 참조>. 한편, 성별과 학교 밖 활동 변인 2개, 학교 내 활동 변인 3개에 대해서는 참여 인식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식 수준을 3분위수 tertile values)로 나눠 1분위와 3분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택, 집단 변수로 설정했다.

표 III-5 관련 배경요인

| 분류 | 변인 | 설명 |
|-----------|----------------------|---|
| 개인 변인 | (1)성별 | 여학생과 남학생 |
| | (2)기대학력 | 응답자 본인이 기대하는 최종학력 수준 |
| 가정배경 변인 | (3)부모의 최종학력 | 부모가 마친 최종학력 수준(*부,모의 학력수준 통합) |
| | (4)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 국제/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통합) |
| 학교밖 활동변인 | (5)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 관련 이슈들을 학교밖에서 부모,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습득,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
| | (6)집단활동 참여 | 학교밖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나 활동에의 참여 |
| 학교내 활동 변인 | (7)교실개방성 | 교실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교류활동의 수준 |
| | (8)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정성, 지원적 자세 등 |
| | (9)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 학생들의 학교내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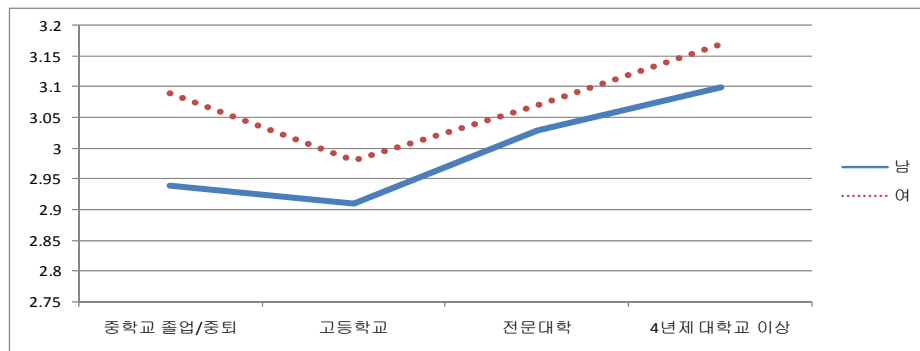
1) 성별과 기대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6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시민의식(전체) | 2.94 (0.33) | 2.91 (0.30) | 3.03 (0.31) | 3.10 (0.29) | 3.09 (0.40) | 2.98 (0.27) | 3.07 (0.31) | 3.17 (0.29)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38.754$, $p=.000$)과 성별($F=5.520$, $p=.019$)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451$, $p=.7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의식

표 III-7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확률 |
|-----------|---------|------|-------|-----------|------|
| 예상교육수준 | 10.987 | 3 | 3.662 | 38.754*** | .000 |
| 성별 | .522 | 1 | .522 | 5.520* | .019 |
| 예상교육수준*성별 | .128 | 3 | .043 | .451 | .717 |
| 오차 | 266.676 | 2822 | .09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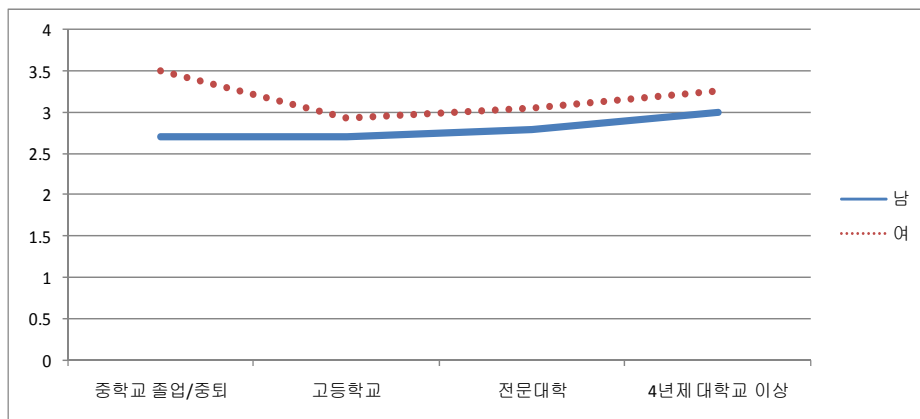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8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2.71 (0.86) | 2.71 (0.79) | 2.80 (0.76) | 2.99 (0.77) | 3.51 (0.61) | 2.93 (0.68) | 3.06 (0.68) | 3.26 (0.63)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22.951$, $p=.000$)과 성별($F=22.839$,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088$, $p=.3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9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확률 |
|-----------|----------|------|--------|-----------|------|
| 예상교육수준 | 34.935 | 3 | 11.645 | 22.991*** | .000 |
| 성별 | 11.588 | 1 | 11.568 | 22.839*** | .000 |
| 예상교육수준*성별 | 1.654 | 3 | .551 | 1.088 | .353 |
| 오차 | 1478.983 | 2920 | .50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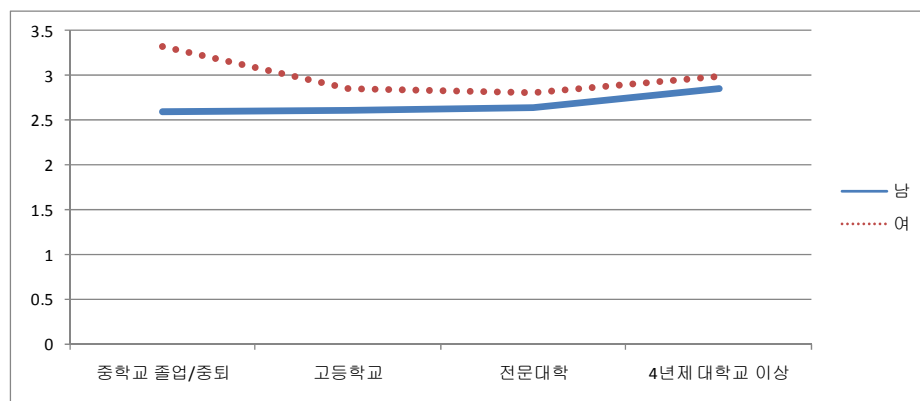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10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59 (0.89) | 2.60 (0.78) | 2.64 (0.79) | 2.85 (0.74) | 3.32 (0.70) | 2.84 (0.66) | 2.80 (0.70) | 2.99 (0.62)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14.644$, $p=.000$)과 성별($F=15.748$,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728$, $p=.15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11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지승화 | 자유도 | 평균지승화 | F | 유의확률 |
|-----------|----------|------|-------|-----------|------|
| 예상교육수준 | 21.660 | 3 | 7.220 | 14.644*** | .000 |
| 성별 | 7.764 | 1 | 7.764 | 15.748*** | .000 |
| 예상교육수준*성별 | 2.555 | 3 | .852 | 1.728 | .159 |
| 오차 | 1441.133 | 2923 | .49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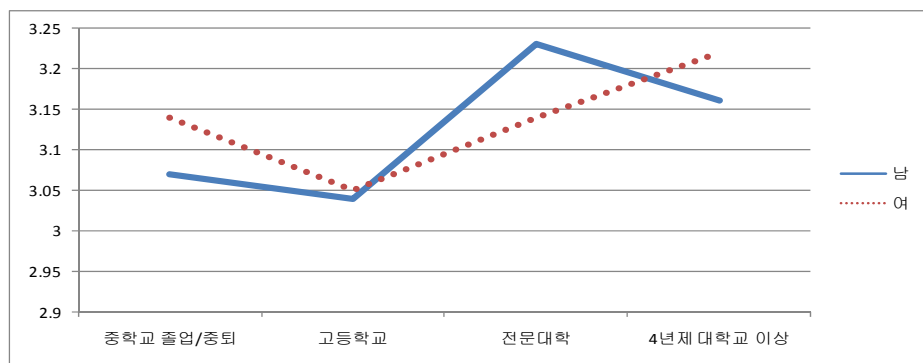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2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07 (0.60) | 3.04 (0.60) | 3.23 (0.55) | 3.16 (0.58) | 3.14 (1.04) | 3.05 (0.61) | 3.14 (0.52) | 3.22 (0.50)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6.31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040$, $p=.841$)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483$, $p=.059$)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4】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3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확률 |
|-----------|---------|------|-------|---------|------|
| 예상교육수준 | 5.719 | 3 | 1.906 | 6.310** | .000 |
| 성별 | .012 | 1 | .012 | .040 | .841 |
| 예상교육수준*성별 | 2.250 | 3 | .750 | 2.483 | .059 |
| 오차 | 881.025 | 2916 | .30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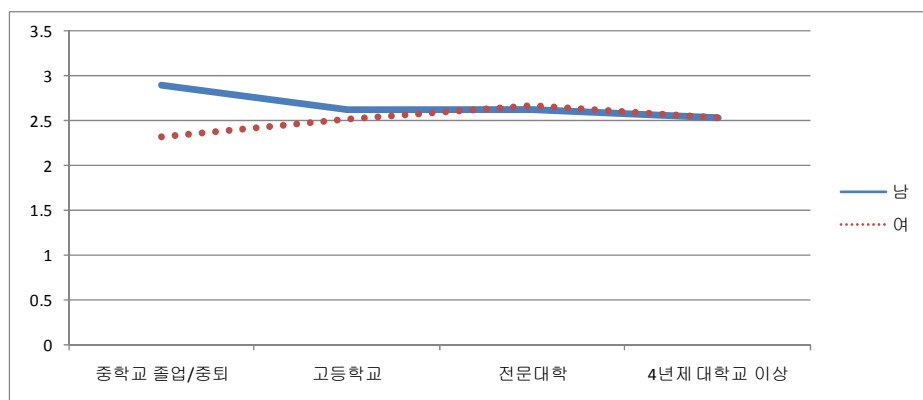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4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90 (0.66) | 2.62 (0.66) | 2.62 (0.69) | 2.53 (0.75) | 2.32 (0.90) | 2.52 (0.58) | 2.67 (0.62) | 2.54 (0.65)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3.353$, $p=.000$)과 성별($F=3.948$, $p=.047$)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001$, $p=.11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5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확률 |
|-----------|----------|------|-------|--------|------|
| 예상교육수준 | 4.751 | 3 | 1.584 | 3.353* | .000 |
| 성별 | 1.864 | 1 | 1.864 | 3.948* | .047 |
| 예상교육수준*성별 | 2.835 | 3 | .945 | 2.001 | .112 |
| 오차 | 1378.976 | 2920 | .47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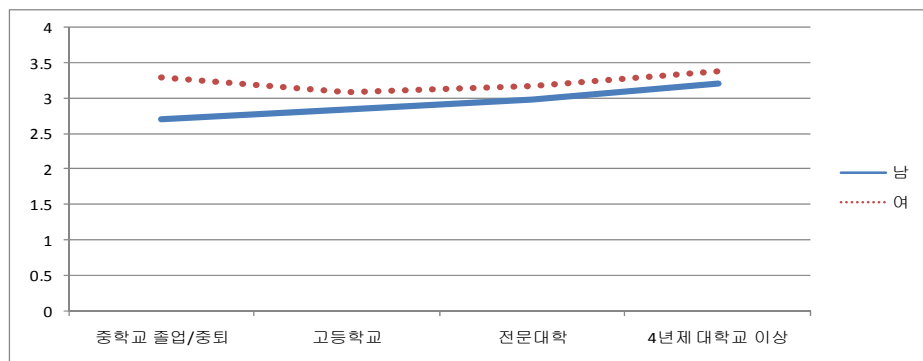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6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2.70 (0.73) | 2.84 (0.72) | 2.98 (0.69) | 3.21 (0.66) | 3.29 (0.73) | 3.09 (0.56) | 3.18 (0.58) | 3.38 (0.52)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36.101$, $p=.000$)과 성별($F=17.913$,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246$, $p=.29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7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예상교육수준 | 40.715 | 3 | 13.572 | 36.101*** | .000 |
| 성별 | 6.734 | 1 | 6.734 | 17.913*** | .000 |
| 예상교육수준*성별 | 1.405 | 3 | .468 | 1.246 | .291 |
| 오차 | 1089.838 | 2899 | .37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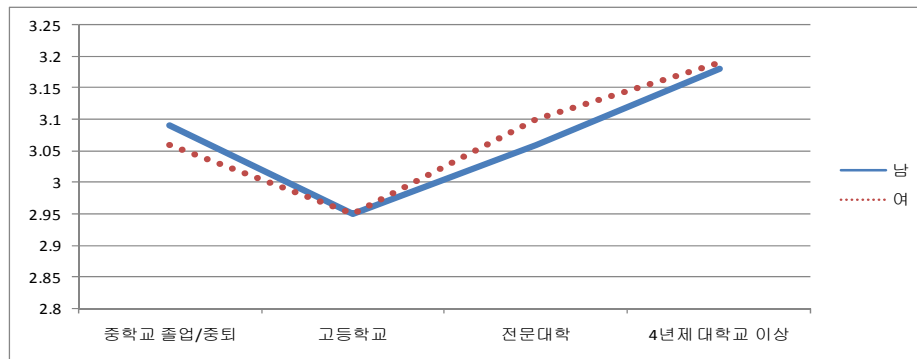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8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09 (0.76) | 2.95 (0.67) | 3.06 (0.60) | 3.18 (0.66) | 3.06 (0.92) | 2.95 (0.59) | 3.10 (0.57) | 3.19 (0.55)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14.994$,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005$, $p=.943$)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71$, $p=.97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7】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9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예상교육수준 | 16.719 | 3 | 5.573 | 14.994*** | .000 |
| 성별 | .002 | 1 | .002 | .005 | .943 |
| 예상교육수준*성별 | .079 | 3 | .026 | .071 | .975 |
| 오차 | 1080.112 | 2906 | .37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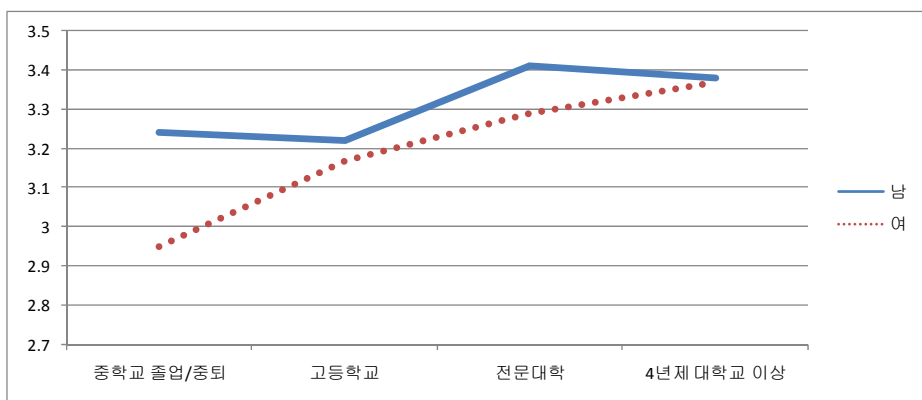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20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아시안 정체성 | 3.24 (0.40) | 3.22 (0.62) | 3.41 (0.51) | 3.38 (0.54) | 2.95 (0.97) | 3.17 (0.50) | 3.29 (0.53) | 3.37 (0.48)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12.117$, $p=.000$)과 성별($F=3.973$, $p=.046$)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061$, $p=.1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8】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21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예상교육수준 | 9.909 | 3 | 3.303 | 12.117*** | .000 |
| 성별 | 1.083 | 1 | 1.083 | 3.973* | .046 |
| 예상교육수준*성별 | 1.685 | 3 | .562 | 2.061 | .103 |
| 오차 | 793.466 | 2911 | .27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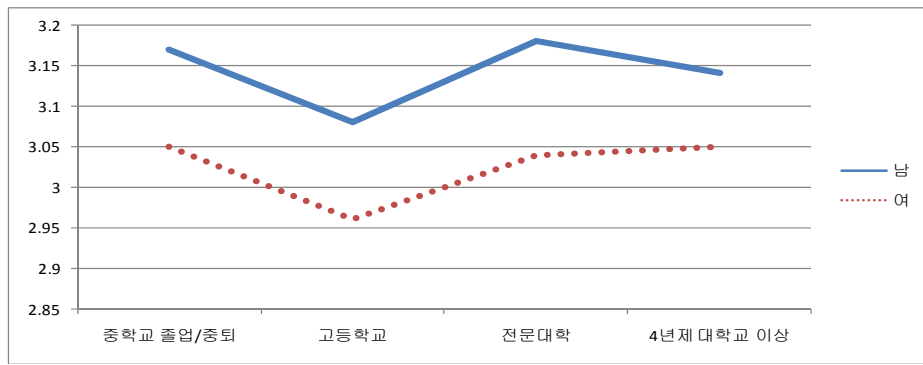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22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여 | | | |
|-----------------|----------------|----------------|----------------|----------------|----------------|----------------|----------------|----------------|
| 기대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17 (0.51) | 3.08 (0.54) | 3.18 (0.46) | 3.14 (0.52) | 3.05 (0.55) | 2.96 (0.50) | 3.04 (0.47) | 3.05 (0.47) |

예상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예상교육수준($F=2.510$, $p=.057$)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F=4.290$, $p=.038$)의 차이만 나타났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84$, $p=.837$)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9】 성별과 기대학력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23 성별과 기대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예상교육수준 | 1.832 | 3 | .611 | 2.510 | .057 |
| 성별 | 1.044 | 1 | 1.044 | 4.290* | .038 |
| 예상교육수준*성별 | .208 | 3 | .069 | .284 | .837 |
| 오차 | 707.188 | 2096 | .243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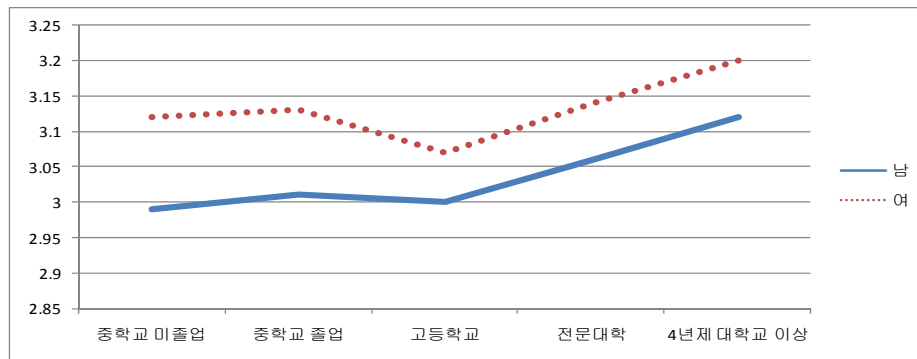
2) 성별과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24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시민 의식 (전체) | 2.75 (0.68) | 2.89 (0.80) | 2.80 (0.79) | 2.89 (0.76) | 3.03 (0.76) | 3.00 (0.20) | 3.18 (0.83) | 3.11 (0.67) | 3.18 (0.66) | 3.30 (0.60)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17.884$,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3.840$, $p=.050$)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85$, $p=.94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0】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25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확률 |
|---------|---------|------|-------|-----------|------|
| 부모학력 | 6.873 | 4 | 1.718 | 17.884*** | .000 |
| 성별 | .369 | 1 | .369 | 3.840 | .050 |
| 부모학력*성별 | .071 | 4 | .018 | .185 | .946 |
| 오차 | 261.694 | 2724 | .09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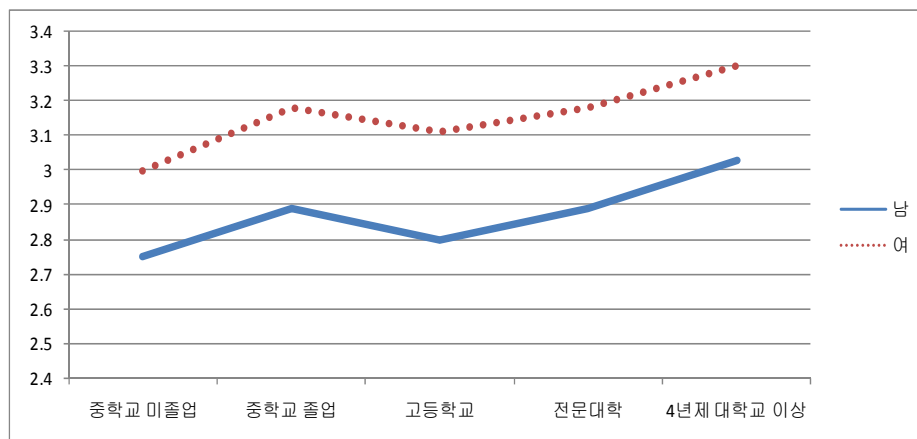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26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3.06 (0.66) | 2.72 (0.67) | 2.69 (0.75) | 2.76 (0.78) | 2.84 (0.77) | 3.00 (0.87) | 2.88 (0.68) | 2.89 (0.65) | 2.93 (0.64) | 3.02 (0.62)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11.259$, $p=.000$)과 성별($F=5.947$, $p=.015$)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75$, $p=.99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1】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27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22.967 | 4 | 5.742 | 11.259*** | .000 |
| 성별 | 3.033 | 1 | 3.033 | 5.947* | .015 |
| 부모학력*성별 | .153 | 4 | .038 | .075 | .990 |
| 오차 | 1435.617 | 2815 | .5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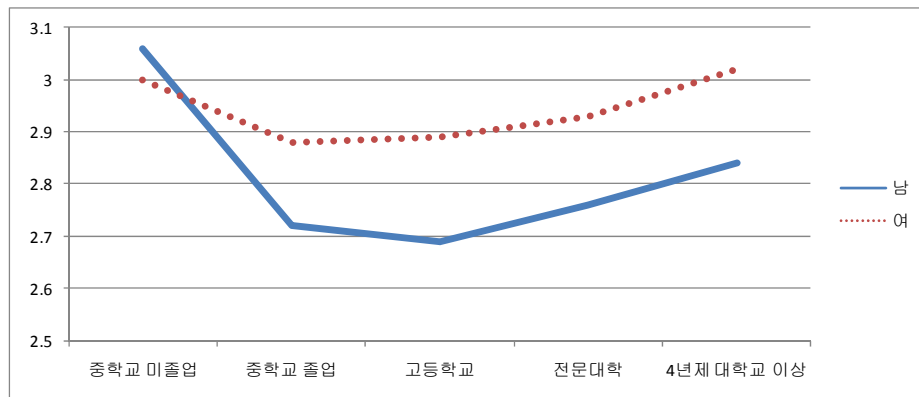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28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3.06 (0.66) | 2.72 (0.67) | 2.69 (0.75) | 2.76 (0.78) | 2.84 (0.77) | 3.00 (0.87) | 2.88 (0.68) | 2.89 (0.65) | 2.93 (0.64) | 3.02 (0.62)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5.20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1.242$, $p=.265$)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04$, $p=.9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2】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29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10.411 | 4 | 2.603 | 5.200*** | .000 |
| 성별 | .622 | 1 | .622 | 1.242 | .265 |
| 부모학력*성별 | .209 | 4 | .052 | .104 | .981 |
| 오차 | 1409.354 | 2816 | .5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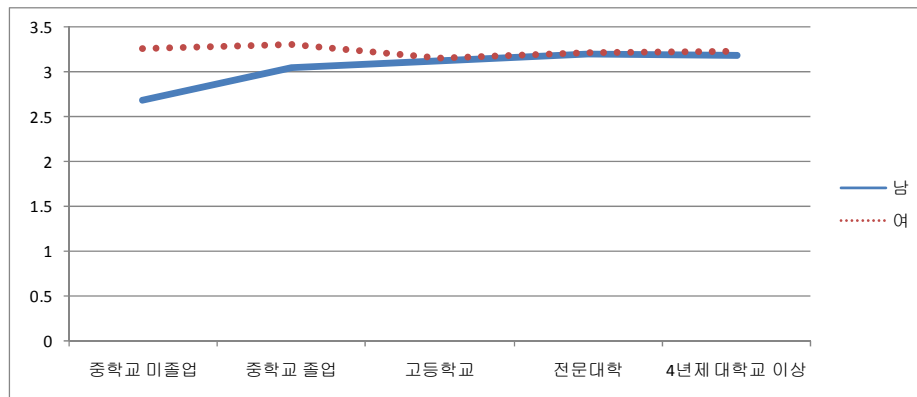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30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2.69 (0.31) | 3.05 (0.58) | 3.13 (0.56) | 3.20 (0.57) | 3.18 (0.59) | 3.25 (0.66) | 3.30 (0.58) | 3.15 (0.52) | 3.21 (0.48) | 3.23 (0.52)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 부모학력($F=2.277$, $p=.059$)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F=4.123$, $p=.042$)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231$, $p=.29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3】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31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2.721 | 4 | .680 | 2.277 | .059 |
| 성별 | 1.232 | 1 | 1.232 | 4.123* | .042 |
| 부모학력*성별 | 1.472 | 4 | .368 | 1.231 | .295 |
| 오차 | 839.575 | 2810 | .29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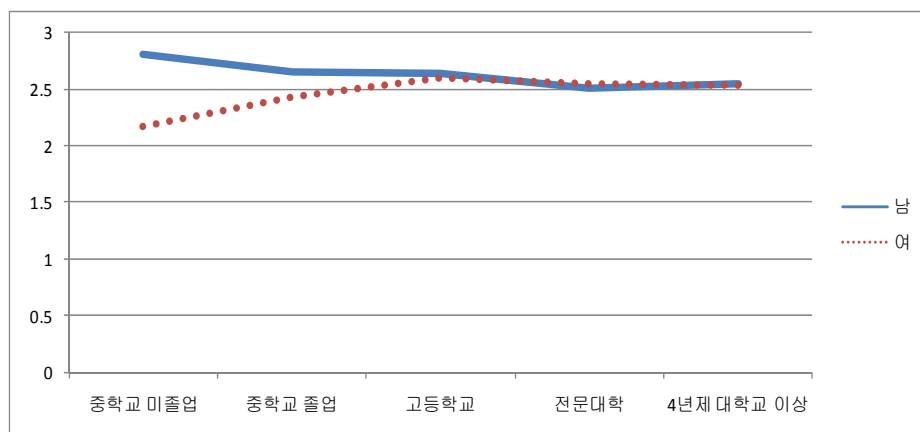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32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부모 학력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81 (0.66) | 2.66 (0.57) | 2.64 (0.71) | 2.51 (0.70) | 2.55 (0.76) | 2.17 (0.88) | 2.43 (0.68) | 2.60 (0.65) | 2.55 (0.63) | 2.53 (0.65)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2.060$, $p=.084$), 성별($F=2.638$, $p=.104$),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139$, $p=.33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4】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33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3.918 | 4 | .980 | 2.060 | .084 |
| 성별 | 1.255 | 1 | 1.255 | 2.638 | .104 |
| 부모학력*성별 | 2.167 | 4 | .542 | 1.139 | .336 |
| 오차 | 1337.866 | 2813 | .47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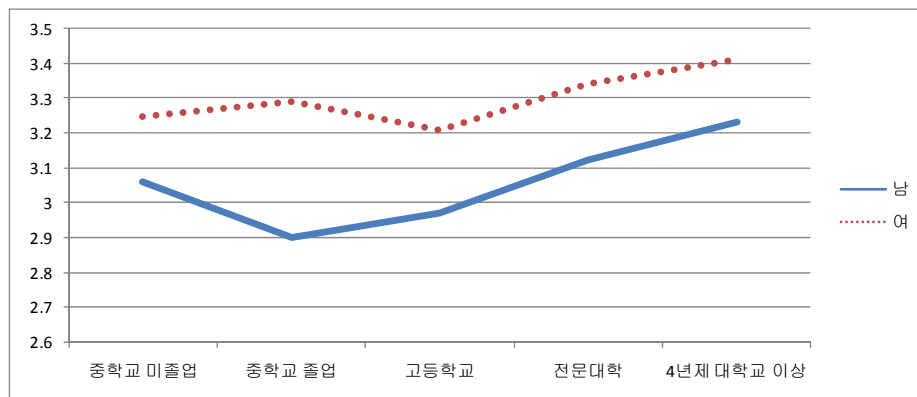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34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06 (0.53) | 2.90 (0.76) | 2.97 (0.70) | 3.12 (0.70) | 3.23 (0.66) | 3.25 (0.82) | 3.29 (0.45) | 3.21 (0.54) | 3.34 (0.56) | 3.41 (0.52)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16.865$, $p=.000$)과 성별($F=5.990$, $p=.014$)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06$, $p=.65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5】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35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25.871 | 4 | 6.468 | 16.865*** | .000 |
| 성별 | 2.297 | 1 | 2.297 | 5.990* | .014 |
| 부모학력*성별 | .929 | 4 | .232 | .606 | .659 |
| 오차 | 1071.528 | 2794 | .38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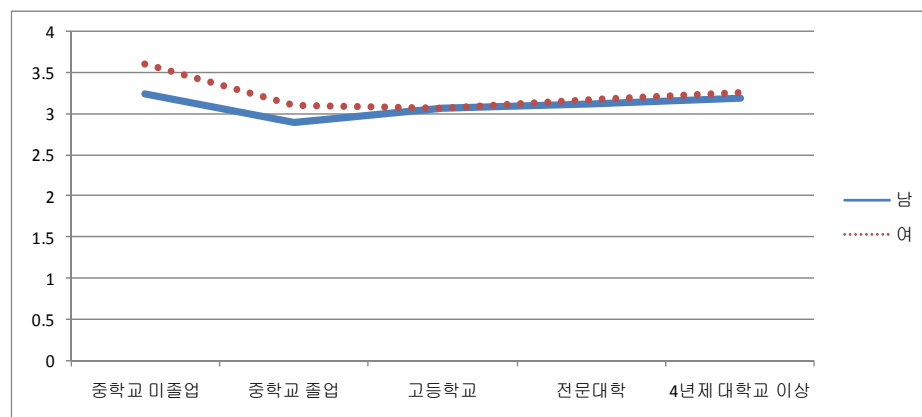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36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25 (0.90) | 2.90 (0.75) | 3.08 (0.62) | 3.13 (0.67) | 3.19 (0.65) | 3.60 (0.53) | 3.10 (0.49) | 3.06 (0.59) | 3.16 (0.57) | 3.25 (0.52)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8.328$,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1.559$, $p=.212$)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051$, $p=.39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6】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37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지승화 | 자유도 | 평균지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12.276 | 4 | 3.069 | 8.328*** | .000 |
| 성별 | .574 | 1 | .574 | 1.559 | .212 |
| 부모학력*성별 | 1.550 | 4 | .387 | 1.051 | .397 |
| 오차 | 1031.821 | 2800 | .36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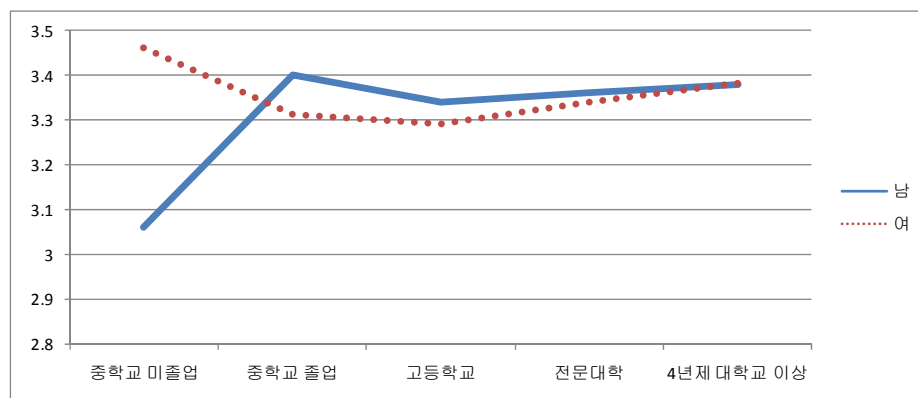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38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부모 학력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아시안 정체성 | 3.06 (0.89) | 3.40 (0.44) | 3.34 (0.54) | 3.36 (0.56) | 3.38 (0.54) | 3.46 (0.40) | 3.31 (0.51) | 3.29 (0.53) | 3.34 (0.48) | 3.38 (0.49)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1.832$, $p=.120$), 성별($F=.355$, $p=.552$)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52$, $p=.62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17】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39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2.007 | 4 | .502 | 1.832 | .120 |
| 성별 | .097 | 1 | .097 | .355 | .552 |
| 부모학력*성별 | .714 | 4 | .178 | .652 | .626 |
| 오차 | 769.057 | 2808 | .27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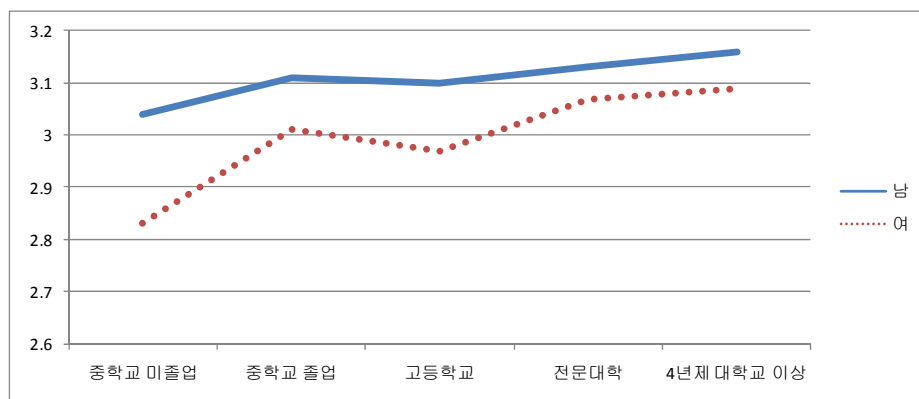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40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 | | 여 | | | | |
|-----------------|----------------|----------------|----------------|----------------|----------------|----------------|----------------|----------------|----------------|----------------|
|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중학교 미만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 대학 | 4년제 대학 이상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04 (0.89) | 3.11 (0.58) | 3.11 (0.50) | 3.13 (0.52) | 3.16 (0.50) | 2.83 (0.44) | 3.01 (0.58) | 2.97 (0.46) | 3.07 (0.44) | 3.10 (0.48) |

부모학력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학력($F=4.206$, $p=.002$)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F=2.046$, $p=.153$)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705$, $p=.588$)는 그렇지 못했다.



【그림 III-18】 성별과 부모 학력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41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부모학력 | 4.059 | 4 | 1.015 | 4.206** | .002 |
| 성별 | .493 | 1 | .493 | 2.046 | .153 |
| 부모학력*성별 | .681 | 4 | .170 | .705 | .588 |
| 오차 | 676.148 | 2803 | .241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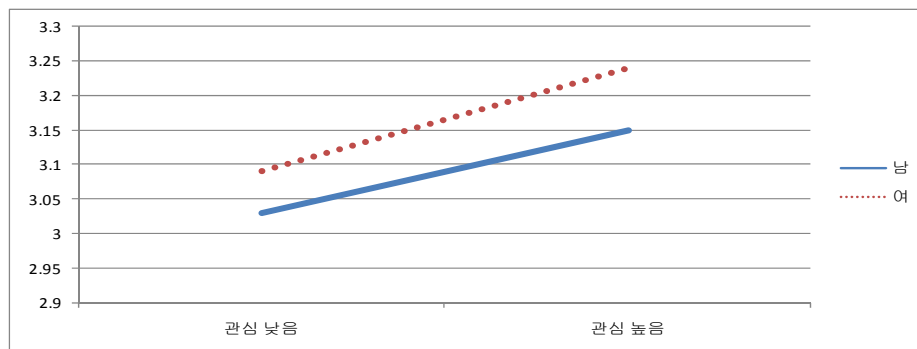
3)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42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시민 의식 (전체) | 3.15(0.32) | 3.03(0.32) | 3.24(0.29) | 3.09(0.29)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120.532$, $p=.000$)와 성별($F=38.376$,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33$, $p=.42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19】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43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11.339 | 1 | 11.339 | 120.532*** | .000 |
| 성별 | 3.610 | 1 | 3.610 | 38.376*** | .000 |
| 정치사회*성별 | .060 | 1 | .060 | .633 | .426 |
| 오차 | 263.123 | 2797 | .09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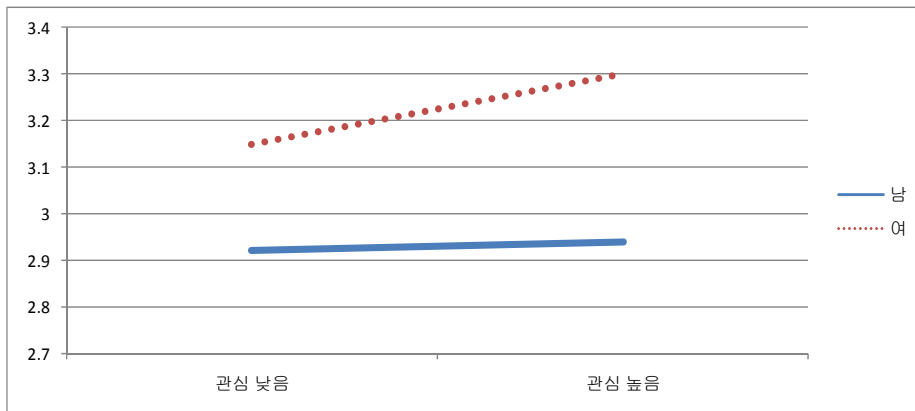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44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4(0.85) | 2.92(0.73) | 3.30(0.67) | 3.15(0.63)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9.633$, $p=.002$)와 성별($F=110.881$,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4.797$, $p=.029$)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20】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45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지승화 | 자유도 | 평균지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4.945 | 1 | 4.945 | 9.633** | .002 |
| 성별 | 56.926 | 1 | 56.926 | 110.881*** | .000 |
| 정치사회*성별 | 2.463 | 1 | 2.463 | 4.797* | .029 |
| 오차 | 1485.255 | 2893 | .51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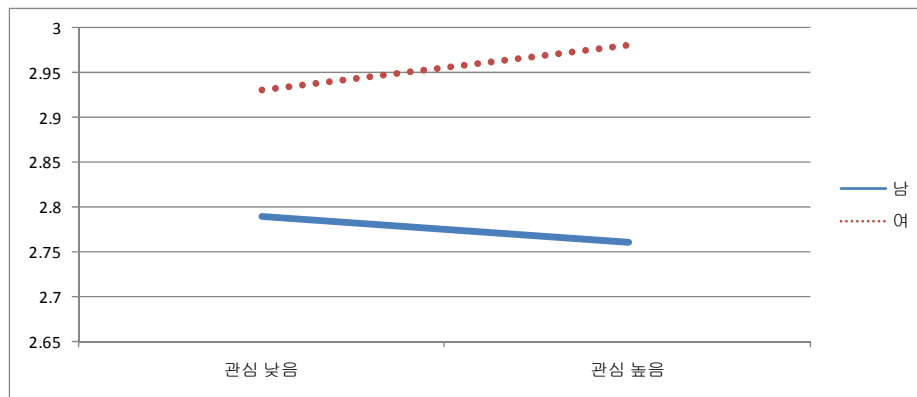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46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2.76(0.80) | 2.79(0.75) | 2.98(0.66) | 2.93(0.62)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099$, $p=.753$)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F=42.384$, $p=.000$)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394$, $p=.23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1】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47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505 | 1 | .505 | .099 | .753 |
| 성별 | 21.297 | 1 | 21.297 | 42.384*** | .000 |
| 정치사회*성별 | .700 | 1 | .700 | 1.394 | .238 |
| 오차 | 1455.135 | 2896 | .50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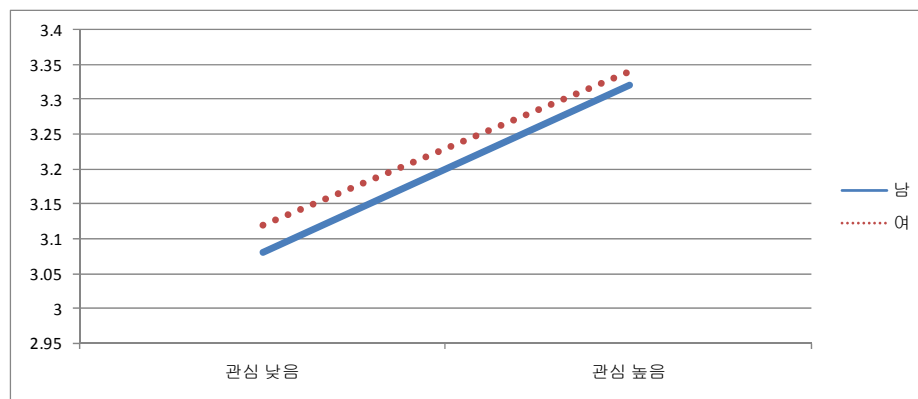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48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남 | | 여 | |
|-------------------------|------------|------------|------------|------------|
|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08(0.58) | 3.32(0.55) | 3.12(0.50) | 3.34(0.50)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115.844$,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2.254$, $p=.133$)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34$, $p=.8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2】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49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33.713 | 1 | 33.713 | 115.844*** | .000 |
| 성별 | .656 | 1 | .656 | 2.254 | .133 |
| 정치사회*성별 | .010 | 1 | .010 | .034 | .853 |
| 오차 | 841.342 | 2891 | .29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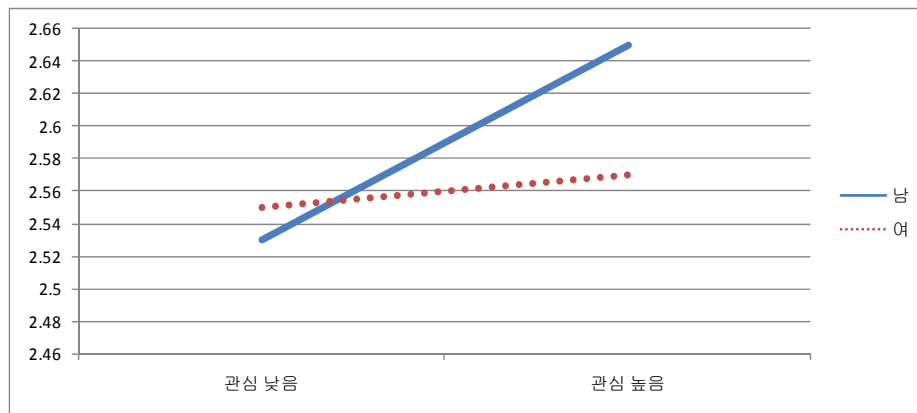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50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65(0.75) | 2.53(0.71) | 2.57(0.69) | 2.55(0.62)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6.313$, $p=.012$)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1.691$, $p=.194$)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3.518$, $p=.06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3】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51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2.995 | 1 | 2.995 | 6.313* | .012 |
| 성별 | .802 | 1 | .802 | 1.691 | .194 |
| 정치사회*성별 | 1.669 | 1 | 1.669 | 3.518 | .061 |
| 오차 | 1372.245 | 2893 | .47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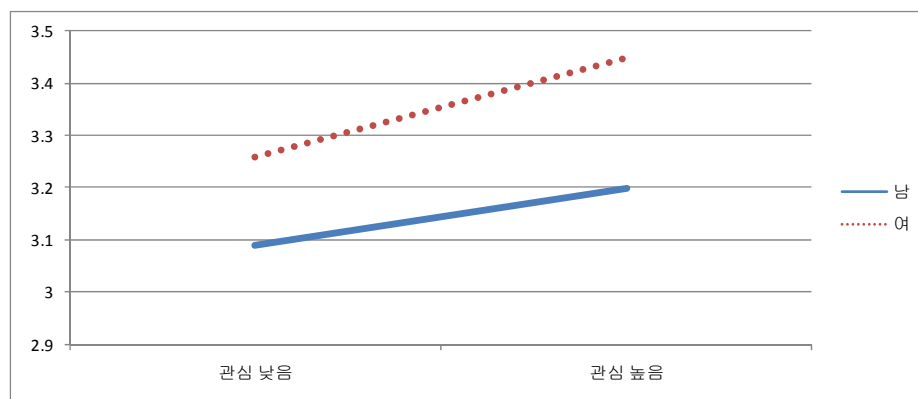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52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20(0.72) | 3.09(0.66) | 3.45(0.55) | 3.26(0.52)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37.479$, $p=.000$)와 성별($F=76.179$,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452$, $p=.11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24】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53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14.264 | 1 | 14.264 | 37.479*** | .000 |
| 성별 | 28.993 | 1 | 28.993 | 76.179*** | .000 |
| 정치사회*성별 | .993 | 1 | .993 | 2.452 | .118 |
| 오차 | 1093.068 | 2872 | .38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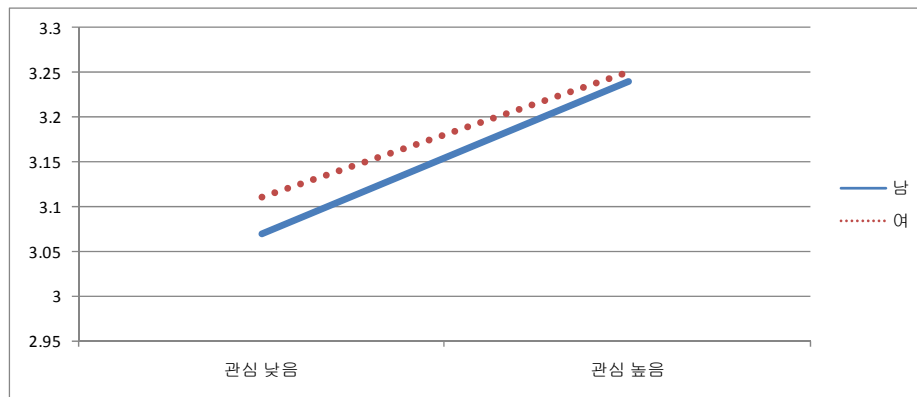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54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24(0.66) | 3.07(0.64) | 3.25(0.60) | 3.11(0.54)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38.08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940$, $p=.332$),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51$, $p=.6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5】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55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14.144 | 1 | 14.144 | 38.080*** | .000 |
| 성별 | .349 | 1 | .349 | .940 | .332 |
| 정치사회*성별 | .093 | 1 | .093 | .251 | .617 |
| 오차 | 1069.762 | 2880 | .37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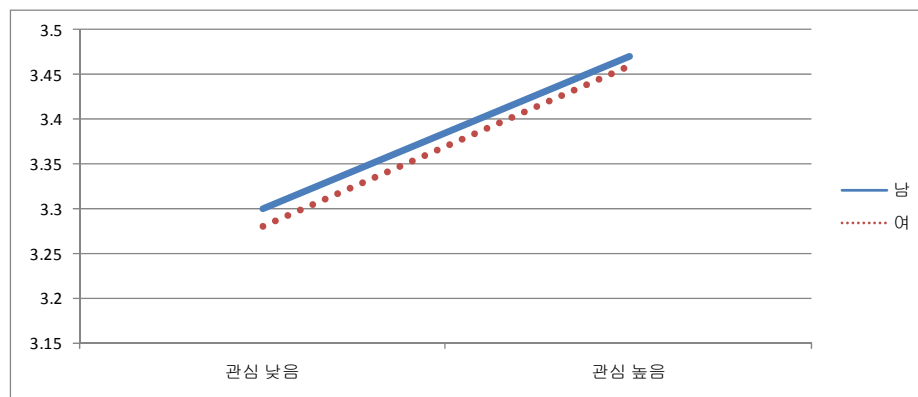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56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아시안 정체성 | 3.47(0.53) | 3.30(0.55) | 3.46(0.47) | 3.28(0.50)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68.949$,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642$, $p=.423$)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83$, $p=.7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6】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57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18.590 | 1 | 18.590 | 68.949*** | .000 |
| 성별 | .173 | 1 | .173 | .642 | .423 |
| 정치사회*성별 | .022 | 1 | .022 | .083 | .773 |
| 오차 | 778.374 | 2887 | .27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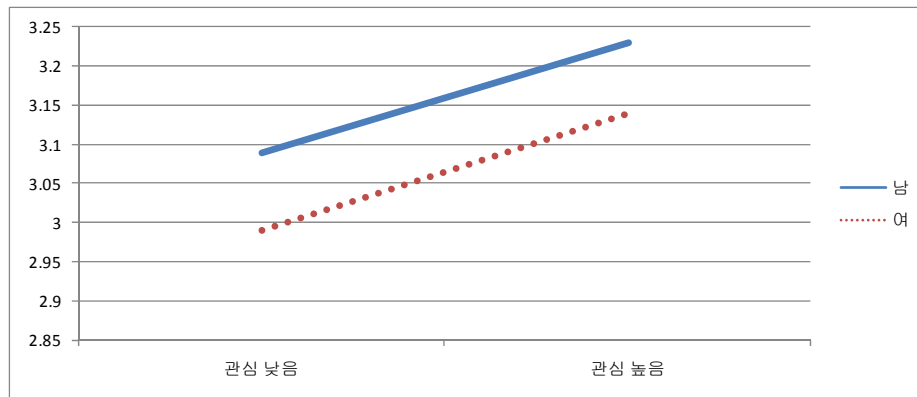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58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 남 | | 여 | |
|-------------------------|------------|------------|------------|------------|
|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관심 낮음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23(0.51) | 3.09(0.51) | 3.14(0.47) | 2.99(0.46) |

부모의 정치사회적관심도와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F=59.403$, $p=.000$)와 성별($F=23.953$,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31$, $p=.86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7】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59 성별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정치사회적관심도 | 14.163 | 1 | 14.163 | 59.403*** | .000 |
| 성별 | 5.711 | 1 | 5.711 | 23.953*** | .000 |
| 정치사회*성별 | .007 | 1 | .007 | .031 | .861 |
| 오차 | 686.423 | 2879 | .238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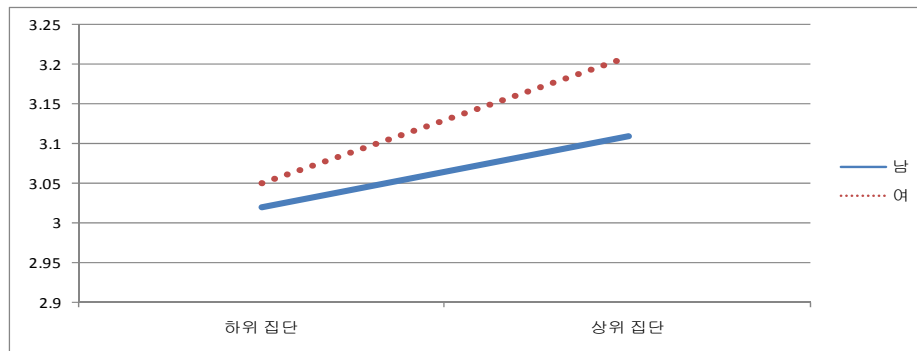
4)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60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시민 의식 (전체) | 3.11(0.34) | 3.21(0.29) | 3.02(0.33) | 3.05(0.30)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74.641$, $p=.000$)과 성별($F=21.163$,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4.627$, $p=.032$)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그림 III-28】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61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7.477 | 1 | 7.477 | 74.641*** | .000 |
| 성별 | 2.120 | 1 | 2.120 | 21.163*** | .000 |
| 학교밖 활동*성별 | .463 | 1 | .463 | 4.627* | .032 |
| 오차 | 193.023 | 1927 | .1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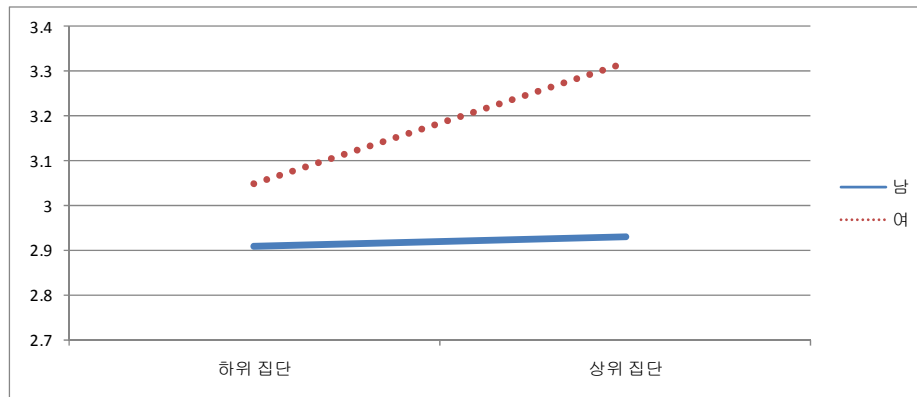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62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3(0.82) | 2.91(0.74) | 3.32(0.62) | 3.05(0.70)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18.641$, $p=.000$)과 성별($F=63.53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4.085$, $p=.000$)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II-29】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63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9.882 | 1 | 9.882 | 18.641*** | .000 |
| 성별 | 33.678 | 1 | 33.678 | 63.530*** | .000 |
| 학교밖 활동*성별 | 7.467 | 1 | 7.467 | 14.085*** | .000 |
| 오차 | 1054.922 | 1990 | .53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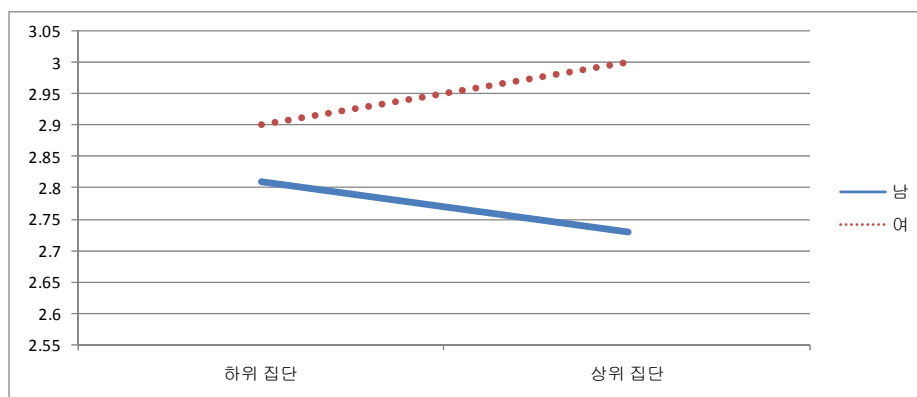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64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73(0.78) | 2.81(0.76) | 3.00(0.62) | 2.90(0.64)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128$, $p=.721$)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F=32.708$, $p=.000$)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7.573$, $p=.006$)는 99% 유의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30】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65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065 | 1 | .065 | .128 | .721 |
| 성별 | 16.500 | 1 | 16.500 | 32.708*** | .000 |
| 학교밖 활동*성별 | 3.821 | 1 | 3.821 | 7.573** | .006 |
| 오차 | 1003.372 | 1989 | .50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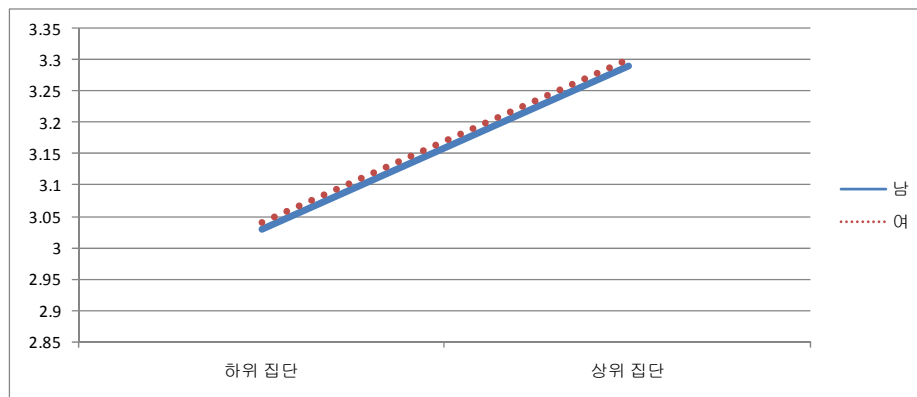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66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29(0.55) | 3.03(0.62) | 3.30(0.49) | 3.04(0.55)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104.45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084$, $p=.771$),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17$, $p=.89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1】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67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밖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32.697 | 1 | 32.697 | 104.450*** | .000 |
| 성별 | .026 | 1 | .026 | .084 | .771 |
| 학교밖 활동*성별 | .005 | 1 | .005 | .017 | .897 |
| 오차 | 621.699 | 1986 | .31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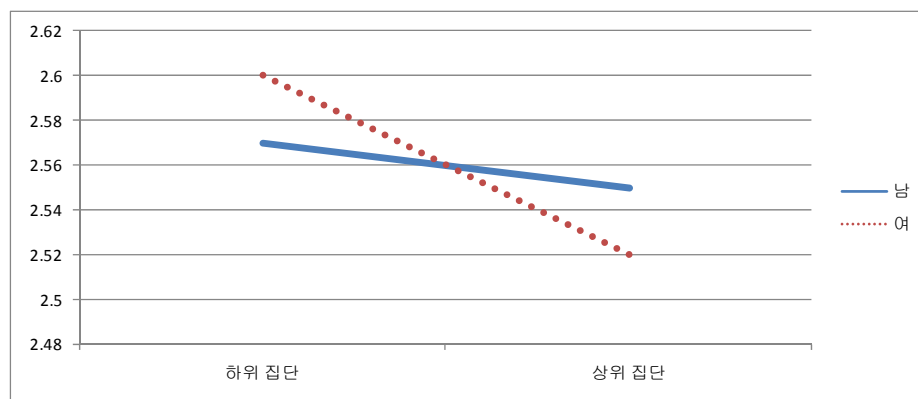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68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법 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 체계에 대한 신뢰 | 2.55(0.76) | 2.57(0.72) | 2.52(0.66) | 2.60(0.62)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2.356$, $p=.125$)은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F=.038$, $p=.846$)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906$, $p=.34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2】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법 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69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법 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1.125 | 1 | 1.125 | 2.356 | .125 |
| 성별 | .018 | 1 | .018 | .038 | .846 |
| 학교밖 활동*성별 | .433 | 1 | .433 | .906 | .341 |
| 오차 | 948.524 | 1987 | .47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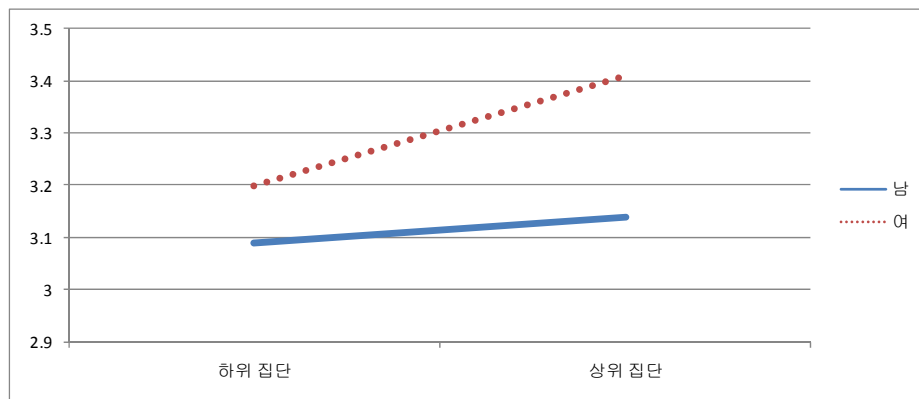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70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15(0.74) | 3.09(0.67) | 3.41(0.54) | 3.20(0.58)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20.610$, $p=.000$)과 성별($F=41.048$,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958$, $p=.008$)도 99% 유의수준을 만족시켰다.



【그림 III-33】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71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8.494 | 1 | 8.494 | 20.610*** | .000 |
| 성별 | 16.918 | 1 | 16.918 | 41.048*** | .000 |
| 학교밖 활동*성별 | 2.868 | 1 | 2.868 | 6.958** | .008 |
| 오차 | 812.360 | 1971 | .41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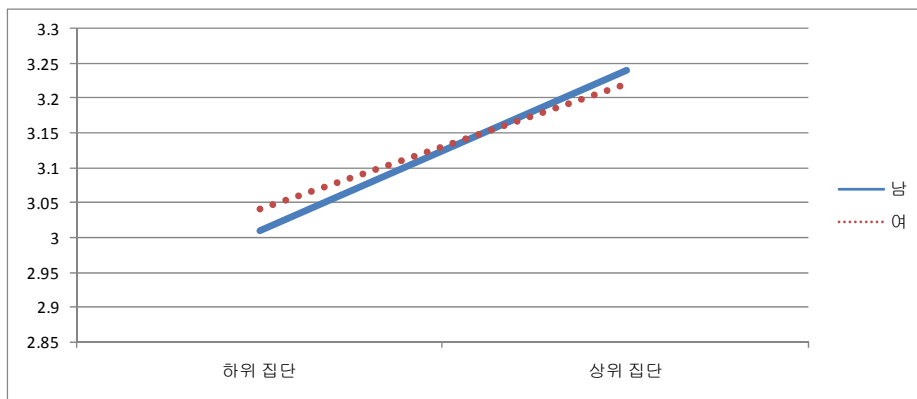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72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24(0.61) | 3.01(0.71) | 3.22(0.55) | 3.04(0.58)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50.98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151$, $p=.698$)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71$, $p=.41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4】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73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19.885 | 1 | 19.885 | 50.984*** | .000 |
| 성별 | .059 | 1 | .059 | .151 | .698 |
| 학교밖 활동*성별 | .262 | 1 | .262 | .671 | .413 |
| 오차 | 769.888 | 1974 | .39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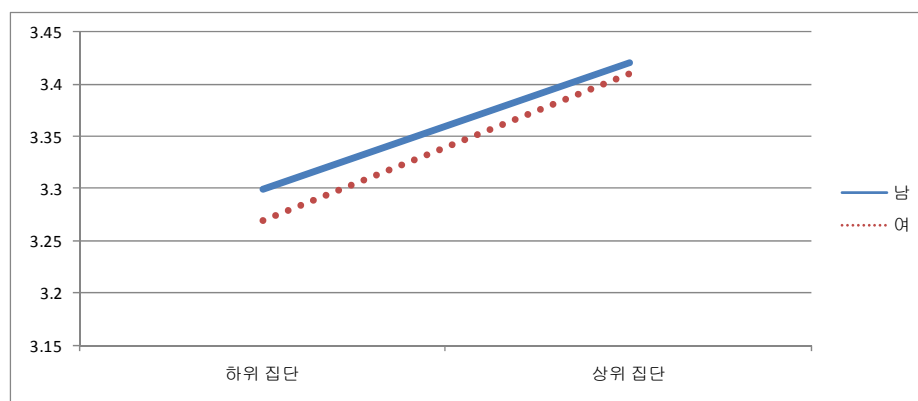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74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아시안 정체성 | 3.42(0.53) | 3.30(0.59) | 3.41(0.46) | 3.27(0.51)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29.403$,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507$, $p=.476$) 차이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55$, $p=.69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5】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75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8.246 | 1 | 8.246 | 29.403*** | .000 |
| 성별 | .142 | 1 | .142 | .507 | .476 |
| 학교밖 활동*성별 | .043 | 1 | .043 | .155 | .694 |
| 오차 | 555.283 | 1980 | .2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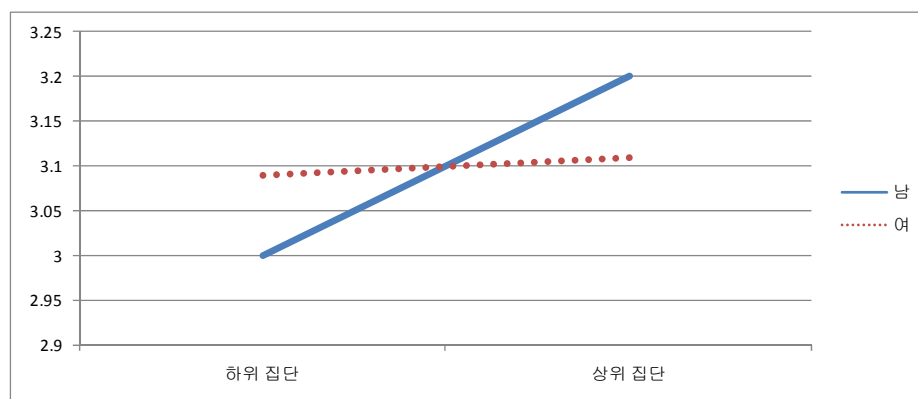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76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활동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20(0.49) | 3.09(0.55) | 3.11(0.46) | 3.00(0.49) |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F=24.982$, $p=.000$)과 성별($F=14.580$, $p=.002$)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14$, $p=.9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6】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77 성별과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 활동 | 6.375 | 1 | 6.375 | 24.982*** | .000 |
| 성별 | 3.721 | 1 | 3.721 | 14.580*** | .002 |
| 학교밖 활동*성별 | .003 | 1 | .003 | 1.955 | .907 |
| 오차 | 503.484 | 1973 | .255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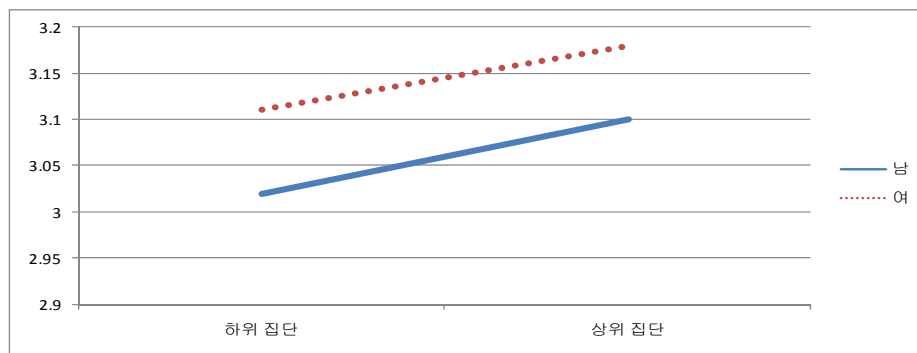
5)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78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시민 의식(전체) | 3.10(0.32) | 3.02(0.33) | 3.18(0.29) | 3.11(0.30)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27.554$, $p=.000$)와 성별($F=34.966$,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00$, $p=.994$)는 유의미한 신뢰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림 III-37】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79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2.672 | 1 | 2.672 | 27.554*** | .000 |
| 성별 | 3.391 | 1 | 3.391 | 34.966*** | .000 |
| 학교밖(집단)*성별 | 0.464 | 1 | 0.464 | .422 | .994 |
| 오차 | 184.086 | 1898 | .09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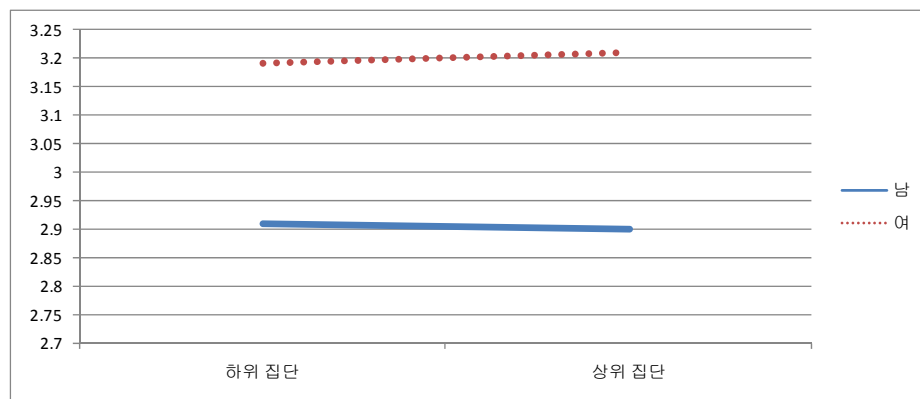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80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0(0.81) | 2.91(0.76) | 3.21(0.67) | 3.19(0.67)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006$, $p=.937$)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F=78.059$, $p=.000$)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00$, $p=.65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8】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81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003 | 1 | .003 | .006 | .937 |
| 성별 | 42.229 | 1 | 42.229 | 78.059*** | .000 |
| 학교밖(참여)*성별 | .108 | 1 | .108 | .200 | .655 |
| 오차 | 1065.200 | 1969 | .54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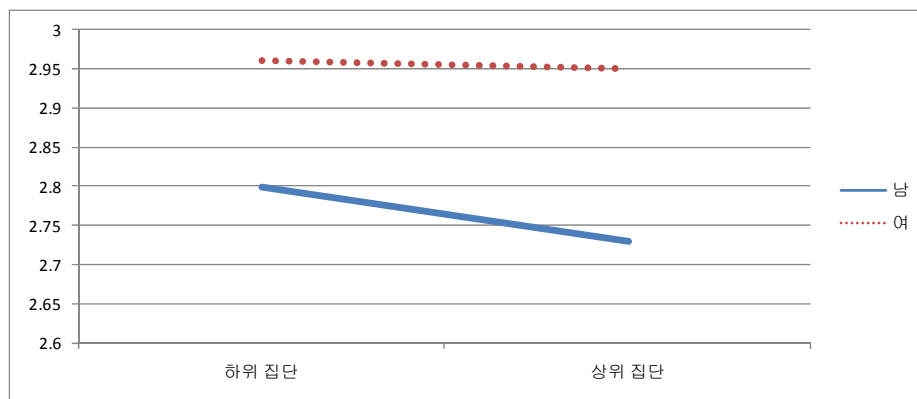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82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73(0.79) | 2.80(0.78) | 2.95(0.65) | 2.96(0.64)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1.713$, $p=.19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F=34.271$, $p=.000$)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831$, $p=.36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39】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83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893 | 1 | .893 | 1.713 | .191 |
| 성별 | 17.870 | 1 | 17.870 | 34.271*** | .000 |
| 학교밖(참여)*성별 | .433 | 1 | .433 | .831 | .362 |
| 오차 | 1027.765 | 1971 | .52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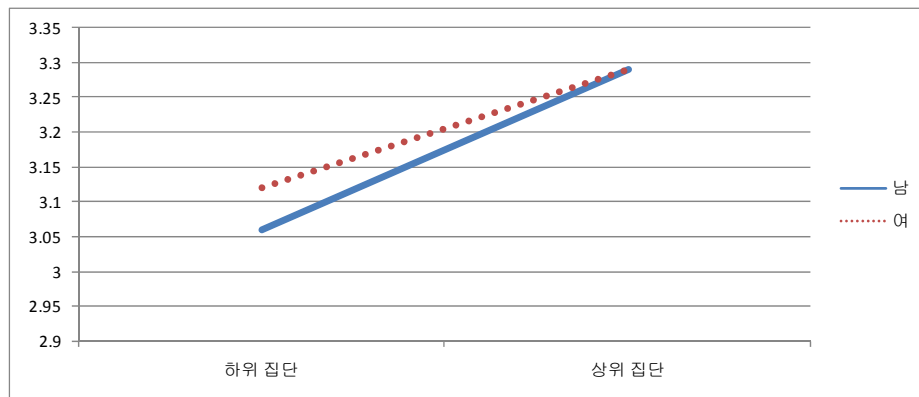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84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29(0.55) | 3.06(0.62) | 3.29(0.47) | 3.12(0.53)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66.979$, $p=.000$)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별($F=1.483$, $p=.223$),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430$, $p=.232$)는 95% 유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III-40】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85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20.265 | 1 | 20.265 | 66.979*** | .000 |
| 성별 | .449 | 1 | .449 | 1.483 | .223 |
| 학교밖(참여)*성별 | .433 | 1 | .433 | 1.430 | .232 |
| 오차 | 595.428 | 1968 | .30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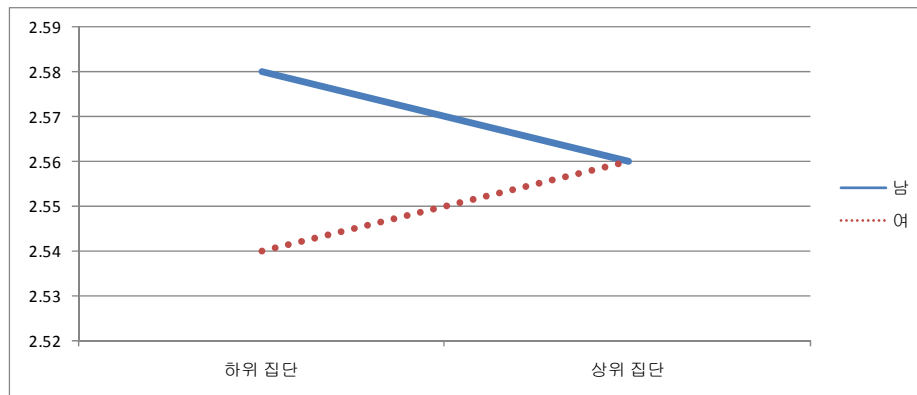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86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56(0.73) | 2.58(0.71) | 2.56(0.68) | 2.54(0.63)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001$, $p=.972$)의 주효과, 성별($F=.544$, $p=.461$)의 차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320$, $p=.57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1】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87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001 | 1 | .001 | .001 | .972 |
| 성별 | .261 | 1 | .261 | .544 | .461 |
| 학교밖(참여)*성별 | .154 | 1 | .154 | .320 | .572 |
| 오차 | 945.800 | 1969 | .4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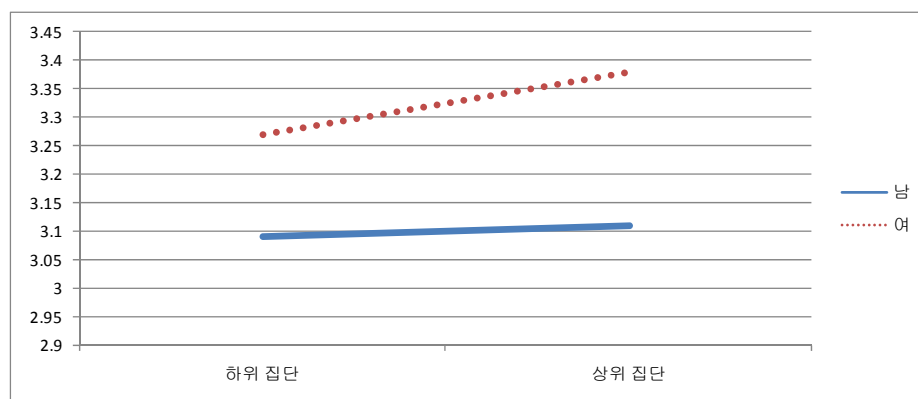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88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11(0.71) | 3.09(0.70) | 3.38(0.55) | 3.27(0.57)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4.631$, $p=.032$)와 성별($F=60.510$, $p=.000$)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184$, $p=.14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42】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89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1.928 | 1 | 1.928 | 4.631* | .032 |
| 성별 | 25.195 | 1 | 25.195 | 60.510*** | .000 |
| 학교밖(참여)*성별 | .910 | 1 | .910 | 2.184 | .140 |
| 오차 | 813.179 | 1953 | .41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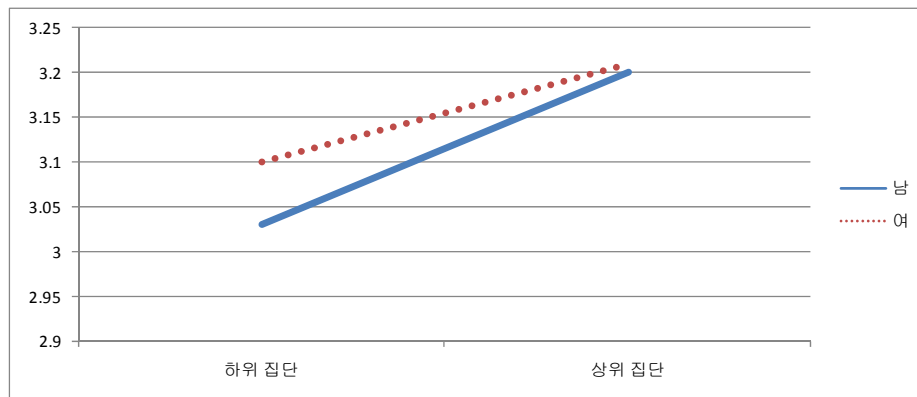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90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20(0.66) | 3.03(0.71) | 3.21(0.56) | 3.10(0.55)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21.233$, $p=.000$)의 주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별($F=1.960$, $p=.162$)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080$, $p=.29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III-43】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91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8.386 | 1 | 8.386 | 21.233*** | .000 |
| 성별 | .774 | 1 | .774 | 1.960 | .162 |
| 학교밖(참여)*성별 | .427 | 1 | .427 | 1.080 | .299 |
| 오차 | 774.536 | 1961 | .39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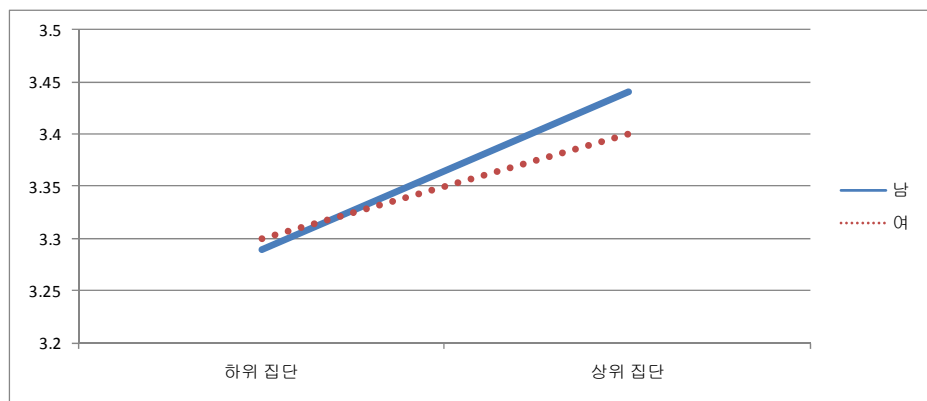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92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아시안 정체성 | 3.44(0.51) | 3.29(0.60) | 3.40(0.47) | 3.30(0.51)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28.321$, $p=.000$)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성별($F=.600$, $p=.439$)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134$, $p=.28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4】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93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7.837 | 1 | 7.837 | 28.321*** | .000 |
| 성별 | .166 | 1 | .166 | .600 | .439 |
| 학교밖(참여)*성별 | .314 | 1 | .314 | 1.134 | .287 |
| 오차 | 542.645 | 1961 | .27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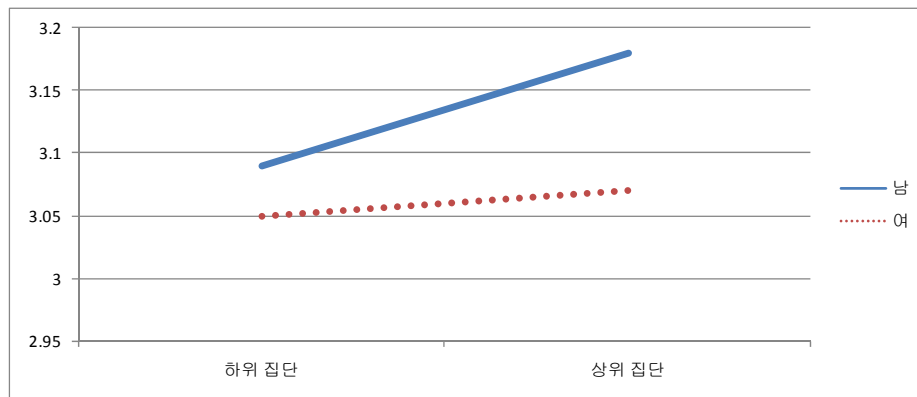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94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18(0.51) | 3.09(0.53) | 3.07(0.46) | 3.05(0.47) |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와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F=5.681$, $p=.017$)와 성별($F=11.291$, $p=.001$)의 주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363$, $p=.124$)는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45】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95 성별과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밖(참여) | 1.406 | 1 | 1.406 | 5.681* | .017 |
| 성별 | 2.793 | 1 | 2.793 | 11.291** | .001 |
| 학교밖(참여)*성별 | .585 | 1 | .585 | 2.363 | .124 |
| 오차 | 484.160 | 1957 | .247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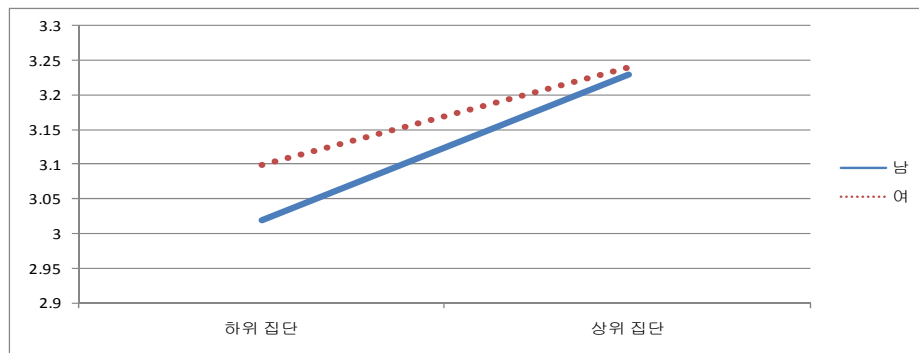
6)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96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시민 의식 (전체) | 3.23(0.32) | 3.02(0.33) | 3.24(0.34) | 3.10(0.30)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68.017$, $p=.000$)과 성별($F=5.167$, $p=.023$)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285$, $p=.13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6】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97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6.800 | 1 | 6.800 | 68.017*** | .000 |
| 성별 | .517 | 1 | .517 | 5.167* | .023 |
| 학교내(교실)*성별 | .228 | 1 | .228 | 2.285 | .131 |
| 오차 | 173.550 | 1736 | .1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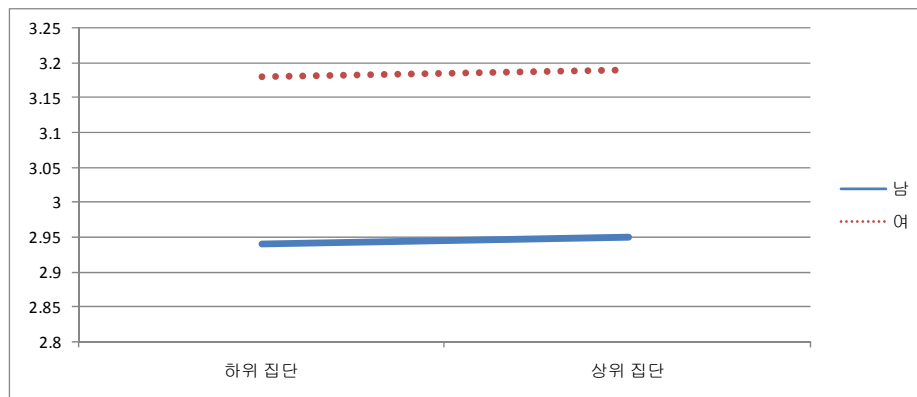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98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5(0.89) | 2.94(0.75) | 3.19(0.81) | 3.18(0.65)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034$, $p=.853$)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F=25.429$, $p=.000$)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06$, $p=.93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7】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99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018 | 1 | .018 | .034 | .853 |
| 성별 | 13.580 | 1 | 13.580 | 25.429*** | .000 |
| 학교내(교실)*성별 | .003 | 1 | .003 | .006 | .938 |
| 오차 | 960.757 | 1799 | .53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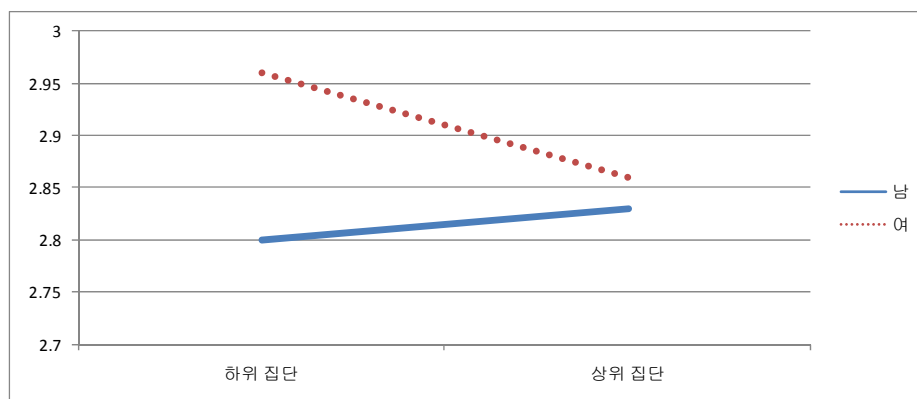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100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2.83(0.85) | 2.80(0.77) | 2.86(0.70) | 2.96(0.64)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313$, $p=.565$)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F=4.073$, $p=.044$)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971$, $p=.16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8】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101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174 | 1 | .174 | .331 | .565 |
| 성별 | 2.149 | 1 | 2.149 | 4.073* | .044 |
| 학교내(교실)*성별 | 1.040 | 1 | 1.040 | 1.971 | .161 |
| 오차 | 950.088 | 1801 | .52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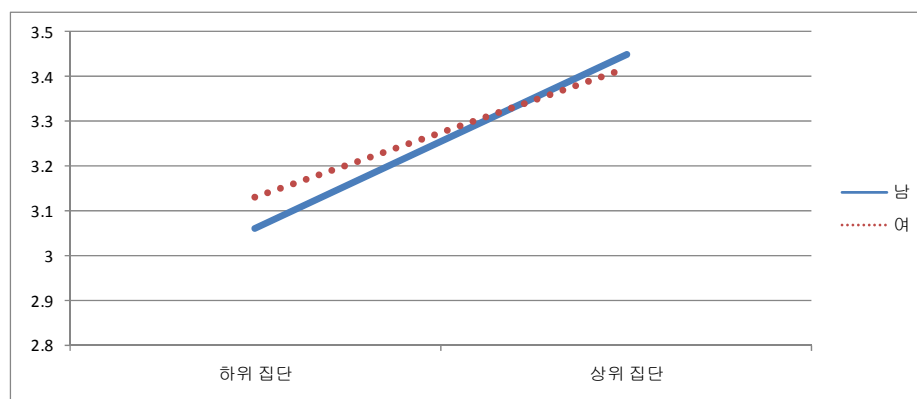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0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2.83(0.85) | 2.80(0.77) | 2.86(0.70) | 2.96(0.64)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88.096$,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214$, $p=.644$)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961$, $p=.16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9】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0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27.260 | 1 | 27.260 | 88.096*** | .000 |
| 성별 | .066 | 1 | .066 | .214 | .644 |
| 학교내(교실)*성별 | .607 | 1 | .607 | 1.961 | .162 |
| 오차 | 556.050 | 1797 | .30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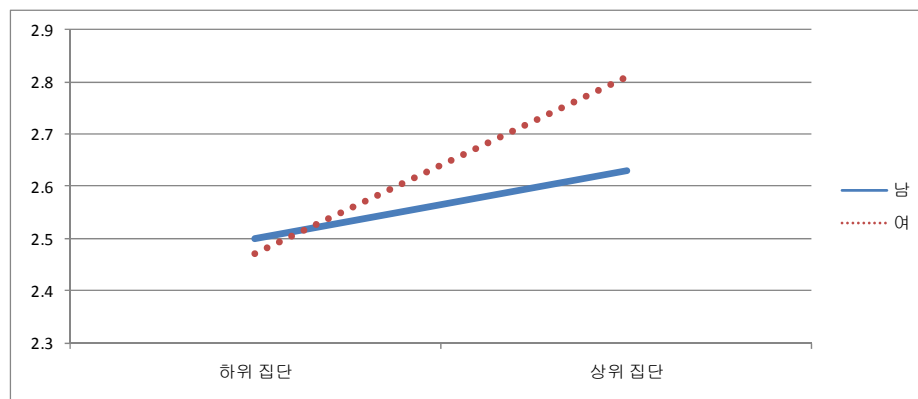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04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63(0.73) | 2.50(0.74) | 2.81(0.61) | 2.47(0.65)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27.092$,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2.872$, $p=.090$)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5.452$, $p=.020$)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50】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05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13.082 | 1 | 13.082 | 27.092*** | .000 |
| 성별 | 1.387 | 1 | 1.387 | 2.872 | .090 |
| 학교내(교실)*성별 | 2.633 | 1 | 2.633 | 5.452* | .020 |
| 오차 | 869.184 | 1800 | .48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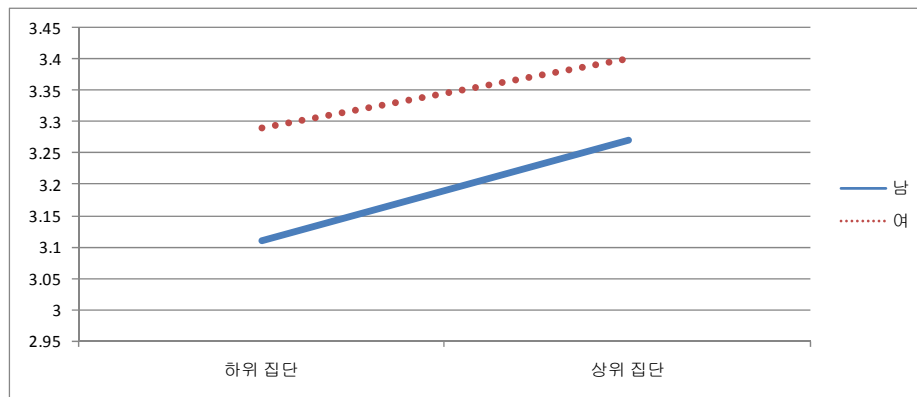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06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3.27 (0.73) | 3.11 (0.69) | 3.40 (0.56) | 3.29 (0.56)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11.453$, $p=.001$)과 성별($F=14.117$,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365$, $p=.54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1】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07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4.615 | 1 | 4.615 | 11.453** | .001 |
| 성별 | 5.688 | 1 | 5.688 | 14.117*** | .000 |
| 학교내(교실)*성별 | .147 | 1 | .147 | .365 | .546 |
| 오차 | 719,245 | 1785 | .40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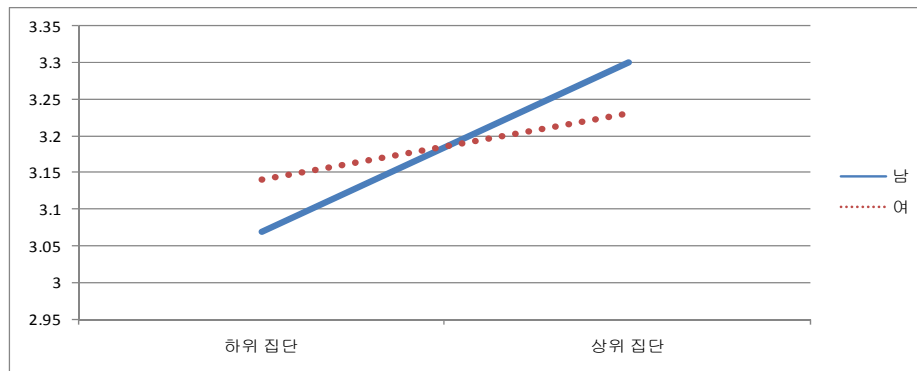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08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30(0.71) | 3.07(0.67) | 3.23(0.60) | 3.14(0.57)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15.143$,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성별($F=.000$, $p=.989$)의 차이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3.422$, $p=.06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수준(95%)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림 III-5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09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6.032 | 1 | 6.032 | 15.143*** | .000 |
| 성별 | 0.767 | 1 | 0.767 | .000 | .989 |
| 학교내(교실)*성별 | 1.363 | 1 | 1.363 | 3.422 | .064 |
| 오차 | 714.573 | 1794 | .39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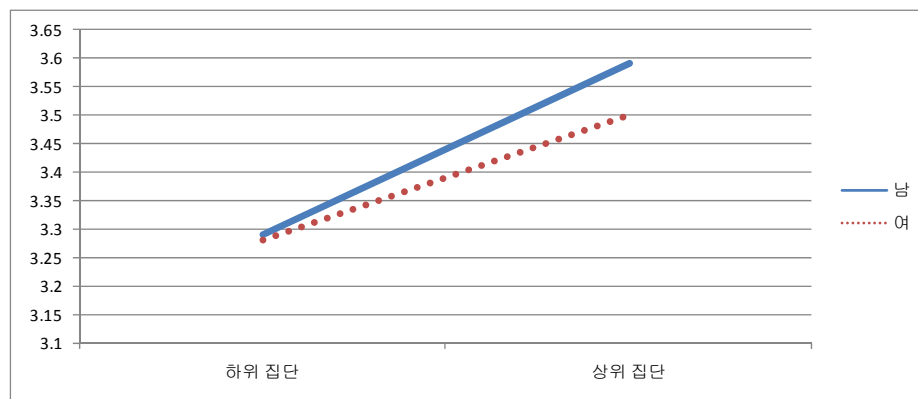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110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아시안 정체성 | 3.59(0.51) | 3.29(0.57) | 3.50(0.51) | 3.28(0.51)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57.125$,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2.187$, $p=.139$)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387$, $p=.23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111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16.532 | 1 | 16.532 | 57.125*** | .000 |
| 성별 | .633 | 1 | .633 | 2.187 | .139 |
| 학교내(교실)*성별 | .401 | 1 | .401 | 1.387 | .239 |
| 오차 | 518.041 | 1790 | .28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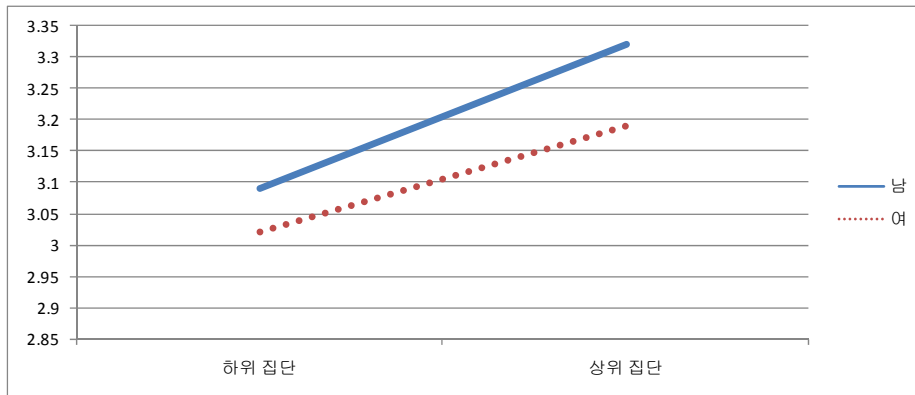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12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32(0.50) | 3.09(0.54) | 3.19(0.50) | 3.02(0.48) |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F=34.998$, $p=.000$)과 성별($F=9.178$, $p=.002$)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768$, $p=.3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4】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13 성별과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실) | 9.035 | 1 | 9.035 | 34.998*** | .000 |
| 성별 | 2.369 | 1 | 2.369 | 9.178** | .002 |
| 학교내(교실)*성별 | .198 | 1 | .198 | .768 | .381 |
| 오차 | 460.817 | 1785 | .258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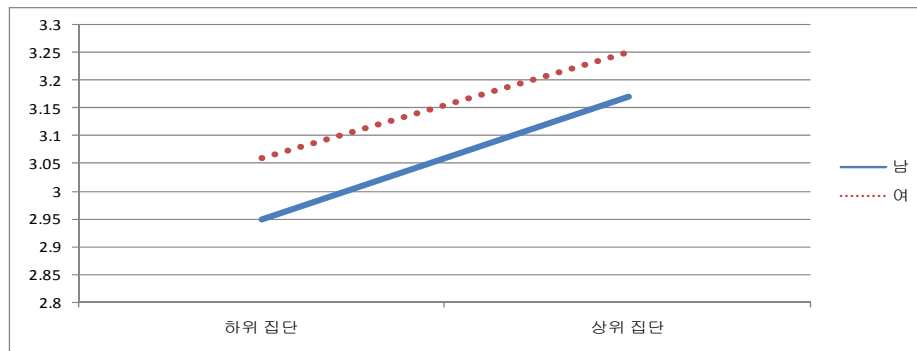
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114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시민 의식 (전체) | 3.32(0.50) | 3.09(0.54) | 3.19(0.50) | 3.02(0.48)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113.392$, $p=.000$)과 성별($F=22.186$,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02$, $p=.43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11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10.705 | 1 | 10.705 | 113.392*** | .000 |
| 성별 | 2.094 | 1 | 2.094 | 22.186*** | .000 |
| 학교내(지원)*성별 | .057 | 1 | .057 | .602 | .438 |
| 오차 | 151.330 | 1603 | .09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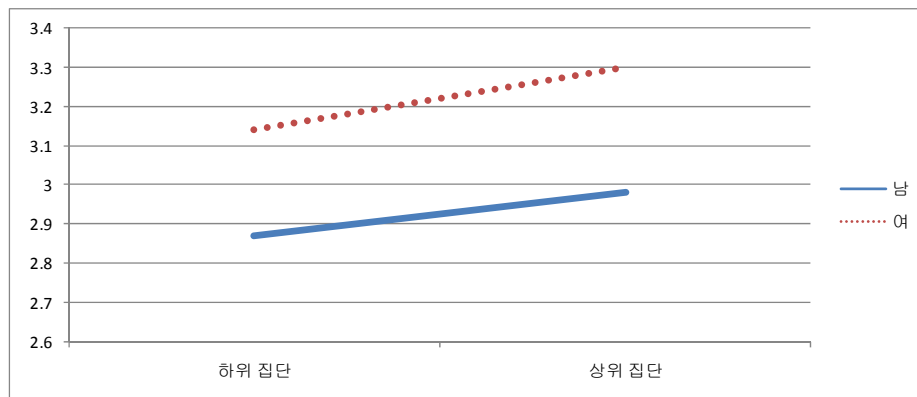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11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8(0.81) | 2.87(0.79) | 3.30(0.63) | 3.14(0.71)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8.731$, $p=.003$)과 성별($F=41.262$,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98$, $p=.6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이지 못했다.



【그림 III-5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11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지승화 | 자유도 | 평균지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4.830 | 1 | 4.830 | 8.731** | .003 |
| 성별 | 22.825 | 1 | 22.825 | 41.262*** | .000 |
| 학교내(지원)*성별 | .110 | 1 | .110 | .198 | .656 |
| 오차 | 917.725 | 1659 | .55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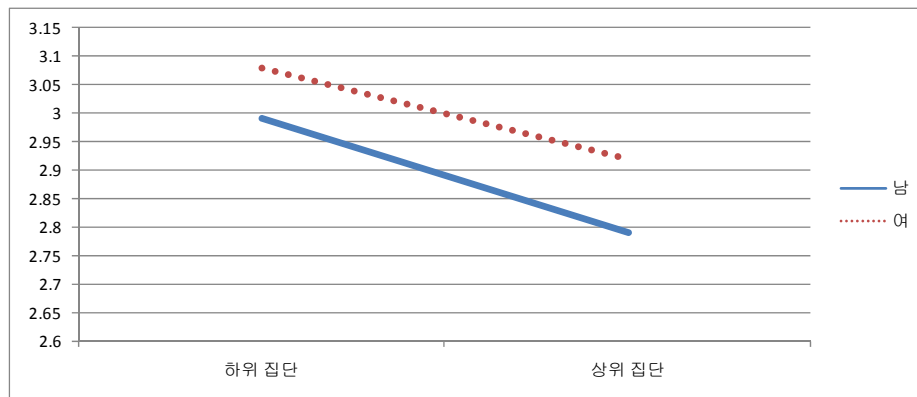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11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2.79(0.80) | 2.99(0.80) | 2.92(0.66) | 3.08(0.66)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16.050$, $p=.000$)과 성별($F=5.824$, $p=.016$)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65$, $p=.6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표 III-11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8.855 | 1 | 8.855 | 16.050*** | .000 |
| 성별 | 3.213 | 1 | 3.213 | 5.824* | .016 |
| 학교내(지원)*성별 | .146 | 1 | .146 | .265 | .607 |
| 오차 | 913.647 | 1656 | .55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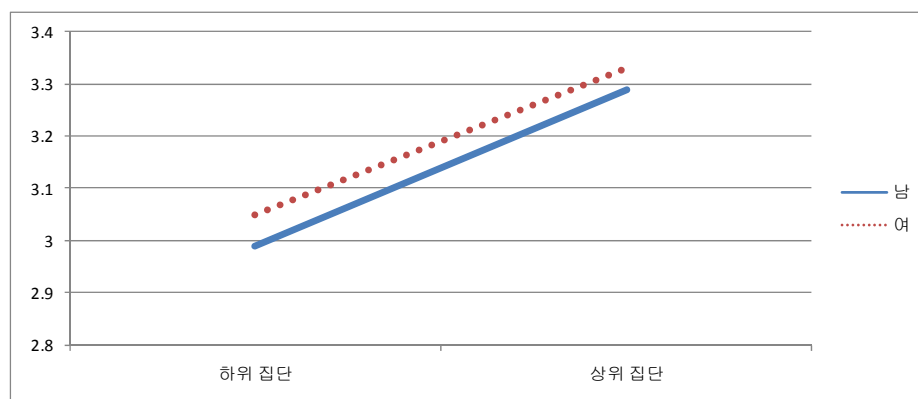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2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29(0.57) | 2.99(0.67) | 3.33(0.48) | 3.05(0.62)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72.363$,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1.814$, $p=.178$)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70$, $p=.79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2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22.254 | 1 | 22.254 | 72.363*** | .000 |
| 성별 | .558 | 1 | .558 | 1.814 | .178 |
| 학교내(지원)*성별 | .022 | 1 | .022 | .070 | .791 |
| 오차 | 509.581 | 4616 | .30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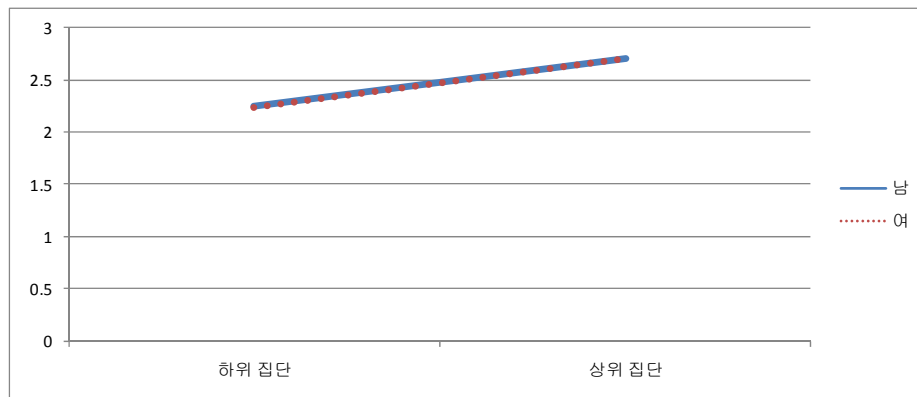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22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70(0.74) | 2.25(0.73) | 2.70(0.65) | 2.24(0.65)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110.405$,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017$, $p=.898$)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34$, $p=.8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5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23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53.799 | 1 | 53.799 | 110.405*** | .000 |
| 성별 | .008 | 1 | .008 | .017 | .898 |
| 학교내(지원)*성별 | .017 | 1 | .017 | .034 | .853 |
| 오차 | 806.953 | 1656 | .48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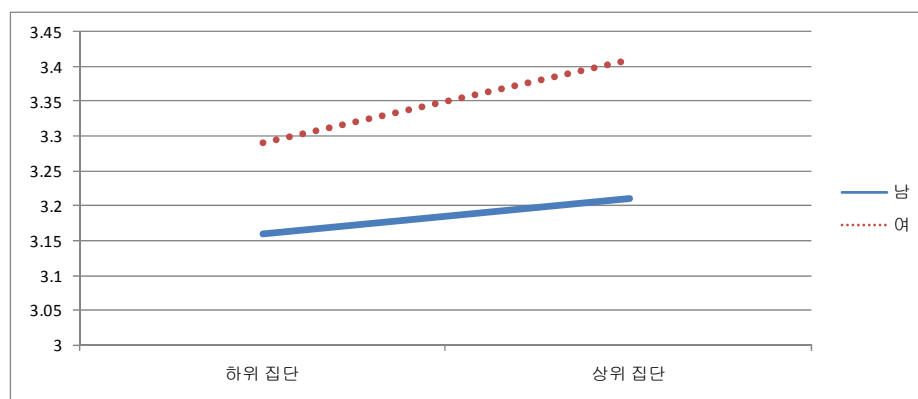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24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21(0.71) | 3.16(0.66) | 3.41(0.54) | 3.29(0.59)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4.330$, $p=.038$)과 성별($F=16.975$,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828$, $p=.36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25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1.755 | 1 | 1.755 | 4.330* | .038 |
| 성별 | 6.880 | 1 | 6.880 | 16.975*** | .000 |
| 학교내(지원)*성별 | .336 | 1 | .336 | .828 | .363 |
| 오차 | 665.074 | 1641 | .40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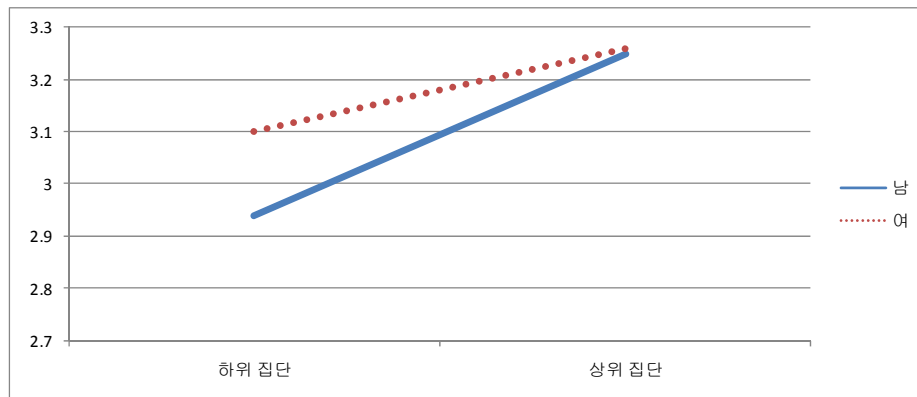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26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25(0.65) | 2.94(0.81) | 3.26(0.53) | 3.10(0.61)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37.313$, $p=.000$)과 성별($F=4.630$, $p=.032$)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3.746$, $p=.05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27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14.714 | 1 | 14.714 | 37.313*** | .000 |
| 성별 | 1.826 | 1 | 1.826 | 4.630* | .032 |
| 학교내(지원)*성별 | 1.477 | 1 | 1.477 | 3.746 | .053 |
| 오차 | 651.067 | 1651 | .39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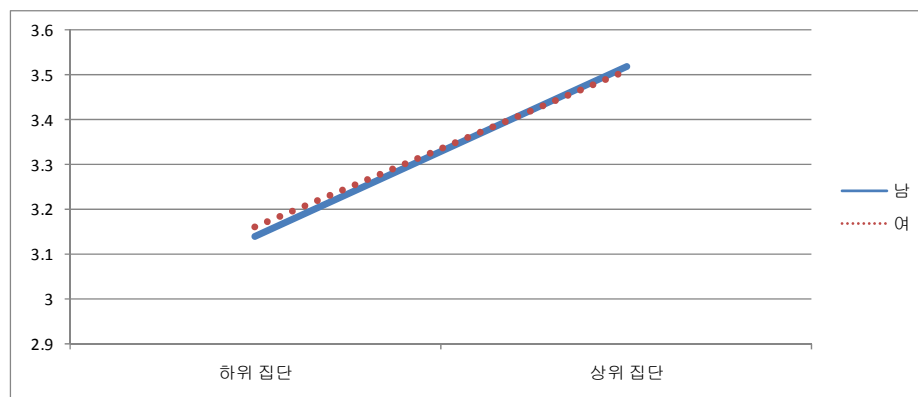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128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아시안 정체성 | 3.52(0.50) | 3.51(0.44) | 3.14(0.67) | 3.16(0.55)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140.075$,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048$, $p=.827$)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65$, $p=.68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2】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129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36.103 | 1 | 36.103 | 140.075*** | .000 |
| 성별 | .012 | 1 | .012 | .048 | .827 |
| 학교내(지원)*성별 | .043 | 1 | .043 | .165 | .684 |
| 오차 | 426.043 | 1653 | .25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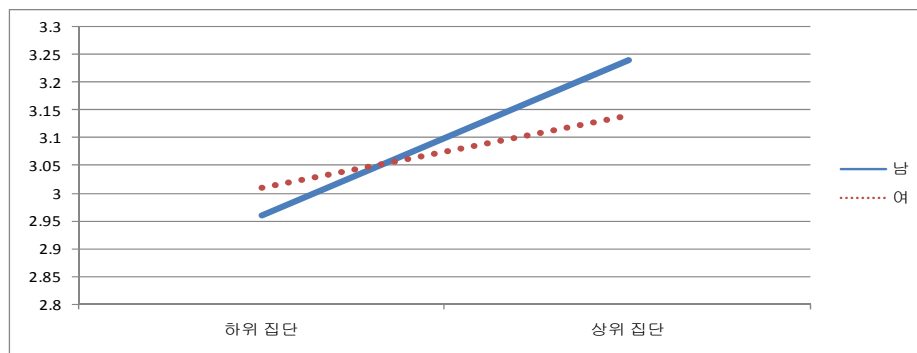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30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학교 내 활동 (교사지원)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24(0.50) | 2.96(0.64) | 3.14(0.48) | 3.01(0.50) |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F=43.021$,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754$, $p=.385$)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5.147$, $p=.024$)는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63】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3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교사지원) | 11.236 | 1 | 11.236 | 43.021*** | .000 |
| 성별 | .197 | 1 | .197 | .754 | .385 |
| 학교내(지원)*성별 | 1.339 | 1 | 1.339 | 5.127* | .024 |
| 오차 | 431.718 | 1653 | .261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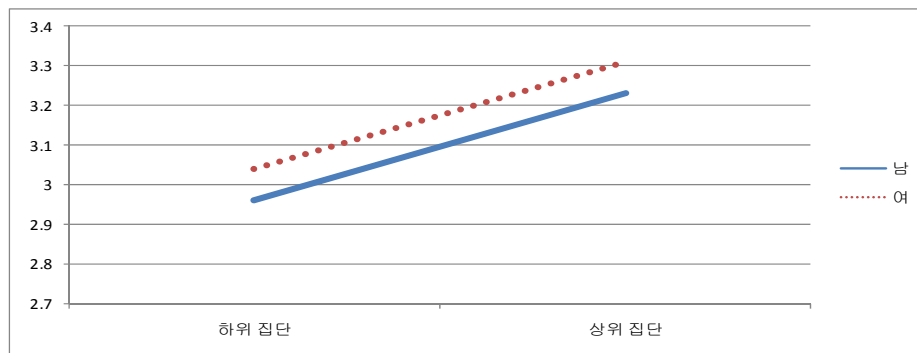
8) 성별과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1) 전체 시민 의식

표 III-13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시민 의식 (전체) | 3.23(0.31) | 2.96(0.29) | 3.31(0.27) | 3.04(0.28)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548.968$, $p=.000$)과 성별($F=52.054$,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44$, $p=.7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전체 시민 의식

표 III-133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체 시민 의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45.133 | 1 | 45.133 | 548.968*** | .000 |
| 성별 | 4.280 | 1 | 4.280 | 52.054*** | .000 |
| 학교내(인식)*성별 | .012 | 1 | .012 | .144 | .705 |
| 오차 | 216.143 | 2629 | .08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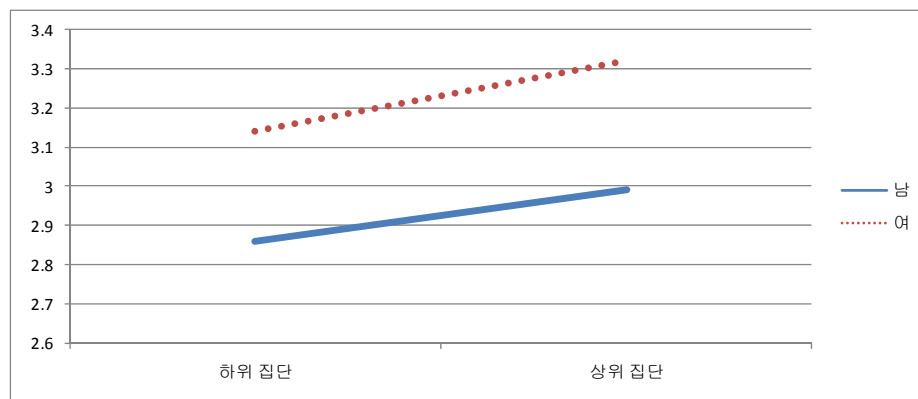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13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99(0.86) | 2.86(0.73) | 3.32(0.71) | 3.14(0.62)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부역할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28.973$, $p=.000$)과 성별($F=108.228$,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87$, $p=.407$)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III-6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표 III-13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15.180 | 1 | 15.180 | 28.973*** | .000 |
| 성별 | 56.704 | 1 | 56.704 | 108.228*** | .000 |
| 학교내(인식)*성별 | .360 | 1 | .360 | .687 | .407 |
| 오차 | 1426.136 | 2722 | .52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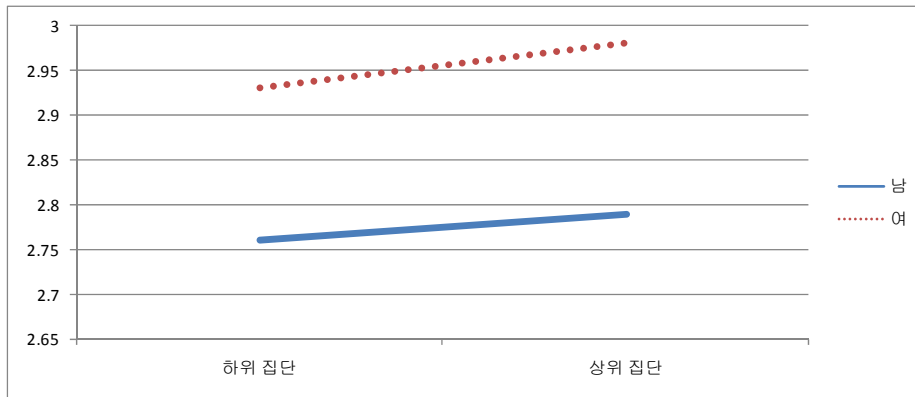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136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79(0.86) | 2.76(0.71) | 2.98(0.69) | 2.93(0.61)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1.935$, $p=.164$)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F=38.564$, $p=.000$)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66$, $p=.68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6】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표 III-13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982 | 1 | .982 | 1.935 | .164 |
| 성별 | 19.583 | 1 | 19.583 | 38.564*** | .000 |
| 학교내(인식)*성별 | .084 | 1 | .084 | .166 | .684 |
| 오차 | 1383.272 | 2724 | .50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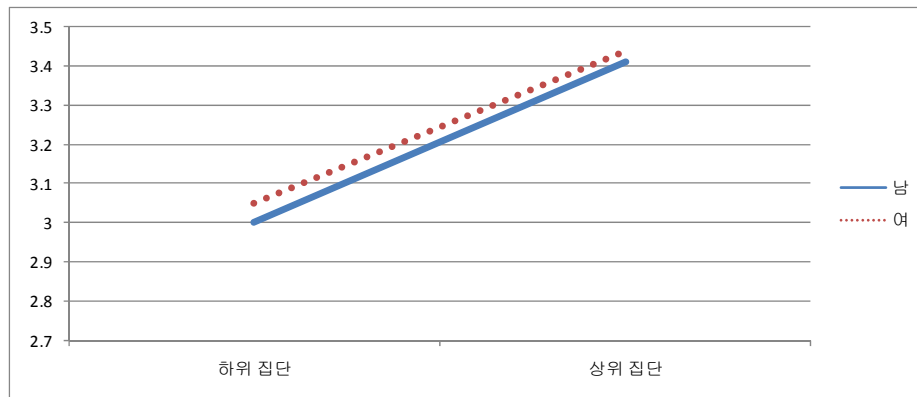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3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41(0.55) | 3.00(0.56) | 3.44(0.47) | 3.05(0.50)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367.961$, $p=.000$)과 성별($F=4.411$, $p=.036$)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82$, $p=.59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표 III-13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101.040 | 1 | 101.040 | 367.961*** | .000 |
| 성별 | 1.211 | 1 | 1.211 | 4.411* | .036 |
| 학교내(인식)*성별 | .077 | 1 | .077 | .282 | .596 |
| 오차 | 746.077 | 2717 | .27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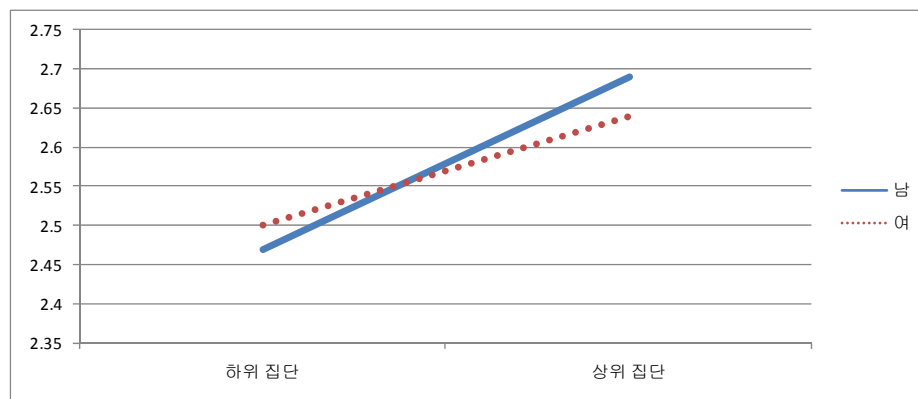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40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69(0.78) | 2.47(0.69) | 2.64(0.71) | 2.50(0.59)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43.761$,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128$, $p=.721$)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016$, $p=.1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법체계에 대한 신뢰

표 III-141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20.534 | 1 | 20.534 | 43.761*** | .000 |
| 성별 | .060 | 1 | .060 | .128 | .721 |
| 학교내(인식)*성별 | .946 | 1 | .946 | 2.016 | .156 |
| 오차 | 1276.820 | 2721 | .46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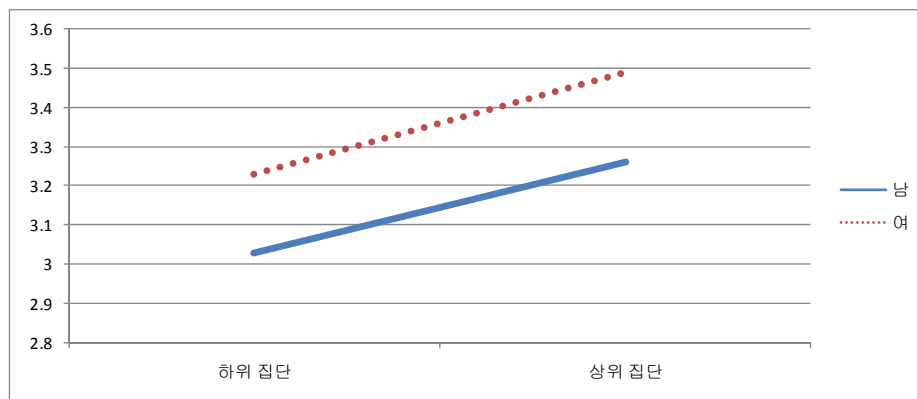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4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기술통계량

| 구분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3.26(0.73) | 3.03(0.64) | 3.49(0.54) | 3.23(0.53)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97.183$, $p=.000$)과 성별($F=74.07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651$, $p=.42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6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표 III-143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37.008 | 1 | 37.008 | 97.183*** | .000 |
| 성별 | 28.206 | 1 | 28.206 | 74.070*** | .000 |
| 학교내(인식)*성별 | .248 | 1 | .248 | .651 | .420 |
| 오차 | 1028.555 | 2701 | .38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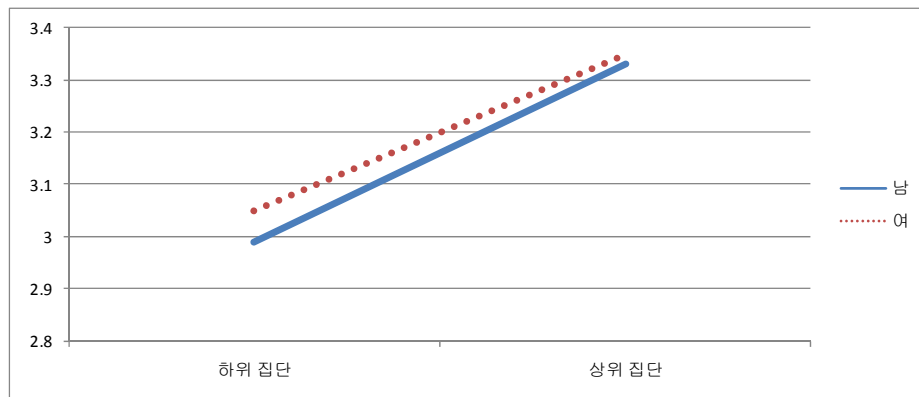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44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남 | | 여 | |
|---------------------------|------------|------------|------------|------------|
|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3.33(0.65) | 2.99(0.64) | 3.35(0.54) | 3.05(0.55)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173.788$,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F=2.125$, $p=.145$)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739$, $p=.39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70】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45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63.014 | 1 | 63.014 | 173.788*** | .000 |
| 성별 | .771 | 1 | .771 | 2.125 | .145 |
| 학교내(인식)*성별 | .268 | 1 | .268 | .739 | .390 |
| 오차 | 982.615 | 2710 | .36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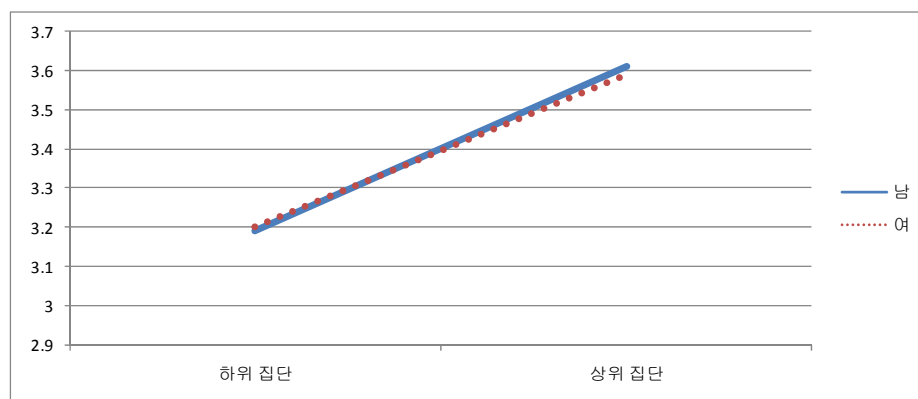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표 III-146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아시안 정체성 | 3.61(0.46) | 3.19(0.55) | 3.59(0.44) | 3.20(0.48)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421.610$,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F=.072$, $p=.789$)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971$, $p=.32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III-71】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아시안 정체성

표 III-147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102.558 | 1 | 102.558 | 421.610*** | .000 |
| 성별 | .017 | 1 | .017 | .072 | .789 |
| 학교내(인식)*성별 | .236 | 1 | .236 | .971 | .324 |
| 오차 | 659.704 | 2712 | .24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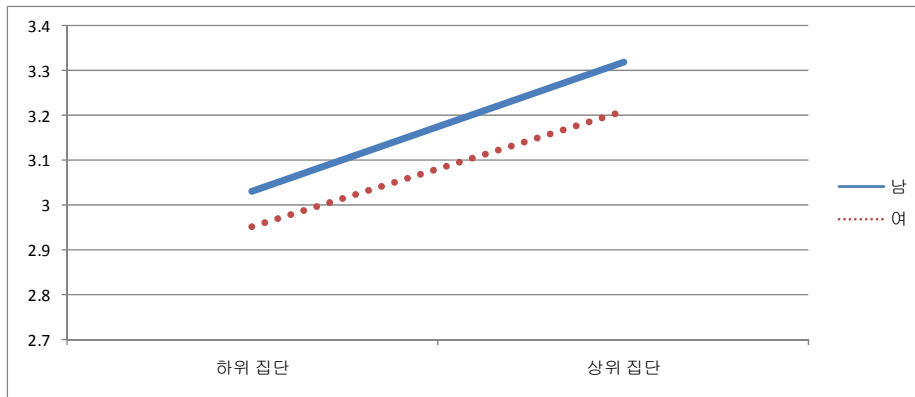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48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량

| 구분 | 남 | | 여 | |
|---------------------|------------|------------|------------|------------|
|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상위 집단 | 하위 집단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3.32(0.49) | 3.03(0.49) | 3.21(0.47) | 2.95(0.45) |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과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F=213.945$, $p=.000$)과 성별($F=24.190$,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956$, $p=.32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III-7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의 상호 작용: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표 III-149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학교내(학생인식) | 48.734 | 1 | 48.734 | 213.945*** | .000 |
| 성별 | 5.510 | 1 | 5.510 | 24.190*** | .000 |
| 학교내(인식)*성별 | .218 | 1 | .218 | .956 | .328 |
| 오차 | 616.387 | 2706 | .228 | | |

* $p<.05$ ** $p<.01$ *** $p<.001$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2009년과 2016년에 수집된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가 단순히 시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선 하위연구에서 설정한 관련 배경요인을 적용하여 시민의식 수준 차이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 검증

<표 III-150>에 제시된 2009년과 2016년 수집자료상의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평균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III-150 집단별 기술통계치 요약

| 변인 | 하위집단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평균차이 (B-A) |
|------------------|----------|-------|------|------|-------|---------------|
|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전체) | 2009년(A) | 5,127 | 3.06 | 0.28 | 0.004 | 0.03 |
| | 2016년(B) | 2,863 | 3.10 | 0.32 | 0.006 | |
| | 전체 | 7,990 | 3.08 | 0.29 | 0.003 | |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2009년(A) | 5,233 | 3.11 | 0.56 | 0.008 | -0.06 |
| | 2016년(B) | 2,963 | 3.05 | 0.73 | 0.013 | |
| | 전체 | 8,196 | 3.09 | 0.63 | 0.007 |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2009년(A) | 5,238 | 2.89 | 0.60 | 0.008 | -0.04 |
| | 2016년(B) | 2,967 | 2.85 | 0.72 | 0.013 | |
| | 전체 | 8,205 | 2.88 | 0.64 | 0.007 |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2009년(A) | 5,237 | 3.00 | 0.51 | 0.007 | 0.17 |
| | 2016년(B) | 2,960 | 3.17 | 0.55 | 0.010 | |
| | 전체 | 8,197 | 3.06 | 0.53 | 0.006 |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009년(A) | 5,241 | 2.69 | 0.45 | 0.006 | -0.12 |
| | 2016년(B) | 2,964 | 2.56 | 0.69 | 0.013 | |
| | 전체 | 8,205 | 2.64 | 0.55 | 0.006 |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2009년(A) | 5,219 | 3.20 | 0.50 | 0.007 | 0.01 |
| | 2016년(B) | 2,942 | 3.21 | 0.63 | 0.012 | |
| | 전체 | 8,161 | 3.21 | 0.55 | 0.006 | |

| 변인 | 하위집단 | N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평균차이 (B-A) |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2009년(A) | 5,226 | 3.17 | 0.50 | 0.007 | -0.04 |
| | 2016년(B) | 2,950 | 3.14 | 0.62 | 0.011 | |
| | 전체 | 8,176 | 3.16 | 0.55 | 0.006 | |
| 아시아 정체성 | 2009년(A) | 5,233 | 3.17 | 0.50 | 0.007 | 0.18 |
| | 2016년(B) | 2,954 | 3.35 | 0.53 | 0.010 | |
| | 전체 | 8,187 | 3.24 | 0.52 | 0.006 |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2009년(A) | 5,224 | 3.02 | 0.44 | 0.006 | 0.08 |
| | 2016년(B) | 2,949 | 3.09 | 0.50 | 0.009 | |
| | 전체 | 8,173 | 3.04 | 0.46 | 0.005 | |

(1) 시민의식 전체

2009년과 2016년 양 집단 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평균의 차이는 0.03(2009년: 3.07, 2016년: 3.10)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32$, $p=.000$). 이는 다소 미약하지만,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시간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1 집단 간 전체 시민의식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2.10 | 1 | 2.10 | 24.32*** | .000 |
| 집단 내 | 690.31 | 7,988 | 0.09 | | |
| 합계 | 692.41 | | | | |

* $p<.05$ ** $p<.01$ *** $p<.001$

(2)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하위요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8개 하위요인별로 단순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양 집단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6(2009년: 3.11, 2016년: 3.05)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다.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89$, $p=.00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보다 나은 결과 또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학생들의 허용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한 비민주적, 권위적 역할 수행을 덜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목적에 상관없이 정부의 민주적, 탈권위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III-152 집단 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6.28 | 1 | 6.28 | 15.89*** | .000 |
| 집단 내 | 3,240.57 | 8,194 | 0.40 | | |
| 합계 | 3,246.85 | | | | |

*p<.05 **p<.01 ***p<.001

(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양 집단 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는 0.04(2009년: 2.89, 2016년: 2.85)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85$, $p<.05$).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보다 부모, 교사, 기타 권위자의 의견이나 의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3 집단 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2.42 | 1 | 2.42 | 5.85* | .016 |
| 집단 내 | 3,384.78 | 8,203 | 0.41 | | |
| 합계 | 3,387.19 | | | | |

*p<.05 **p<.01 ***p<.001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양 집단 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17(2009년: 3.00, 2016년: 3.17)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9.37$, $p=.000$).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보존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4 집단 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55.32 | 1 | 55.32 | 199.37*** | .000 |
| 집단 내 | 2,273.86 | 8,195 | 0.28 | | |
| 합계 | 2,329.18 | | | | |

*p<.05 **p<.01 ***p<.001

(5) 법체계에 대한 신뢰

양 집단 간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의 평균차이는 0.12(2009년: 2.69, 2016년: 2.56)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7.21$, $p=.000$).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5 집단 간 법체계에 대한 신뢰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29.16 | 1 | 29.16 | 97.21*** | .000 |
| 집단 내 | 2,460.44 | 8,203 | 0.30 | | |
| 합계 | 2,489.60 | | | | |

*p<.05 **p<.01 ***p<.001

(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양 집단 간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는 0.01(2009년: 3.20, 2016년: 3.21)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지만, 양 집단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32$, $p=.572$).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관련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6 집단 간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0.10 | 1 | 0.10 | 0.32 | 0.572 |
| 집단 내 | 2,507.64 | 8,159 | 0.31 | | |
| 합계 | 2,507.74 | | | | |

*p<.05 **p<.01 ***p<.001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양 집단 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4(2009년: 3.17, 2016년: 3.14)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57$, $p=.003$).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추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7 집단 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2.56 | 1 | 2.56 | 8.57** | .003 |
| 집단 내 | 2,439.63 | 8,174 | 0.30 | | |
| 합계 | 2,442.19 | | | | |

* $p<.05$ ** $p<.01$ *** $p<.001$

(8) 아시안 정체성

양 집단 간 아시안 정체성 수준의 평균차이는 0.18(2009년: 3.17, 2016년: 3.35)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1.17$, $p=.000$).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추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8 집단 간 아시안 정체성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58.10 | 1 | 58.10 | 221.17*** | .000 |
| 집단 내 | 2,150.14 | 8,185 | 0.26 | | |
| 합계 | 2,208.24 | | | | |

* $p<.05$ ** $p<.01$ *** $p<.001$

(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양 집단 간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8(2009년: 3.02, 2016년: 3.09)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3.70$, $p=.000$).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추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바람직한 시민의 핵심요건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59 집단 간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 검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집단 간 | 11.313 | 1 | 11.31 | 53.70 | 0.000 |
| 집단 내 | 1,721.46 | 8,171 | 0.21 | | |
| 합계 | 1,732.78 | | | | |

*p<.05 **p<.01 ***p<.001

2)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

앞선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검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계열적 평균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관련 배경요인<표 III-5 참조>을 잠재적인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2009년도와 2016년도의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앞서 제시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가 응답자의 성별 요인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요인의 변량을 통제하고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II-160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성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1.967 | 1 | 1.967 | 23.09***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6.963 | 1 | 6.963 | 18.07*** | .000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2.340 | 1 | 2.340 | 5.77* | .016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3.580 | 1 | 53.580 | 193.93***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9.788 | 1 | 29.788 | 99.59**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045 | 1 | 0.045 | 0.15 | .699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2.467 | 1 | 2.467 | 8.31** | .004 |
| 아시안 정체성 | 56.341 | 1 | 56.341 | 214.99***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0.765 | 1 | 10.765 | 51.38*** | .000 |

*p<.05 **p<.01 ***p<.001

성별요인을 통제하고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 검증결과와 앞서 제시된 집단간 시민의식 수준의 단순 평균차이 검증결과<표 III-160 참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앞선 단순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2009년과 2016년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별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식 수준상의 시계열적 차이가 성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응답자 기대학력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기대학력의 변량을 통제하고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II-161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응답자 기대학력)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3.314 | 1 | 3.314 | 40.48***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3.280 | 1 | 3.280 | 8.59** | .003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0.552 | 1 | 0.552 | 1.38 | .241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6.695 | 1 | 56.695 | 206.10***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31.467 | 1 | 31.467 | 105.42***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993 | 1 | 0.993 | 3.38 | .066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298 | 1 | 1.298 | 4.47* | .035 |
| 아시안 정체성 | 61.506 | 1 | 61.506 | 238.88***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0.481 | 1 | 10.481 | 50.10*** | .000 |

*p<.05 **p<.01 ***p<.001

<표 III-1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기대학력 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는 그 수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75$, $p=.241$). 이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F=5.85$, $p=.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집단 간 평균차이는 순수히 2009년과 2016년간의 시계열적 차이이기 보다는 최소한 각 집단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각

집단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은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상의 집단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부모의 학력수준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에 대한 부모의 학력수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 수준을 통제한 후,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2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부모의 학력)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0.852 | 1 | 0.852 | 9.98** | .002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10.989 | 1 | 10.989 | 28.41*** | .000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4.726 | 1 | 4.726 | 11.56** | .001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0.172 | 1 | 50.172 | 182.68***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2.603 | 1 | 22.603 | 75.86***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230 | 1 | 0.230 | 0.76 | .383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4.160 | 1 | 4.160 | 14.16*** | .000 |
| 아시아인 정체성 | 46.155 | 1 | 46.155 | 176.70***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7.341 | 1 | 7.341 | 35.13*** | .000 |

*p<.05 **p<.01 ***p<.001

<표 III-1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수준은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집단간 시민의식의 단순 평균차이 검증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집단 간 존재하는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를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학생들의 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2009년도와 2016년도 간에 존재하는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집단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통제하고 집단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3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0.994 | 1 | 0.994 | 11.96** | .001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7.062 | 1 | 7.062 | 18.18*** | .000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261 | 1 | 2.261 | 5.49* | .019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43.805 | 1 | 43.805 | 162.83***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31.171 | 1 | 31.171 | 103.89***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034 | 1 | 0.034 | 0.11 | .737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4.912 | 1 | 4.912 | 16.78*** | .000 |
| 아시안 정체성 | 43.073 | 1 | 43.073 | 169.01***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7.237 | 1 | 7.237 | 34.92*** | .000 |

*p<.05 **p<.01 ***p<.001

<표 III-1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통제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학교 밖 활동으로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이 집단 간에 존재하는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 활동 수준을 통제 한 후, 집단 간 시민의식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4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2.356 | 1 | 2.356 | 28.45***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5.239 | 1 | 5.239 | 13.41*** | .000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040 | 1 | 2.040 | 4.98* | .026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56.115 | 1 | 56.115 | 212.07***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9.034 | 1 | 29.034 | 97.21***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285 | 1 | 0.285 | 0.95 | .330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2.498 | 1 | 2.498 | 8.60** | .003 |
| 아시안 정체성 | 56.639 | 1 | 56.639 | 221.27***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10.797 | 1 | 10.797 | 52.13*** | .000 |

*p<.05 **p<.01 ***p<.001

<표 III-1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밖 활동으로서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수준을 통제한 조건에서의 집단 간 시민의식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통제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09년도와 2016년도 간에 존재하는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가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6) 집단 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학교 밖 활동으로서 응답자의 집단 활동 참여 수준이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활동 참여 수준을 통제한 조건에서 집단간 시민의식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5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1.255 | 1 | 1.255 | 14.62***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3.179 | 1 | 3.179 | 8.12** | .004 |
|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0.285 | 1 | 0.285 | 0.70 | .404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31.671 | 1 | 31.671 | 115.63***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28.683 | 1 | 28.683 | 96.24***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435 | 1 | 0.435 | 1.44 | .231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5.504 | 1 | 5.504 | 18.49*** | .000 |
| 아시아 정체성 | 39.017 | 1 | 39.017 | 149.17***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6.888 | 1 | 6.888 | 32.74*** | .000 |

*p<.05 **p<.01 ***p<.001

<표 III-1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수준 통제 조건에서의 집단간 시민의식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수준은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단순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85$, $p=.016$)를 보였으나, 응답자의 집단활동 참여 수준을 통제했을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05$, $p=.307$). 이는 집단간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가 응답자의 집단 활동 참여 수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측정년도와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 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이원 변량분석의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표 III-166 측정년도와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A) | 0.431 | 1 | 0.431 | 1.05 | .307 |
| 이슈공유활동(B) | 4.685 | 1 | 4.685 | 11.36 | .001 |
| A*B | 0.405 | 1 | 0.405 | 0.98 | .322 |
| 오차 | 2354.528 | 5707 | 0.413 | | |

*p<.05 **p<.01 ***p<.001

<표 III-1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민의식 측정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고,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 활동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국, 2009년도와 2016년間に 존재하는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평균 차이는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 활동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교실개방성이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실개방성을 통제한 후,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7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교실개방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1.870 | 1 | 1.870 | 21.64***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5.260 | 1 | 5.260 | 13.42*** | .000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1.190 | 1 | 1.190 | 2.90 | .089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46.344 | 1 | 46.344 | 167.18***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19.531 | 1 | 19.531 | 65.21***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313 | 1 | 0.313 | 1.03 | .310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617 | 1 | 1.617 | 5.43* | .020 |
| 아시안 정체성 | 38.607 | 1 | 38.607 | 146.87***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9.631 | 1 | 9.631 | 45.81*** | .000 |

*p<.05 **p<.01 ***p<.001

<표 III-1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실개방성 통제 조건하에서의 집단간 평균차이분석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의 집단간 평균차이분석과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은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단순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85$, $p=.016$)를 보였으나, 교실개방성을 통제했을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90$, $p=.089$). 이는 집단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가 교실개방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심층적으로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년도와 교실개방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68 측정년도와 교실개방성에 따른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A) | 0.732 | 1 | 0.732 | 1.66 | .197 |
| 교실개방성(B) | 0.566 | 1 | 0.566 | 1.29 | .257 |
| A*B | 2.474 | 1 | 2.474 | 5.62* | .018 |
| 오차 | 1933.842 | 4394 | 0.440 | | |

* $p<.05$ ** $p<.01$ *** $p<.001$

<표 III-1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에 대한 교실개방성일 독립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F=1.29$, $p=.257$)으나, 측정년도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F=5.62$, $p=.018$).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실개방성 상위집단의 2009년도와 2016년도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두드러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에 대한 교실개방성의 독립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양 측정년도에 걸친 교실개방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평균차이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교실개방성 상위집단의 경우,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5.30$, $p=.021$), 교실개방성 하위집단은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0.83$, $p=.362$). 따라서, 부분적으로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는 교실개방성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가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요인을 통제하고 집단간 시민의식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II-169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2.618 | 1 | 2.618 | 31.75*** | .00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8.873 | 1 | 8.873 | 22.70*** | .000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4.945 | 1 | 4.945 | 12.21*** | .000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1.089 | 1 | 1.089 | 4.12* | .043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84.181 | 1 | 84.181 | 290.26***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600 | 1 | 0.600 | 1.98 | .160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25.745 | 1 | 25.745 | 88.49*** | .000 |
| 아시안 정체성 | 0.124 | 1 | 0.124 | 0.50 | .479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0.424 | 1 | 0.424 | 2.06 | .151 |

*p<.05 **p<.01 ***p<.001

<표 III-169>는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 년도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수준을 통제하였을 경우, ‘아시안 정체성’(F=0.50, p=.479) 및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F=2.06, p=.15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이 해당 요인의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170>과 <표 III-17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이 미치는 ‘아시안 정체성’(F=321.97, p=.000)과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F=145.49, p=.000)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2009년도와 2016년도 간 존재하는

‘아시안 정체성’ 및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70 측정년도와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에 따른 아시안 정체성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A) | 1.218 | 1 | 1.218 | 4.61* | .032 |
| 학생지지(B) | 85.099 | 1 | 85.099 | 321.97*** | .000 |
| A*B | 0.010 | 1 | 0.010 | 0.04 | .847 |
| 오차 | 1215.811 | 4600 | 0.264 | | |

*p<.05 **p<.01 ***p<.001

표 III-171 측정년도와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A) | 0.133 | 1 | 0.133 | 0.59 | .443 |
| 학생지지(B) | 32.964 | 1 | 32.964 | 145.49*** | .000 |
| A*B | 0.083 | 1 | 0.083 | 0.37 | .544 |
| 오차 | 1042.253 | 4600 | 0.227 | | |

*p<.05 **p<.01 ***p<.001

(9)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학교 내 활동) 인식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이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요인을 통제한 후,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II-172 집단 간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통제변인: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시민의식 전체 | 0.014 | 1 | 0.014 | 0.18 | .670 |
|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 10.355 | 1 | 10.355 | 26.65*** | .000 |
|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2.168 | 1 | 2.168 | 5.27* | .022 |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23.841 | 1 | 23.841 | 94.69*** | .000 |
| 법체계에 대한 신뢰 | 41.983 | 1 | 41.983 | 142.70*** | .000 |
|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0.611 | 1 | 0.611 | 2.05 | .152 |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14.369 | 1 | 14.369 | 51.77*** | .000 |
| 아시안 정체성 | 23.595 | 1 | 23.595 | 100.34*** | .000 |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 2.543 | 1 | 2.543 | 12.75*** | .000 |

*p<.05 **p<.01 ***p<.001

<표 III-17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생의 학교내 활동 참여의 긍정적 인식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전체 시민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18$, $p=.670$). 이는 집단간 '전체 시민의식' 수준의 평균차이가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것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체 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 분석에서도 <표 III-173>과 같이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은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50.01$, $p=.000$).

표 III-173 측정년도와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A) | 0.707 | 1 | 0.707 | 9.43 | .002** |
| 학생지지(B) | 93.743 | 1 | 93.743 | 1,250.01 | .000*** |
| A*B | 0.558 | 1 | 0.558 | 7.44 | .006** |
| 오차 | 542.957 | 7240 | 0.075 | | |

*p<.05 **p<.01 ***p<.001

제 IV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 IV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ICCS 2009와 ICCS 2016 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기반하여 2016년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을 분석하였으며 2009년과 2016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중점별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은 ICCS에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 모듈(Asian Regional Module, ARM)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수집된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구성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ARM의 구성틀(3개의 개념범주와 2개의 개념준거)에 입각하여 해석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8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은 8개의 개념적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법체계에 대한 신뢰’,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아시안 정체성’,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8개 요인이 통합되어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도구로 사용된 ARM은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8요인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11개 문항이 제외되고 총 44개 문항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둘째, 2016년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이 배경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성별, 응답자의 기대학력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활동(이슈 공유활동/집단활동 참여),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요인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기타 배경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

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의 경우에는 일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시민의식 수준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는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의식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실개방성이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의 경우, 성별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요인이 주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의 경우에는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슈 공유활동 정도가 클수록 여학생이 권위에 대한 복종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반대로 남학생은 강화되는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요인이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요인에서 성별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유효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은 성별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정도가 큰 여학생일수록 공공관련 부정행위를 남학생보다 덜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시아 정체성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 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의 경우,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아시아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교실개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2009년도와 2016년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간의 차이를 배경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전체 시민의식은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전(2009년)에 비해 오늘날(2016년)의 한국 청소년들은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고, 권위에 덜 복종적이며,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낮으며, 아시아 지역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바람직한 시민의 핵심요건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라기 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 상의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도와 2016년도간에 존재하는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개인특성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밖/내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특성요인으로 성별과 기대학력 수준을 설정하였는데, 성별요인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의 경우,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늘날의 청소년이 본인이 기대하는 최종 학력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최소한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를 약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설정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활동요인으로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을 학교 내 활동요인으로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은 권위주의의 복종적 태도상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써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실개방성 또한,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교실내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이 증가하고 학생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는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은 아시안 정체성과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 비해 교사가 학생들을 더 공정하고 지원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시민의 요건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이 시민의식 전체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9년과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를 통해 지난 수 년간 정부 체제의 변화 경험에 주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의식이 훨씬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제도 변화, 학교 내 활동 설계,

실제 추진 가능한 역할 정립과 인프라 지원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Schulz et al.(2010)은 학교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청소년은 그들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얻고 의식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점을 지지하고 있다. 학교내 활동, 즉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방적인 교실 분위기,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적 태도, 그리고 학생이 느끼는 학교활동 참여의 유의성은 전반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시민성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과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사차원에서는 교실내에서 학생들이 탈권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시민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 범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학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채널과 형태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한다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시민의식 수준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선순환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은 환경운동 단체, 인권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여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그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슈들을 깊이있게 다루므로써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내 활동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시민의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일부 요인이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에 유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결과이다.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환경적 관점에서 탐색적, 검증적인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

여 청소년 시민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고 바람직한 시민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ICCS 2016 ARM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즉, 현재 ICCS 2016의 전체 국가 조사 자료는 IEA 본부에서 수합하였지만, 본 조사 항목과는 별도로 아시아 지역 모듈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이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홍콩)의 완전한 자료 통합이 2017년 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3개국 자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비교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안 정체성과 같은 하위 요인의 경우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변화 정도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혜, 양승실, 유성상, 박현정(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구정화(2010). 초등학생의 논쟁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1), 1-13.
- 김왕근(1995). 특집 2: 개혁·세계화·민주시민교육; 시민성의 두 측면-형식으로 보는 관점과 내용으로 보는 관점. **시민교육연구**, 20(단일호), 61-72.
- 김영숙, 정복례(2007).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2), 310-319.
- 김정화, 박선훈, & 조상미(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태완(2013). **글로벌 시대의 교육**. 서울: 학지사
- 김태준 & 장근영(2010).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자본.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3), 61-79.
- 김태준 & 백선희(2014a).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253.
- 김태준, 백선희, 홍영란, 류성창, & 장근영 (2014b).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제비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설규주, 조영하, 이기홍, 한승희, 김정민, & 박정애(2011). 세계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사점. **한국 HRD 연구**, 6, 25-41.
- 김태준, 홍영란, 류성창, 이광현 & 장근영(2012). OECD 장기적 국제 협력 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오민아, & 이은경(2015a).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시민·사회적 참여 유형 비교. **비교교육연구**, 25, 321-348.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b).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EA ICCS-청소년의**

-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경환, 김명정, & 송성민(2010). 연구논문: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 박윤경, 이승연(2015). 초·중·고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이슈 및 토론 관련 인식 조사: 학교 시민 교육에의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7(2), 53-84.
- 손경애, 이혁규, 옥일남, 박윤경(2010).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 서운석(2014). 청소년의 나라사랑의식 국가 간 비교: 한,미,일,중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3(2), pp. 105-133.
- 성은모 & 최창욱(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 진성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신인순, 김옥순(2010).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7, 5-36.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이광현, & 권용재(2013). 한국, 대만, 홍콩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3, 131-152.
- 이봉민(2013). 청소년의 정치적 성향 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 참여 의사의 차이. **시민청소년학연구**, 4(2), pp. 51-78.
- 이용교 & 이중섭(2010). 연구논문: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채식(2009). 청소년의 지역사회경찰 인식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4, 105-121.
- 이형진(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1), 183-208.
- 임정재, 강정한, 김상돈(2011).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2(2), 37-67.
- 장근영(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IEA ICCS 초, 중, 고등학생용 기초통계**

- 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애 & 김용미(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 조영하, 김태준(2010). IEA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비교 연구: ARM 예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3), 189-217.
- Boseovski, J. J. (2010). Evidence of "rose-colored glasses": An examination of the positivity bias in young children's personality judgment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3), 212-218.
- Borsboom, D.(2006). When does measurement invariance matter? *Medical Care*, 44, 176-181.
- Fraillon, J., Schulz, W., & Ainley, J. (2012). ICCS 2009 Asian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five Asian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Glavenau, V. P.(2010). Principles for a cultural psychology of creativity. *Culture & Psychology*, 16(2), 147-163.
- Hanna, s.(2005). Where creativity comes from: The social spaces of embodied minds. *Proceedings of HI '05 Computational and Cognitive Models of Creative Design*, 45-70.
- Heckman, J. J & Stixrud, J. & Urzua, S.(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411-482.
- Helve, H. & Bynner, J. (2008). Youth and Social Capital: Introduction. in Helve, H. and Bynner, J. (eds), *Youth and social capital*, UK: The Tufnell Press
- Lauglo, J., & Oia, T.(2007).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Review of Research and a Study on Norwegian Youth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2. OECD Publishing(NJ1).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06).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Paris: OECD.
- Roth, W.-M., Oliveri, M. E., Sandilands, D., Lyons-Thomas, J., & Ercikan, K. (2013). Investigating sources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using expert think-aloud protocol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5, 546-576.

- Schulz, W., Ainl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 Fraillon, J. (2011). IEA civic education study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hissen, D. (2001). IRTLRDIF. Version 2.0b: Software for the computation of statistics involved in item response theory likelihood - ratio tests for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Weissberg, R. P. (2007). Advances in SEL research.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1), 1-8.

부 록

부록1. 측정도구

부록2. 문항별 응답 결과

부록 1. 측정 도구



[Placeholder for identification label]
(105 x 35 mm)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국제 시민 및 시민의식 교육 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16

학생설문지

본조사 버전
[한국어]

Copyright © IEA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Study Consortiu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The Netherlands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 Australia

Laboratorio di Pedagogia Sperimentale (LPS), Roma Tre University, Italy

IEA Data Processing and Research Center (IEA DPC), Germany

1. 학생 설문지 소개

이 설문지에서 여러분은:

-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 여러분의 교내외 활동,
- 다양한 정치·사회적 사안

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에 대한 질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최대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에서, 여러분은 주로 상자에 v 표를 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지에는 짧은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항도 일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자에 v 표를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의 오답에 줄을 긋거나 지운 다음 올바른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다 잘못 작성한 경우 간단히 줄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이 설문지에는 정답 또는 오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안이 여러분에게 옳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취합되어 총계를 내고 평균 정보를 얻게 되므로 응답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일반사항

Q1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년도와 월을 쓰세요)

_____년 _____월

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 ☐ 1

남 ☐ 2

Q3 귀하는 최종적으로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닐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1

전문대학 졸업 ☐ 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3

중학교 졸업 혹은 중퇴 ☐ 4

3.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이 영역에서는 귀하의 가족과 귀하의 가정에 대한 질문들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 질문은 가정 및 부모님 또는 귀하를 돌보는 보호자(예를 들면 양부모)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다수인 경우,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 대해 다음 질문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Q3b 다음 중 당신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예 | 아니오 |
|-----------------------------|----------------------------|----------------------------|
| a) 어머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b) 여성 보호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c) 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d) 남성 보호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e) 형제 자매 (이복 형제 및 자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f)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 g) 기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Q4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본인 |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 | 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 |
|------------------|----------------------------|----------------------------|----------------------------|
| 대한민국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1 |
| 미주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2 |
| 유럽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3 |
| 아시아(한국 제외)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4 |
| 오세아니아 | <input type="checkbox"/> 5 | <input type="checkbox"/> 5 | <input type="checkbox"/> 5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6 | <input type="checkbox"/> 6 | <input type="checkbox"/> 6 |

Q5 귀하는 집에서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를 골라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한국어 | <input type="checkbox"/> 1 |
| 영어 | <input type="checkbox"/> 2 |
| 중국어/일본어 | <input type="checkbox"/> 3 |
| 프랑스어 | <input type="checkbox"/> 4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5 |

Q6 귀하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a**

(예: 교사, 주방 보조, 영업부 부장)

현재 직업이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가지셨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적어 주세요.

Q7 귀하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어떠한 박스에 체크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조사담당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4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input type="checkbox"/> | 1 |
| 전문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 2 |
|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input type="checkbox"/> | 3 |
| 중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 4 |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5 |

Q8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a**

(예: 교사, 주방 보조, 영업부 부장)

현재 직업이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가지셨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적어주세요.

Q6 귀하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는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b**

(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 식당에서 요리사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신다, 영업부 관리를 하신다)

예전 직장에서 하셨거나 현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완성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Q8b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는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신다, 음식점에서 요리사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신다, 영업부 관리를 하신다)

예전 직장에서 하셨거나 현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완성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Q9 귀하의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어떠한 박스에 체크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조사담당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input type="checkbox"/> | 1 |
| 전문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 2 |
|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 <input type="checkbox"/> | 3 |
| 중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 4 |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5 |

Q10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매우
관심있음 | 대체로
관심있음 | 별로
관심없음 | 전혀
관심없음 |
|-------------------------|----------------------------|----------------------------|----------------------------|----------------------------|
| a' 나(본인)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11 귀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 거의 없다(10 권 이내) ☐ 1
책꽂이 한칸 분량 (11-25 권 정도) ☐ 2
책장 하나 분량 (26-100 권 정도) ☐ 3
책장 두개 분량 (101-200 권 정도) ☐ 4
책장 세개 이상 (200 권 이상) ☐ 5

Q12 일반적으로 다음에 제시된 기기 중 귀하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해당란에 √ 표 하여주세요)

| | 없음 | 한 대 | 두 대 | 세 대 이상 |
|--|--------------------------|--------------------------|--------------------------|--------------------------|
| a) 데스크톱 컴퓨터나 휴대용 컴퓨터 (랩톱, 노트북, 넷북)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b) 태블릿 장치 또는 전자책 리더기 (예: 아이패드 혹은 킨들, 아이리버 K 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c)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 (예: 스마트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Q13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 1
아니오 ☐ 2

4. 학교 밖 활동

Q14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전혀 하지 않음 | 최소 한 달에 한 번 | 최소 일주일 에 한 번 | 매일 (거의 매일) |
|---|----------------------------|----------------------------|----------------------------|----------------------------|
| a)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15 귀하는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 |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 1년 이전에 활동하였음 | 전혀 활동한적 없음 |
|---|----------------------------|----------------------------|----------------------------|
| a) 청소년 정당 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b)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c) 인권운동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d) 자원봉사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e) 기부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f) 청소년 캠페인 활동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g) 동물 권리 및 복지 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h) 종교단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i)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 (예: 보이/걸 스카우트, YMCA)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j) 스포츠 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5. 학교

Q16 귀하는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이후 귀하가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 | 지난 1년 동안 활동했음 | 1년 전에 활동했음 | 전혀 활동한 적 없음 |
|--|----------------------------|----------------------------|----------------------------|
| a)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b) 학급임원 혹은 학생회의 후보자에게 투표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c)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d) 학생회의 토론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e) 학급임원 이나 학생회의 후보자로 출마 ...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f)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g)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활동에 자발적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Q17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전혀 일어나지 않음 |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
|--|----------------------------|----------------------------|----------------------------|----------------------------|
| a)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18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배웁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많이 배움 | 어느 정도 배움 | 조금 배움 | 전혀 배우지 않음 |
|--|----------------------------|----------------------------|----------------------------|----------------------------|
| a)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한국에서 법률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방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예: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지역 사회에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이슈 및 사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19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해 주세요.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우리 학교 학생은 대부분 서로를 존중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우리 학교 학생은 대부분 서로 사이 좋게 지낸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20 지난 3 개월 동안 귀하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 | 전혀 발생하지 않음 | 한 번 | 2-4 번 | 5 번 이상 |
|--|----------------------------|----------------------------|----------------------------|----------------------------|
| a) 어느 학생이 기분 나쁜 별명으로 나를 불렀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어느 학생이 나에게 대해 말한 내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어느 학생이 나를 해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어느 학생이 고의로 내 소유물을 망가뜨렸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어느 학생이 인터넷에 나에게 대한 모욕적인 그림이나 글을 올렸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21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학생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6. 시민과 사회

Q22 아래의 내용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이롭게 하고 강화시키지만, 일부는 민주주의를 해롭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또 이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이롭게 하지도 또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이로운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민주주의에 이롭다 | 민주주의에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 민주주의에 해롭다 |
|--|----------------------------|-----------------------------|----------------------------|
| a)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b) 한 회사나 정부가 나라의 모든 신문사를 소유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c)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d) 성인이라면 모두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e) 사람들이 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f) 경찰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g)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수입 격차가 적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h)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 i) 국가의 모든 인종/민족 집단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Q23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별도 | | | |
|--|----------------------------|----------------------------|----------------------------|----------------------------|
| | 매우 중요함 | 상당히 중요함 | 중요하지 않음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a) 모든 선거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정당단체 가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역사 학습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식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정치 토론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지역 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인권증진운동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환경보호운동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k) 열심히 일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l) 항상 법을 준수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m)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n)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o) 자신의 의견을 가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p)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q) 미개발 국가 국민 지원 활동 참여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7. 권리와 책임

Q24 사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25 여러 민족과 인종의 사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민족 집단 및 인종 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8. 기관과 사회

Q26 귀하는 다음의 단체, 기관 혹은 정보출처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신뢰함 | 상당히 신뢰함 | 약간 신뢰함 | 매우 불신함 |
|---------------------------------|----------------------------|----------------------------|----------------------------|----------------------------|
| a) 중앙 정부 부처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지방 자치 정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법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경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정당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국회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미디어 (TV, 언론사, 라디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소셜 미디어 (예: 트위터, 블로그 등)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군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학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k) 국제 연합 (UN)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l) 일반 대중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27 다음에 제시된 한국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태극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나는 한국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한국이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28 다음에 제시된 이슈들은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계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상당히 심각함 | 대체로 심각함 | 약간 심각함 | 전혀 심각하지 않음 |
|------------------------------|----------------------------|----------------------------|----------------------------|----------------------------|
| a) 오염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에너지 고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세계적 금융 위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범죄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물 부족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폭력적 갈등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빈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식량 부족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기후 변화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실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k) 인구 증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l) 전염병 (예: 조류 독감, 에이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m) 테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9. 사회 참여

Q29 다음의 활동 각각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바람직함 | 대체로 바람직함 | 대체로 바람직 하지 못함 | 전혀 바람직하 지 못함 |
|---|----------------------------|----------------------------|----------------------------|----------------------------|
| a)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주장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학교선거 후보자 출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집단 구성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논쟁이슈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신문사에 현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신으로 보내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연설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0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에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확실히 참여함 | 아마도 참여함 | 아마도 참여하지 못함 | 확실히 참여하지 못함 |
|--|----------------------------|----------------------------|----------------------------|----------------------------|
| a)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선출직 공무원과 접촉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평화 행진이나 집회 참여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진정서 서명 모으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참여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온라인 단체 조직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사회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예: 공정 무역 상품, 윤리적 기업 제품) 구매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항의 표시로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어를 쓰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도로 봉쇄하고 시위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k) 항의 표시로 공공 건물 점거하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1 아래의 내용은 성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생각입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확실히 참여함 | 아마도 참여함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
|---|----------------------------|----------------------------|----------------------------|----------------------------|
| a) 지역수준에서의 투표 (예: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등)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국가수준에서의 투표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정당 가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노조 가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지방 선거 후보자 출마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사회적/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가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물 절약)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2 아래의 내용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귀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많음 | 많음 | 별로 없음 | 전혀 없음 |
|--|----------------------------|----------------------------|----------------------------|----------------------------|
| a)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내가 찬성하는 이슈를 위해 학생운동 단체에 가입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학생회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학교 신문이나 웹사이트의 기사 작성에 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10. 자신과 종교

Q33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종교없음 | <input type="checkbox"/> | 1 |
| 불교 | <input type="checkbox"/> | 2 |
| 개신교(기독교) | <input type="checkbox"/> | 3 |
| 천주교(가톨릭) | <input type="checkbox"/> | 4 |
| 기타 종교 | <input type="checkbox"/> | 5 |

Q34 귀하는 어느 정도 종교 행사에 참여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 | |
|-------------------------|--------------------------|---|
| 전혀 참여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1 |
| 1 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2 |
| 1 년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input type="checkbox"/> | 3 |
|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input type="checkbox"/> | 4 |
| 1 주일에 최소한 한 번 참여함 | <input type="checkbox"/> | 5 |

Q35 귀하는 다음의 종교 관련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종교는 나에게 국가 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종교는 나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종교 지도자는 더 많은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종교에 기초한 삶의 규칙은 국내법보다 더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종교 생활을 실천할 자유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종교인들은 더 좋은 시민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11. 아시아 지역 국가

Q36 자국정부의 역할에 관한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시민을 돌보아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시민의 종교심 또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7 사회에서 행동을 잘하는 것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도 참아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동급생이나 직장동료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8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39 자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우리나라에서...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정치인들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40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41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아시아 국가들은 EU 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 를 발달시켜야 한다. ...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h)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i)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자랑스러워 할 것이 더 많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j) 아시아의 몇몇 국가가 전체 아시아 사회의 발달을 결정 지을 것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k)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l)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42 좋은 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f)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g)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Q43 선거 또는 다른 공사들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긍정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 매우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a)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b)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c)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d)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 e)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문항별 응답 결과

표 부록-1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039 | 1 | 2.039 | 23.939*** | .000 |
| 성별 | 8.353 | 1 | 8.353 | 98.065*** | .000 |
| 측정년도*성별 | .126 | 1 | .126 | 1.479 | .224 |
| 오차 | 678.611 | 7967 | .085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2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852 | 1 | 5.852 | 15.167*** | .000 |
| 성별 | 81.154 | 1 | 81.154 | 210.322*** | .000 |
| 측정년도*성별 | 10.670 | 1 | 10.670 | 27.653*** | .000 |
| 오차 | 3152.845 | 8171 | .386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3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393 | 1 | 2.393 | 5.879* | .015 |
| 성별 | 41.061 | 1 | 41.061 | 100.887*** | .000 |
| 측정년도*성별 | .822 | 1 | .822 | 2.020 | .155 |
| 오차 | 3329.227 | 8180 | .407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4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2.942 | 1 | 52.942 | 191.694*** | .000 |
| 성별 | 5.079 | 1 | 5.079 | 18.392*** | .000 |
| 측정년도*성별 | .312 | 1 | .312 | 1.130 | .288 |
| 오차 | 2256.940 | 8172 | .276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5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0.279 | 1 | 30.279 | 101.198*** | .000 |
| 성별 | .725 | 1 | .725 | 2.423 | .120 |
| 측정년도*성별 | 1.655 | 1 | 1.655 | 5.531* | .019 |
| 오차 | 2447.491 | 8180 | .299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6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80 | 1 | .080 | .265 | .606 |
| 성별 | 53.531 | 1 | 53.531 | 178.098*** | .000 |
| 측정년도*성별 | 2.318 | 1 | 2.318 | 7.713** | .005 |
| 오차 | 2445.452 | 8136 | .301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7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311 | 1 | 2.311 | 7.788** | .005 |
| 성별 | 1.976 | 1 | 1.976 | 6.657* | .010 |
| 측정년도*성별 | .001 | 1 | .001 | .004 | .949 |
| 오차 | 2419.256 | 8151 | .297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8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8.186 | 1 | 58.186 | 222.352*** | .000 |
| 성별 | .543 | 1 | .543 | 2.073 | .150 |
| 측정년도*성별 | .001 | 1 | .001 | .003 | .954 |
| 오차 | 2136.131 | 8163 | .262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9 측정 년도와 성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0.731 | 1 | 10.731 | 51.335*** | .000 |
| 성별 | 6.375 | 1 | 6.375 | 30.496*** | .000 |
| 측정년도*성별 | 2.704 | 1 | 2.704 | 12.935*** | .000 |
| 오차 | 1703.479 | 8149 | .209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10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297 | 1 | 1.297 | 15.862*** | .000 |
| 기대 학력 | 34.076 | 3 | 11.359 | 138.873***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336 | 3 | .112 | 1.367 | .251 |
| 오차 | 647.129 | 7912 | .082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11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90 | 1 | .590 | 1.540 | .215 |
| 기대 학력 | 94.795 | 3 | 31.598 | 82.499***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1.516 | 3 | .505 | 1.319 | .266 |
| 오차 | 3107.805 | 8114 | .383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12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54 | 1 | .454 | 1.129 | .288 |
| 기대 학력 | 65.528 | 3 | 21.843 | 54.277***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3.174 | 3 | 1.058 | 2.629* | .048 |
| 오차 | 3268.578 | 8122 | .402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13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8.975 | 1 | 8.975 | 32.640*** | .000 |
| 기대 학력 | 15.067 | 3 | 5.022 | 18.265***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314 | 3 | .105 | .381 | .767 |
| 오차 | 2231.078 | 8114 | .27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14**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703 | 1 | .703 | 2.355 | .125 |
| 기대 학력 | 8.184 | 3 | 2.728 | 9.145***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1.533 | 3 | .511 | 1.712 | .162 |
| 오차 | 2422.925 | 8122 | .298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15**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98 | 1 | .198 | .668 | .414 |
| 기대 학력 | 87.668 | 3 | 29.223 | 98.716***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3.870 | 3 | 1.290 | 4.358** | .004 |
| 오차 | 2391.613 | 8079 | .29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16**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99 | 1 | .499 | 1.718 | .190 |
| 기대 학력 | 48.868 | 3 | 16.289 | 56.077***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1.339 | 3 | .446 | 1.537 | .203 |
| 오차 | 2350.862 | 8093 | .290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17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2.074 | 1 | 12.074 | 47.074*** | .000 |
| 기대 학력 | 36.370 | 3 | 12.123 | 47.267***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2.859 | 3 | .953 | 3.715* | .011 |
| 오차 | 2079.046 | 8106 | .25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18** 측정 년도와 기대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442 | 1 | 5.442 | 26.041*** | .000 |
| 기대 학력 | 4.733 | 3 | 1.578 | 7.549*** | .000 |
| 측정년도*기대학력 | 2.817 | 3 | .939 | 4.493** | .004 |
| 오차 | 1691.213 | 8093 | .209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19**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18 | 1 | .118 | 1.390 | .238 |
| 부모 학력 | 6.822 | 4 | 1.706 | 20.023*** | .000 |
| 측정년도*부모학력 | 2.102 | 4 | .526 | 6.171*** | .000 |
| 오차 | 661.762 | 7769 | .08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0**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987 | 1 | .987 | 2.542 | .111 |
| 부모 학력 | 21.526 | 4 | 5.382 | 13.864*** | .000 |
| 측정년도*부모학력 | 7.172 | 4 | 1.793 | 4.619** | .001 |
| 오차 | 3092.242 | 7966 | .388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21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71 | 1 | .071 | .173 | .677 |
| 부모 학력 | 12.335 | 4 | 3.084 | 7.523*** | .000 |
| 측정년도*부모학력 | 3.297 | 4 | .824 | 2.011 | .090 |
| 오차 | 3268.103 | 7972 | .41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2**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679 | 1 | 2.679 | 9.769** | .002 |
| 부모 학력 | 2.728 | 4 | .682 | 2.486* | .041 |
| 측정년도*부모학력 | 1.372 | 4 | .343 | 1.251 | .287 |
| 오차 | 2184.438 | 7965 | .274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3**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709 | 1 | 2.709 | 9.093** | .003 |
| 부모 학력 | 5.871 | 4 | 1.468 | 4.926** | .001 |
| 측정년도*부모학력 | 1.364 | 4 | .341 | 1.144 | .334 |
| 오차 | 2375.185 | 7972 | .298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4**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42 | 1 | .042 | .140 | .708 |
| 부모 학력 | 23.116 | 4 | 5.779 | 19.062*** | .000 |
| 측정년도*부모학력 | 9.877 | 4 | 2.469 | 8.145*** | .000 |
| 오차 | 2404.409 | 7931 | .303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25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11 | 1 | .011 | .037 | .847 |
| 부모 학력 | 15.131 | 4 | 3.783 | 12.903*** | .000 |
| 측정년도*부모학력 | 3.214 | 4 | .804 | 2.741* | .027 |
| 오차 | 2329.207 | 7945 | .293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6**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623 | 1 | 4.623 | 17.716*** | .000 |
| 부모 학력 | 3.716 | 4 | .929 | 3.560** | .007 |
| 측정년도*부모학력 | .299 | 4 | .075 | .287 | .887 |
| 오차 | 2076.582 | 7958 | .261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7** 측정 년도와 부모 학력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36 | 1 | .236 | 1.130 | .288 |
| 부모 학력 | 3.829 | 4 | .957 | 4.584** | .001 |
| 측정년도*부모학력 | 1.818 | 4 | .454 | 2.176 | .069 |
| 오차 | 1658.987 | 7945 | .209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28**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933 | 1 | 1.933 | 23.122*** | .000 |
| 부모 관심 | 20.070 | 1 | 20.070 | 240.076***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789 | 1 | .789 | 9.432** | .002 |
| 오차 | 655.336 | 7839 | .084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29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823 | 1 | 4.823 | 12.332*** | .000 |
| 부모 관심 | 10.193 | 1 | 10.193 | 26.062***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268 | 1 | .268 | .686 | .408 |
| 오차 | 3144.820 | 8041 | .391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0**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473 | 1 | 2.473 | 5.992* | .014 |
| 부모 관심 | .712 | 1 | .712 | 1.726 | .189 |
| 측정년도*부모관심 | .079 | 1 | .079 | .192 | .661 |
| 오차 | 3321.503 | 8049 | .413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1**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0.710 | 1 | 50.710 | 187.739*** | .000 |
| 부모 관심 | 51.170 | 1 | 51.170 | 189.439***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3.736 | 1 | 3.736 | 13.830*** | .000 |
| 오차 | 2172.506 | 8043 | .27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2**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8.723 | 1 | 18.723 | 62.326*** | .000 |
| 부모 관심 | 1.831 | 1 | 1.831 | 6.095* | .014 |
| 측정년도*부모관심 | 2.371 | 1 | 2.371 | 7.893** | .005 |
| 오차 | 2417.929 | 8049 | .300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33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94 | 1 | .494 | 1.635 | .201 |
| 부모 관심 | 21.990 | 1 | 21.990 | 72.790***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2.070 | 1 | 2.070 | 6.851** | .009 |
| 오차 | 2418.579 | 8006 | .302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4**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473 | 1 | 2.473 | 8.413** | .004 |
| 부모 관심 | 29.269 | 1 | 29.269 | 99.583***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411 | 1 | .411 | 1.398 | .237 |
| 오차 | 2357.795 | 8022 | .294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5**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1.778 | 1 | 41.778 | 162.854*** | .000 |
| 부모 관심 | 42.967 | 1 | 42.967 | 167.487***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025 | 1 | .025 | .096 | .757 |
| 오차 | 2061.025 | 8034 | .257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6** 측정 년도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9.752 | 1 | 9.752 | 47.096*** | .000 |
| 부모 관심 | 21.967 | 1 | 21.967 | 106.094*** | .000 |
| 측정년도*부모관심 | 1.041 | 1 | 1.041 | 5.029* | .025 |
| 오차 | 1660.180 | 8018 | .207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37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326 | 1 | 1.326 | 15.455*** | .000 |
| 이슈공유 | 19.123 | 1 | 19.123 | 222.889***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000 | 1 | .000 | .001 | .972 |
| 오차 | 455.917 | 5314 | .08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8**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394 | 1 | 5.394 | 13.499*** | .000 |
| 이슈공유 | 14.972 | 1 | 14.972 | 37.468***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687 | 1 | .687 | 1.719 | .190 |
| 오차 | 2177.740 | 5450 | .40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39**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266 | 1 | 1.266 | 3.042 | .081 |
| 이슈공유 | .113 | 1 | .113 | .271 | .603 |
| 측정년도*이슈공유 | .007 | 1 | .007 | .017 | .895 |
| 오차 | 2268.664 | 5451 | .41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0**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3.213 | 1 | 33.213 | 119.190*** | .000 |
| 이슈공유 | 76.130 | 1 | 76.130 | 273.201***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292 | 1 | .292 | 1.049 | .306 |
| 오차 | 1518.414 | 5449 | .279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41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8.360 | 1 | 18.360 | 60.250*** | .000 |
| 이슈공유 | 1.164 | 1 | 1.164 | 3.818 | .051 |
| 측정년도*이슈공유 | .260 | 1 | .260 | .853 | .356 |
| 오차 | 1662.021 | 5454 | .30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2**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기관 부장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00 | 1 | .000 | .001 | .972 |
| 이슈공유 | 18.791 | 1 | 18.791 | 59.482***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033 | 1 | .033 | .103 | .748 |
| 오차 | 1712.223 | 5420 | .31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3**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의 도약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788 | 1 | 2.788 | 9.215** | .002 |
| 이슈공유 | 45.768 | 1 | 45.768 | 151.274***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454 | 1 | .454 | 1.500 | .221 |
| 오차 | 1642.829 | 5430 | .303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4**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아인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9.225 | 1 | 39.225 | 148.324*** | .000 |
| 이슈공유 | 37.804 | 1 | 37.804 | 142.953***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2.211 | 1 | 2.211 | 8.361** | .004 |
| 오차 | 1438.352 | 5439 | .264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45 측정 년도와 국제/정치/사회적 이슈공유(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른 시민상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9.039 | 1 | 9.039 | 42.609*** | .000 |
| 이슈공유 | 15.039 | 1 | 15.039 | 70.896*** | .000 |
| 측정년도*이슈공유 | .054 | 1 | .054 | .253 | .615 |
| 오차 | 1151.227 | 5427 | .212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6**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78 | 1 | .478 | 5.605* | .018 |
| 집단활동 | 3.356 | 1 | 3.356 | 39.345*** | .000 |
| 측정년도*집단활동 | .342 | 1 | .342 | 4.010* | .045 |
| 오차 | 473.820 | 5555 | .08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7**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344 | 1 | 3.344 | 8.408** | .004 |
| 집단활동 | .322 | 1 | .322 | .809 | .369 |
| 측정년도*집단활동 | .459 | 1 | .459 | 1.155 | .283 |
| 오차 | 2266.399 | 5699 | .398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48**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31 | 1 | .431 | 1.045 | .307 |
| 집단활동 | 4.685 | 1 | 4.685 | 11.356** | .001 |
| 측정년도*집단활동 | .405 | 1 | .405 | .981 | .322 |
| 오차 | 2354.528 | 5707 | .413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49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8.312 | 1 | 18.312 | 66.079*** | .000 |
| 집단활동 | 44.743 | 1 | 44.743 | 161.458*** | .000 |
| 측정년도*집단활동 | .002 | 1 | .002 | .007 | .934 |
| 오차 | 1580.114 | 5702 | .277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0**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7.850 | 1 | 17.850 | 59.781*** | .000 |
| 집단활동 | .009 | 1 | .009 | .029 | .865 |
| 측정년도*집단활동 | .063 | 1 | .063 | .212 | .645 |
| 오차 | 1703.174 | 5704 | .299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1**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03 | 1 | .003 | .011 | .918 |
| 집단활동 | .412 | 1 | .412 | 1.320 | .251 |
| 측정년도*집단활동 | 1.514 | 1 | 1.514 | 4.854* | .028 |
| 오차 | 1770.627 | 5678 | .312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2**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473 | 1 | 3.473 | 11.499** | .001 |
| 집단활동 | 10.637 | 1 | 10.637 | 35.219*** | .000 |
| 측정년도*집단활동 | 1.042 | 1 | 1.042 | 3.449 | .063 |
| 오차 | 1717.369 | 5686 | .302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53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2.816 | 1 | 22.816 | 86.485*** | .000 |
| 집단활동 | 18.010 | 1 | 18.010 | 68.270*** | .000 |
| 측정년도*집단활동 | .001 | 1 | .001 | .003 | .956 |
| 오차 | 1501.103 | 5690 | .264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4** 측정 년도와 집단활동 참여(학교 밖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958 | 1 | 5.958 | 27.948*** | .000 |
| 집단활동 | 2.056 | 1 | 2.056 | 9.644** | .002 |
| 측정년도*집단활동 | .196 | 1 | .196 | .918 | .338 |
| 오차 | 1210.413 | 5678 | .213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5**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643 | 1 | 3.643 | 39.437*** | .000 |
| 교실개방 | 1.879 | 1 | 1.879 | 20.340*** | .000 |
| 측정년도*교실개방 | 8.850 | 1 | 8.850 | 95.814*** | .000 |
| 오차 | 395.063 | 4277 | .092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6**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616 | 1 | 2.616 | 6.147* | .013 |
| 교실개방 | .051 | 1 | .051 | .120 | .729 |
| 측정년도*교실개방 | .022 | 1 | .022 | .051 | .821 |
| 오차 | 1868.216 | 4389 | .426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57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주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732 | 1 | .732 | 1.662 | .197 |
| 교실개방 | .566 | 1 | .566 | 1.286 | .257 |
| 측정년도*교실개방 | 2.474 | 1 | 2.474 | 5.622* | .018 |
| 오차 | 1933.842 | 4394 | .44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8**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2.177 | 1 | 42.177 | 141.901*** | .000 |
| 교실개방 | 5.363 | 1 | 5.363 | 18.043*** | .000 |
| 측정년도*교실개방 | 43.426 | 1 | 43.426 | 146.103*** | .000 |
| 오차 | 1303.948 | 4387 | .297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59**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6.470 | 1 | 6.470 | 19.926*** | .000 |
| 교실개방 | 2.162 | 1 | 2.162 | 6.659* | .010 |
| 측정년도*교실개방 | 16.154 | 1 | 16.154 | 49.746*** | .000 |
| 오차 | 1426.171 | 4392 | .32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60**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764 | 1 | 1.764 | 5.445* | .020 |
| 교실개방 | 3.256 | 1 | 3.256 | 10.050** | .002 |
| 측정년도*교실개방 | 2.541 | 1 | 2.541 | 7.844** | .005 |
| 오차 | 1415.531 | 4369 | .324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61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인의 도약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032 | 1 | .032 | .098 | .755 |
| 교실개방 | 1.740 | 1 | 1.740 | 5.232* | .022 |
| 측정년도*교실개방 | 7.995 | 1 | 7.995 | 24.045*** | .000 |
| 오차 | 1455.392 | 4377 | .333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62**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5.163 | 1 | 35.163 | 122.834*** | .000 |
| 교실개방 | .990 | 1 | .990 | 3.459 | .063 |
| 측정년도*교실개방 | 35.788 | 1 | 35.788 | 125.019*** | .000 |
| 오차 | 1254.120 | 4381 | .28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63** 측정 년도와 교실 개방성(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3.042 | 1 | 13.042 | 57.596*** | .000 |
| 교실개방 | 3.223 | 1 | 3.223 | 14.234*** | .000 |
| 측정년도*교실개방 | 12.055 | 1 | 12.055 | 53.235*** | .000 |
| 오차 | 990.225 | 4373 | .22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64**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의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07 | 1 | .307 | 3.517 | .061 |
| 학생지지 | 20.687 | 1 | 20.687 | 237.123***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142 | 1 | .142 | 1.627 | .202 |
| 오차 | 393.189 | 4507 | .087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65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331 | 1 | 4.331 | 10.202** | .001 |
| 학생지지 | 5.031 | 1 | 5.031 | 11.849** | .001 |
| 측정년도*학생지지 | .137 | 1 | .137 | .322 | .571 |
| 오차 | 1965.356 | 4629 | .425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6**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주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803 | 1 | 2.803 | 6.313* | .012 |
| 학생지지 | 20.979 | 1 | 20.979 | 47.245***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093 | 1 | .093 | .210 | .647 |
| 오차 | 2055.923 | 4630 | .444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7**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966 | 1 | 2.966 | 10.033** | .002 |
| 학생지지 | 52.323 | 1 | 52.323 | 177.008***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006 | 1 | .006 | .021 | .885 |
| 오차 | 1367.722 | 4627 | .296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8**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8.037 | 1 | 38.037 | 121.180*** | .000 |
| 학생지지 | 55.042 | 1 | 55.042 | 175.356***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14.395 | 1 | 14.395 | 45.859*** | .000 |
| 오차 | 1453.612 | 4631 | .314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9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79 | 1 | .179 | .560 | .454 |
| 학생지지 | 3.007 | 1 | 3.007 | 9.401** | .002 |
| 측정년도*학생지지 | .068 | 1 | .068 | .212 | .645 |
| 오차 | 1471.281 | 4600 | .32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0**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장학금의 도용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8.474 | 1 | 8.474 | 26.965*** | .000 |
| 학생지지 | 32.832 | 1 | 32.832 | 104.479***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122 | 1 | .122 | .387 | .534 |
| 오차 | 1450.867 | 4617 | .314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1**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안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193 | 1 | 1.193 | 4.511* | .034 |
| 학생지지 | 85.836 | 1 | 85.836 | 324.574***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004 | 1 | .004 | .016 | .900 |
| 오차 | 1222.584 | 4623 | .264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2**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자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올바른 시민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61 | 1 | .161 | .712 | .399 |
| 학생지지 | 33.023 | 1 | 33.023 | 145.752*** | .000 |
| 측정년도*학생지지 | .069 | 1 | .069 | .306 | .580 |
| 오차 | 1045.831 | 4616 | .227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73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체 시민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707 | 1 | .707 | 9.433** | .002 |
| 학생참여 | 93.743 | 1 | 93.743 | 1250.008***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558 | 1 | .558 | 7.442** | .006 |
| 오차 | 542.957 | 7240 | .07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4**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9.791 | 1 | 9.791 | 24.734*** | .000 |
| 학생참여 | 39.013 | 1 | 39.013 | 98.556***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687 | 1 | .687 | 1.735 | .188 |
| 오차 | 2942.684 | 7434 | .39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5**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5.040 | 1 | 5.040 | 12.122** | .001 |
| 학생참여 | 7.260 | 1 | 7.260 | 17.462***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2.172 | 1 | 2.172 | 5.224* | .022 |
| 오차 | 3092.323 | 7438 | .416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6**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5.556 | 1 | 45.556 | 175.587*** | .000 |
| 학생참여 | 171.979 | 1 | 171.979 | 662.860***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6.828 | 1 | 6.828 | 26.318*** | .000 |
| 오차 | 1927.714 | 7430 | .259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77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법체계에 대한 신뢰)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22.000 | 1 | 22.000 | 73.255*** | .000 |
| 학생참여 | 27.502 | 1 | 27.502 | 91.576***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3.895 | 1 | 3.895 | 12.969*** | .000 |
| 오차 | 2233.797 | 7438 | .300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8** 측정 년도와 교사의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150 | 1 | .150 | .501 | .479 |
| 학생참여 | 79.694 | 1 | 79.694 | 266.855***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017 | 1 | .017 | .056 | .813 |
| 오차 | 2209.047 | 7397 | .299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79**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4.009 | 1 | 4.009 | 14.050*** | .000 |
| 학생참여 | 145.215 | 1 | 145.215 | 508.868***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271 | 1 | .271 | .951 | .329 |
| 오차 | 2115.433 | 7413 | .285 | | |

* α .05, ** α .01, *** α .001**표 부록-80**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아시아인 정체성)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38.439 | 1 | 38.439 | 160.342*** | .000 |
| 학생참여 | 215.612 | 1 | 215.612 | 899.380***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1.648 | 1 | 1.648 | 6.874** | .009 |
| 오차 | 1778.824 | 7420 | .240 | | |

* α .05, ** α .01, *** α .001

표 부록-81 측정 년도와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학교 내 활동)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알른 시간상에 대한 인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유의수준 |
|-----------|----------|------|---------|------------|------|
| 측정년도 | 7.053 | 1 | 7.053 | 35.228*** | .000 |
| 학생참여 | 104.031 | 1 | 104.031 | 519.617*** | .000 |
| 측정년도*학생참여 | 1.053 | 1 | 1.053 | 5.258* | .022 |
| 오차 | 1482.540 | 7405 | .200 | | |

* α .05, ** α .01, *** α .001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운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연구보고 17-R17-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병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79-0 94330

979-11-5654-148-6 (세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39-04
연구보고 17-R17-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